

발 간 등 록 번 호

54-6280000-000572-12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참여연구진

| | |
|------|------------------------------|
| 연구책임 | 정 승 화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이 시 림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초빙연구원 |
| 공동연구 | 엄 승 미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초빙연구원 |
| 공동연구 | 이 지 현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에서 의뢰한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 현 애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고착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분되지만,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폭력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은 또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피해자가 복합적인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음
- 외모에 대한 품평이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언어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민감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세대와 성별에 따라 여성폭력의 인식 수준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역시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놀이문화와 결합하여 재생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없이 폭력피해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영상을 유포 하는 등 성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 연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의 발생유형 및 새로

은 형태의 여성폭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범죄통계를 통해 공식통계로 공표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봄
- 인천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지원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 유형과 특성 등을 살펴봄
- 19세 이상 인천 거주 성인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성폭력 피해 전반에 관한 피해 경험을 조사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예방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여성폭력 관련 연구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선행연구 검토
-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 만 19세 이상 성인 1,110명
 - 온라인 조사 : 2022년 5월 18일 ~ 6월 3일

- 강화군과 옹진군을 통합하여 9개 군구별·지역별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 조사항목: 지역사회 안전 및 성범죄 인식,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원)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인식, 인천광역시 안전정책 인식에 대한 실태 파악, 안전정책 요구도 등
- 인천지역 경찰 및 검찰 범죄 통계 중 여성폭력 피해 관련 통계 분석
- 여성권익시설 피해자지원 자료 분석
 - 인천지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피해자 지원 통계 자료 분석자료
- 전문가 자문
 - 여성폭력 피해자 특성 및 피해지원 기관 운영 현황 기관 종사자 자문
 - 여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 요구도 관련 설문지 개발 자문
 -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정책과제 제안 및 방향 자문

□ 설문조사 개요

- 인천광역시 지역별·연령별 할당 표집, 강화군과 옹진군은 통합하여 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목표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을 교차한 목표 표집이 완결되

면 조사를 완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활용
- 유효 표본으로 총 1,110명 응답
-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18일 ~ 6월 3일

□ 설문조사 결과

-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27.4%(2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상사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직장상사 다음으로는 직장동료 33.8%, 고객 20.3%, 고용주 14.1% 순서로 높게 나타남.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성별이 결합하여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66.2%는 피해경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모품평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비율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신체접촉(시도)이 59.5%,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 58.0%, 성적 서비스 요구가 52.1%로 확인됨. 한편 은밀한 장소 권유와 성관계(시도) 피해와 의도적 신체노출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경험

-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교내 성희롱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18.3%로 다른 성희롱 피해 경험보다 높게 나타남
-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장학금이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교제나 신체접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는 3.8%, ‘성관계(시도)’(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2.1%였음
- 대학(원) 내 성희롱 가해자의 케이스 비율은 동기가 64.5%로 가장 높았음. 선배 27.7%, 교수 및 시간강사 각각 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최근 3년(2019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일상통제’(파트너로부터 일상생활(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 및 연락 등)을 통제받은 경험이 있다)가 12.7%(1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대체로 통제로부터 시작되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통제와 관련된 피해경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현재 배우자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100명 중 50명은 현재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배우자 다음으로 과거 연인 27.6%, 현재 연인 16.9% 순서로 높게 조사됨
- 1인 가구의 경우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91.2%(현재 연인

38.2%, 과거 연인 52.9%)였음. 한부모 가족의 경우 과거 연인(50.0%)과 사실혼을 포함한 과거 배우자(43.8%)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구형태에서 사실혼을 포함한 현재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디지털성범죄 피해경험

- 최근 3년(2019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응답자가 직접 경험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피해(PC, 핸드폰, 전화 등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사진, 영상, 소리, 글 등을 전해 받은 적이 있다) 경험이 4.6%로 가장 높았음
- 다른 성범죄 피해 경험과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가해자보다는 친분이 없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40.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27.9%,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가 16.3%였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 중 58.3%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은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논의한 비율이 14.3%, 수사기관(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찰 등)에 신고한 비율이 13.1%,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등)에 상담한 비율은 7.1%였음

○ 일생 동안의 강제추행 피해 경험

-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응답자 1,110

명 중 일생동안(지금까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0%(288명)에 해당한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4.1%(822명)로 조사됨

- 강제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26.0%)는 일생 동안 최대 1회에서 최대 30회, 평균 3.0회의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49.0%, 직장동료 및 일터관계자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 이전 연인 13.9%, 이웃 및 단순 대면자 12.2%, 친구 및 학교 선후배 11.1% 순으로 조사됨
- 강제추행 발생장소의 비율은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등(58.3%), 주택가 및 학교(36.5%), 집(33.0%) 순으로 나타났다.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중 교통시설 내부가 33.3%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의 집은 19.8%,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는 22.6%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 일생동안의 강간 피해 경험

- 강간은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및 항문에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함. 응답자 1,110명 중 일생동안(지금까지) 강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64명)에 해당한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4.2%(1,046명)였음
- 강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64명)는 일생동안 최대 1회에서 최대 10회, 평균 2.2회의 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일생동안 강간 피해를 1회 경험한 비율(59.4%)이 가장 높았으며, 3회(12.5%), 2회(10.9%) 순으로 나타남
- 강간 피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 28.1%, 이웃 및 단순 대면자 15.6%, 친인척과 이전 연인이 각각 14.1% 순이었음

- 강간 피해 발생장소는 집(42.2%), 인구밀집상업지(34.4%),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21.9%), 주택가 및 학교(15.6%), 사무실/공장 등(9.4%), 그 외 장소(6.3%) 순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35.4%(약간 그렇다 30.2%, 매우 그렇다 5.2%)였음.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은 부평구(40.7%), 미추홀구(38.7%), 서구(37.3%), 계양구(3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가장 낮은 군/구는 동구(11.1%)였지만 응답자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움
- 성범죄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미추홀구(74.2%), 계양구(69.6%), 부평구(69.3%), 남동구(68.2%)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집에 혼자 있을 때 수리기사, 택배 기사 등의 낯선 사람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0.9%(약간 그렇다 45.6%, 매우 그렇다 15.3%)였음
- 낯선 사람 방문에 대한 두려움은 부평구(66.3%), 미추홀구(64.4%), 연수구(63.0%), 서구(59.2%)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도

- 인천광역시에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정책 1 ~ 3순위 모두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가 강조됨

○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요구도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이 각각 97.3%를 차지함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인천의 검찰통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

- 인천의 2020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635건으로, 2019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감소함
- 인천의 성폭력 범죄는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인천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428건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172건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경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함

○ 인천광역시 경찰통계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

-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 2,510건에서 2020년 2,108건으로 매년 감소함
- 전국 범죄발생에서 인천지역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7.2%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20년 6.3%임
-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2020년 전국평균 64.7건에 비해 인천은 71.6건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피해 상담 현황

- 인천광역시의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9년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전체 상담에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상담 비율은 70%내외임
-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 데이트

폭력 순이었음.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였음

○ 성매매 범죄의 발생 현황

-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성매매 발생 건수는 4,236건으로 2017년 11,19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인천 또한 2017년 1,413건에서 2020년 464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구 10명당 발생 건수는 전국과 인천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 전국평균은 8.2건인데 비해 인천은 15.8건으로 두 배 가량임. 전국적으로 성매매 범죄 발생건수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성매매 범죄의 경우 경찰의 단속 상황에 따라 통계에 집계되는 발생 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772건에서 2019년 59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665건으로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평균은 21.4건이고 인천은 22.6건임
-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음란물 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에서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주여성 폭력 피해의 특성

-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시민권 및 관련 비자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남편이 이용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존재함.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권을 압수하고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성매매 등을 통해 이주여성을 착취하기도 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성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존재함
-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중첩되어 나타남.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는 다면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이주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은 2020년도부터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주여성 피해가 접수되면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소스콜(SOS C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를 교육시켜서 통역 상담이 가능한 상담원으로 교육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경찰청의 협조가 늘고 이주여성 내부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파악 능력이 확대되면서 2021년도부터 이주여성 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망이 보다 정교해진 점이 피해자 지원통계가 늘어나게 된 배경임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현황

-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2013년 523건, 2014년 541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2020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과 인천 모두

90% 이상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거율이 100%가 넘는 해도 있음

○ 장애여성 피해 지원 현황

- 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상담에서 성폭력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 비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보다는 기타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장애여성의 상담건수는 2021년 120건으로 2020년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하였음
- 2021년 장애여성 가정폭력 피해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45.3%, 정신적·정서적 폭력이 45.9%, 경제적 폭력은 8.8%였음

○ 장애여성 폭력 피해의 특성

-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인지하거나, 가해자를 자신의 인적 자원으로 인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인 성관계나 성매매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피해자가 장애여성일 경우 피해-가해 관계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장애여성이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표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에 대해 성폭력과 성매매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에 대한 인지 및 성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며 장애여성이 양육자가 될 경우 양육교육 또한 필요함

○ 아동·청소년 여성폭력 피해 현황

- 인천광역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전국은 0.2인데 비해 인천은 1.6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남

○ 아동·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

-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성폭력이나 다른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이 피해가 또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보임. 특히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도 높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는 경우 이를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움. 하루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채팅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진다거나, 숙식제공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함
-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쉼터나 시설에서는 다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받지 않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이 아동·청소년이기에 성인과 함께 둘 수 없어 시설 입소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 따라서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시설을 나눌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시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여성폭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 검찰청, 지원 기관 등에 각각 나누어져 있음. 이를 바탕으로 여러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기관 별로 중점을 두거나 필요한 사항이 다르다보니 집계 기준이 다르고 중복으로 집계가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 통계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므로, 이를 관리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접수한 사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폭력피해 양상의 변화와 사례관리, 피해자 지원기관 지원 현황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및 그루밍 피해 실태조사 실시

-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피해유형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함.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과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을 위해 청소년과 20~30대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력 확충

-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디지털 성범죄 발생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1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개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2월 개소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올해 개소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모두 15인 이상의 인력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인천은 6명의 인력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정책과와 여성권익시설, 경찰기관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은 피해 여성을 지지해줄 사회적 기반이 없어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폭력적인 상황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다시 피해를 겪게 됨
-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으로 피해 상황에 노출되게 됨.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아동과 청소년이 처음 폭력을 경험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한 피해 위험 청소년 발굴 등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개입의 노력이 필요함
-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공황, 수면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음.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성매매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경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인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 인천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전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함께 상담하고 있음. 민간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폭력 예방 대응 체계 마련

- 40여 개 유인도서로 이뤄진 인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변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비한 편임
- 섬지역은 지역주민 간 집단·폐쇄적인 문화가 강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 사실 노출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편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은 상담소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경찰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여성폭력 범죄 통계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 작성

-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 중첩되어 발생한 경우, 대표 범죄만으로 통계를 집계하기에 현재 통계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중첩된 범죄의 유형이더라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과 연계된 경우 여성폭력으로 집계하는 통계 작성 지침이 만들어져야 함
-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강간, 강제 행 등의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인지된 범죄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징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

- 여성폭력 피해 작성의 표준화된 작성 가이드를 마련하고 지역별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폭력 피해 유형 등에 대한 세부 통계 작성이 필요함

○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조사과정조정관 확대

-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성착취 피해의 경우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고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음
-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인천지역의 심각한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화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과정조정관을 확대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여성 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수사 문화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아동·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남성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실태 및 잘못된 성문화는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큼.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 착취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 교육청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시수를 할당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성인지 교육 의무 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시수를 할당하고, 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이주 배경 청소년 및 유학생 대상 다양한 언어지원이 가능한 성폭력 상담 기구 확대 필요
 - 인천은 다문화 자녀 및 이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편임. 외국인 학생과 이주 배경 청소년, 이주여성 노동자가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이 가능한 상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 |
|--------------------------------------|----|
| I. 서 론 | 1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내용 | 5 |
| 3. 연구 방법 | 6 |
| 4. 연구 수행 절차 및 일정 | 8 |
| II.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검토 | 9 |
| 1.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 11 |
| 가. 성폭력 실태조사 | 13 |
| 나. 가정폭력 실태조사 | 14 |
| 다. 성매매 실태조사 | 15 |
| 라. 성희롱 실태조사 | 16 |
| 2. 중앙 및 타 시도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 18 |
| 가. 중앙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 18 |
| 나. 타 시도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 21 |
|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 30 |
| III.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33 |
| 1. 조사개요 | 35 |
| 2. 조사결과 분석 | 39 |
| 가.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 39 |
| 나. 대학(원)에서의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 59 |
| 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 76 |
| 라. 디지털성범죄 피해 | 93 |

| | |
|--|-----|
| 마. 일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 107 |
| 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인식 | 115 |
| 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121 |
| 3. 소결 | 137 |
| IV.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발생 현황 | 141 |
| 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및 현황 | 143 |
| 가. 전체범죄 발생추이 및 전국 성폭력 범죄 현황 | 143 |
| 나. 인천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146 |
| 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 현황 | 155 |
| 라. 인천광역시 성매매 발생 현황 | 157 |
| 마.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 168 |
| 2.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및 특성 | 179 |
| 가. 이주여성 | 179 |
| 나. 장애여성 | 180 |
| 다. 아동·청소년 | 185 |
| 3. 소결 | 192 |
| V. 정책 제언 | 195 |
| 1. 시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197 |
| 가. 여성폭력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 197 |
| 나.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력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 | 198 |
| 다.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 198 |
| 라.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적극적 피해자 발굴 | 199 |
| 마. 인천 직장 내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 201 |
| 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폭력 예방 대응 체계 마련 | 201 |

| | |
|-------------------------------------|-----|
| 2. 경찰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203 |
| 가. 여성폭력 범죄 통계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 작성 | 203 |
| 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조사과정조정관 확대 | 204 |
| 3.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 205 |
| 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5 |
| 나. 아동·청소년 성인지교육 의무 교육 실시 | 205 |
| ■ 참고문헌 | 207 |
| ■ 부록 | 209 |

표 차례

| | |
|--|----|
| <표 I-1> 여성폭력지원기관 종사자 및 여성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7 |
| <표 II-1> 여성폭력 통계 생산 및 공표 현황 | 12 |
| <표 III-1> 지역별·연령별 응답자 현황 | 36 |
| <표 III-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7 |
| <표 III-3> 최근 3년 직장 주소지(복수응답) | 39 |
| <표 III-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41 |
| <표 III-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빈도 | 42 |
| <표 III-6> 연령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42 |
| <표 III-7> 학력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43 |
| <표 III-8> 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 45 |
| <표 III-9> 직장 주소지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 45 |
| <표 III-10> 장애유무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 46 |
| <표 III-11>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과 발생시간 | 47 |
| <표 III-1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복수응답) | 49 |
| <표 III-1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53 |
| <표 III-1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 54 |
| <표 III-15> 직장 내 성희롱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 57 |
| <표 III-16>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복수응답) | 58 |
| <표 III-17> 최근 3년 학교 소재지(복수응답) | 59 |
| <표 III-1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61 |
| <표 III-1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빈도 | 61 |
| <표 III-20> 연령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62 |
| <표 III-21> 학력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63 |

| | |
|--|----|
| <표 III-22> 장애유무에 따른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64 |
| <표 III-23>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장소(복수응답) | 65 |
| <표 III-24>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66 |
| <표 III-25> 연령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67 |
| <표 III-26> 학력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67 |
| <표 III-27>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72 |
| <표 III-2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 73 |
| <표 III-2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 75 |
| <표 III-30>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 77 |
| <표 III-31>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빈도 | 78 |
| <표 III-32> 연령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 78 |
| <표 III-33> 혼인상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 79 |
| <표 III-34> 가구형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 80 |
| <표 III-35>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82 |
| <표 III-36> 연령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83 |
| <표 III-37> 혼인상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84 |
| <표 III-38> 가구형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85 |
| <표 III-39>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87 |
| <표 III-40>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 88 |
| <표 III-41> 친밀한 관계 폭력 -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89 |
| <표 III-42> 친밀한 관계 폭력-도움을 요청한 여성 폭력피해지원기관(복수응답) · | 89 |
| <표 III-43>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90 |
| <표 III-44>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 91 |
| <표 III-45>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 92 |
| <표 III-46>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 94 |

| | |
|---|-----|
| <표 III-47>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 94 |
| <표 III-48>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복수응답) | 96 |
| <표 III-49>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98 |
| <표 III-50>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 99 |
| <표 III-51>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100 |
| <표 III-52> 디지털성범죄 - 도움을 요청한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복수응답) .. | 101 |
| <표 III-53>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102 |
| <표 III-54>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 103 |
| <표 III-55> 디지털성범죄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 105 |
| <표 III-5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우선해야 할 사업 | 107 |
| <표 III-57> 강제추행 가해자(복수응답) | 109 |
| <표 III-58> 강제추행 피해발생 장소(복수응답) | 110 |
| <표 III-59> 강간피해 가해자(복수응답) | 113 |
| <표 III-60> 강간피해 발생 장소(복수응답) | 114 |
| <표 III-61> 폭력피해 경험 이후 최근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정도 | 117 |
| <표 III-62> 폭력피해 이후 일상생활 변화(복수응답) | 118 |
| <표 III-63> 피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기관(복수응답) | 120 |
| <표 II-64>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에 대한 걱정 | 121 |
| <표 III-65>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 | 122 |
| <표 III-66>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 피해 두려움 | 123 |
| <표 III-67> 낯선 사람 방문에 대한 두려움 | 124 |
| <표 III-68>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 | 125 |
| <표 III-69> 야간 가로등 설치 | 127 |
| <표 III-70> 빈집 및 공터 관리 | 128 |
| <표 III-71> 공공화장실 이용 | 129 |

| | |
|---|-----|
| <표 III-72> 경찰 순찰 | 129 |
| <표 III-73> CCTV 설치 | 130 |
| <표 III-74> 여성과 아동의 생활 안전 | 130 |
| <표 III-75>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안전정책 | 133 |
| <표 III-76> 인천광역시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35 |
| <표 IV-1>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대비 발생률(2017~2020) | 147 |
| <표 IV-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147 |
| <표 IV-3> 인천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추이(2017~2020) | 149 |
| <표 IV-4> 성폭력 범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 149 |
| <표 IV-5> 성폭력 범죄 유형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 150 |
| <표 IV-6>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전체 상담건수(2016~2021) | 152 |
| <표 IV-7>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유형별 현황: 젠더기반폭력 | 153 |
| <표 IV-8> 인천광역시 긴급피난처 입소 현황 | 153 |
| <표 IV-9> 가정폭력 범죄 112 신고건수 및 인구대비 신고율(2017~2020) | 155 |
| <표 IV-10>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검거율(2017~2020) | 156 |
| <표 IV-11>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긴급임시조치 결정 현황 (2017~2020) | 157 |
| <표 IV-12> 성매매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2017~2020) | 158 |
| <표 IV-13> 성매매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및 전국대비 인천 비중 | 159 |
| <표 IV-14> 성매매 범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 160 |
| <표 IV-15> 성매매 피해 유형(2019~2021) | 161 |
| <표 IV-16> 성매매 상담 내용(2019~2021) | 163 |
| <표 IV-17> 성매매 알선고리 및 성매매 유형(2020~2021) | 164 |
| <표 IV-18> 성매매 피해자 나이(2019~2021) | 166 |
| <표 IV-19> 성매매 상담방법(2019~2021) | 166 |
| <표 IV-20> 성매매 상담소 상담경로 | 167 |

| | |
|---|-----|
| <표 IV-21> 디지털 성폭력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 | 168 |
| <표 IV-22>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169 |
| <표 IV-23>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 170 |
| <표 IV-24>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71 |
| <표 IV-25>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72 |
| <표 IV-2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건수 | 173 |
| <표 IV-2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 | 175 |
| <표 IV-28>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 | 176 |
| <표 IV-29>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세부 현황 | 177 |
| <표 IV-30> 이주여성 상담 유형 | 179 |
| <표 IV-31>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1 |
| <표 IV-3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1 |
| <표 IV-33> 성폭력상담소 지원 건수 및 상담 인원(2019~2021) | 182 |
| <표 IV-34> 성폭력 피해유형별 지원 인원(2019~2021) | 183 |
| <표 IV-35> 가정폭력 상담 건수: 전체 및 장애여성(2019~2021) | 184 |
| <표 IV-36> 장애여성 가정폭력 피해 유형(2019~2021) | 184 |
| <표 IV-37>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6 |
| <표 IV-38>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7 |
| <표 IV-39>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8 |
| <표 IV-40>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8 |
| <표 IV-41>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89 |
| <표 IV-4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 190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I-1] 최근 3년 직장 경험 유무 | 39 |
| [그림 III-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40 |
| [그림 III-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간 | 47 |
| [그림 III-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복수응답) | 49 |
| [그림 III-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성별 | 50 |
| [그림 III-6]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 및 담당직원 | 51 |
| [그림 III-7]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경험 여부 | 51 |
| [그림 III-8] 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경험 여부 | 52 |
| [그림 III-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54 |
| [그림 III-10]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 사건조사 만족도 | 55 |
| [그림 III-11]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56 |
| [그림 III-12]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이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57 |
| [그림 III-13]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60 |
| [그림 III-14]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66 |
| [그림 III-15]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성별 | 68 |
| [그림 III-16]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경험 여부 | 69 |
| [그림 III-17] 학교 소재지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경험 여부 · | 70 |
| [그림 III-1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도움 정도 | 71 |
| [그림 III-1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72 |
| [그림 III-20]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74 |
| [그림 III-21]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대처 이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 75 |
| [그림 III-22]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 있음 비율 | 76 |
| [그림 III-23]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 82 |

| | |
|--|-----|
| [그림 III-24]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 성별 | 86 |
| [그림 III-25]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87 |
| [그림 III-26]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92 |
| [그림 III-27]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93 |
| [그림 III-28]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복수응답) | 96 |
| [그림 III-29]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성별 | 97 |
| [그림 III-30]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98 |
| [그림 III-31] 수사기관 사건처리 도움 정도 | 100 |
| [그림 III-32]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대처 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 105 |
| [그림 III-33]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지도 | 106 |
| [그림 III-34] 강제추행 피해 경험 횟수 | 108 |
| [그림 III-35] 강제추행 가해자(복수응답) | 109 |
| [그림 III-36] 강제추행 피해발생 장소(복수응답) | 110 |
| [그림 III-37] 강간 피해 경험 횟수 | 112 |
| [그림 III-38] 강간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 113 |
| [그림 III-39] 강간피해 발생 장소 | 114 |
| [그림 III-40] 폭력피해 경험 이후 최근 한 달 스트레스 정도 | 116 |
| [그림 III-41] 폭력피해 이후 일상생활 변화(복수응답) | 118 |
| [그림 III-42] 관련 기관의 대응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된 정도 | 119 |
| [그림 III-43]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주요 안전정책 | 133 |
| [그림 III-44] 인천광역시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35 |
| [그림 IV-1] 전국 및 인천의 전체 범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 144 |
| [그림 IV-2]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 | 145 |
| [그림 IV-3] 인천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4년~2020년) | 146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수행 절차 및 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고착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993년 제정된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공적·사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는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행위를 포함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이나 대상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분되지만, 여성폭력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은 또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피해자가 복합적인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이나 자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도 하고 폭력 피해 경험 속에 성착취나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협박이나 유인에 의해 또 다른 성폭력이나 성착취 피해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이나 스토킹, 연인, 혹은 이전 연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등이 문제화 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폭력 피해는 집계하는 방식과 여성폭력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에 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시대적인 민감성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폭력에 대한 정의에 따라 측정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은 폭력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사회적 규범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폭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민감도는 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폭력 피해로 집계되는 수치가 증가하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의 성적 농담이나 성적 언행이 범죄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장에서의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적인 태도가 부적절하고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의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모에 대한 품평이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언어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민감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세대와 성별에 따라 여성폭력의 인식 수준이나 피해에 대한 민감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놀이문화와 결합하여 재생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폭력피해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영상을 유포 하는 등 성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임으로 규정되었다. 인천광역시도 2020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및 시행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의 발생유형 및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인천에서 처음 실시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실태조사이다. 이 연구는 여성폭력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 여성폭력의 피해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범죄통계를 통해 공식통계로 공표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통계 등을 참고하고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19세 이상 인천 거주 성인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디지털성범죄, 평생 동안의 강제추행 및 강간피해 경험 등 여성폭력 피해 전반에 관한 피경험을 조사하였고 피해자가 이후의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조사하고, 2차 피해 여부와 폭력 피해 이후의 스트레스 경험, 현재의 안전과 관련한 인식도 및 인천광역시 안전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여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구축 방안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여성폭력 관련 연구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선행연구 검토

○ 인천지역 경찰 및 검찰 범죄 통계 중 여성폭력 피해 관련 통계 분석

○ 여성권익시설 피해자지원 자료 분석

- 인천지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피해자 지원 통계 자료 분석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 만 19세 이상 성인 1,110명
- 온라인 조사: 2022년 5월 18일 ~ 6월 3일
- 강화군과 옹진군을 통합하여 9개 군구별·지역별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 조사항목: 지역사회 안전 및 성범죄 인식,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대학(원)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인식, 인천광역시 안전정책 인식에 대한 실태 파악, 안전정책 요구도 등

○ 심층 면접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 인터뷰: 6명

○ 전문가 자문

- 여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설문지 개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자문의견 반영

<표 I-1> 여성폭력지원기관 종사자 및 여성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구분 | 일시/장소 | 참석자 | 자문내용 |
|------|---|---|---|
| 서면자문 | 2022.4.26.(화) ~5.2.(월) | 박인혜(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미리(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 조사 설문지 문항 검토 |
| 자문회의 | 2022.7.8.(금)10시/ 재단 3층 회의실 | 연구책임자, 성미경(인천이주여성센터살려온 소장), 조세은(인천이주여성센터살려온 부소장) | · 이주여성지원센터의 운영상황 · 이주여성 폭력피해의 특성 ·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방안 |
| 자문회의 | 2022.7.12.(화)14시/ 재단 3층 회의실 | 연구책임자, 김석순(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소장), 송윤옥(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 · 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
| 자문회의 | 2022.8.3.(수)10시/ 재단 3층 회의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류혜진(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팀장) |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상황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특성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
| 자문회의 | 2022.8.11.(목)15시/ 재단 3층 회의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강혜정(희희낙낙상담소) | · 성매매지원시설 운영상황 · 성매매 피해의 특성 ·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특성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안 |
| 서면자문 | 2022.9.30.(금) ~10.6.(목) | 김주희(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박성혜(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팀장), 박인혜(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최지나(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 홍미리(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여성폭력 유형별 정책 제언 자문 |
| 자문회의 | 2022.10.14.(금) 10시 30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 경찰 여성폭력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방안 |

4. 연구 수행 절차 및 일정

○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연구호름 | | 연구 내용 | | 추진결과 |
|------|---------------|------------------------------|---|----------------------------------|
| 1 단계 | 연구설계 | 착수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의 목적, 내용, 대상,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내용 구성 |
| | | 전문가 착수자문회의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검토 | |
| 2 단계 | 문헌 및 각종 자료 분석 | 정책자료 분석 및 기존연구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및 타지자체 여성폭력 실태조사 선행연구 검토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관련 연구 검토 | 여성폭력 실태조사 현황 파악 및 폭력 피해 통계 자료 구축 |
| | |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한 인천시 여성 폭력 실태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경찰 및 검찰 범죄통계에 나타난 여성폭력 실태 분석 | |
| 3 단계 | 조사연구 | 여성폭력 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지역 만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 성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 등 조사 | 폭력피해 실태 분석 및 정책 욕구 파악 |
| | | 여성권익시설 전문가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폭력 피해의 특성 조사 | |
| 4 단계 |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결과 보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 |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 | | 전문가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모색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논의 | |
| 5 단계 | 결과보고 | 최종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과제 논의 여성폭력 피해 데이터 관리 방안 논의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 | | 연구보고서 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보고서 발간 | |

Ⅱ.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2. 중앙 및 타 시도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1.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여성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크게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들의 실적 통계와 범죄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범죄통계, 실태조사에 의한 조사통계로 나뉜다. 통계 생산의 목적과 생산주체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유형분류와 체계는 다양하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가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 유형과 가해자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분류된 실태조사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폭력 피해의 다양한 경험들이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은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태파악이 어려웠다. 새로운 폭력 유형을 포괄할 필요성과 함께 개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들의 폭력 범주가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문제로 인해 포괄적인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장미혜, 2020: 69). 이 장에서는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의 특성과 조사 내용, 한계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표 II-1> 여성폭력 통계 생산 및 공표 현황

| 유형 | 정의 | 생산 및 공표 현황 | | | |
|------|---|------------------------------|-------|------|------|
| | | 작성통계명 | 공표기관 | 공표주기 | 작성주기 |
| 지원통계 |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서 사업 수행에 따른 실적 결과를 보고하는 통계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 | 1년 | 6개월 |
| | |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 | 1년 | 6개월 |
|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 6개월 | 6개월 |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 6개월 | 6개월 |
|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 미공표 | — | 6개월 |
|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 미공표 | — | 6개월 |
| 범죄통계 | 수사 및 법률기관 등 범죄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에 근거한 통계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대검찰청 | 1년 | 1년 |
| | | 경찰청 범죄통계 | 경찰청 | 1년 | 1년 |
| | | 법원 사법연감 | 대법원 | 1년 | 1년 |
| 조사통계 | 실태조사에 의해 모집단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여성폭력 수준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3년 | 3년 |
| | | 성폭력 실태조사 | | 3년 | 3년 |
| | | 성매매 실태조사 | 미공표 | — | 3년 |
| | | 성희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3년 | 3년 |
| | | 여성폭력 실태조사 | | 3년 | 3년 |

출처: 주재선 외. (202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통계 개선방안 연구」 pix, 3. 채구성.

가.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은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특별법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였다(이미정 외, 2019).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2차 가해 등의 문제에 혼자서 대응해야 하는 등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전국 대상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특정 유형별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각 조 항목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하여 그 규정과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 유형의 변화는 성폭력 실태조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에 표본 수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에는 표본크기가 3,200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3,500명, 2016년 7,200명, 2019년 10,000명으로 표본 크기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피해 경험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주기마다 핵심 문항은 유지하면 조사 시점에서의 현안을 반영하여 매 조사마다 조사표를 보완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9).

성폭력실태조사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스토킹, 몰래카메라, 음란전화·문자·메일 등 범죄 행위별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성희롱이나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일상적인 행위와 결합하여 맥락적으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력 피해를 묻는 문항이 부족하다.

나.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은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미정 외, 2019).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라는 사회의 인식과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며, 그 처벌이나 개입 또한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 실태와 그 피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가족구성원’이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비교적 넓은 가족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2007년마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에 표본수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에는 표본크기가 3,800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5,000명, 2016년 6,000명,

2019년 9,000명으로 표본 크기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축소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면접원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여성폭력 연구 및 조사 관련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면접 조사 절차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다(이미정 외, 2019).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구와 가정폭력 피해 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남녀 응답자 모두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 즉 연인이나 이전 파트너 관계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장미혜 외, 2020: 71-72). 데이트 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및 경제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성매매 실태조사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 업소의 실태와 성매매 관련자의 실태, 성 구매자의 경험 등 성매매 산업을 둘러싼 여러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조사를 통해 성구매 관련 인식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실태조사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성매매 업소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 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의 변화,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9). 성매매 실태조사는 앞서 살펴본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달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달리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2016년에는 성매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심층조사, 모바일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미정 외, 2019).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 조사는 조사내용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국가승인통계 승인이

■

취소되었고(이미정 외, 2015),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또한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실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튜브를 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고, 청소년 성매매 조사에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으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성매매의 실태를 경찰 혹은 검찰에서 발표하는 통계로만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성매매처벌법 6가지 항목에 나와 있는 성매매,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성 등, 아동·청소년,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장미혜 외, 2020: 74). 범죄통계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로 통합하여 집계하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된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에 불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가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성매매 실태조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정리된 형태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라.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9).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 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성희롱의 발생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장미혜 외, 2019), 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와 일반 직원을 나누어 진행된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해당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에게는 해당 직장의 조직 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성희롱 피

해 경험, 성희롱 전담 부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황정임 외, 2022). 성희롱 실태조사의 경우 민간사업체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전문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전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기관은 온라인 조사로, 전문 전화 조사원이 기관에 사전 연락을 진행하여 응답자의 이메일을 수집한 후, 응답자에게 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웹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황정임 외, 2022).

성희롱 실태조사의 경우 사업체 표본을 추출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응답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 단위의 근로자 명부는 확보할 수 없어 사업체 구성원 중 응답자 선정에 있어 무작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비체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업체 조사의 특성상 임금노동자를 제외한 특수 고용직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2015년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8년 3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제약에 따라 표본 규모 및 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사업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큰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사건의 은폐 및 2차 피해 발생 확률이 높으며,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자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피해 조치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 형태에 및 사업체에 따른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체별, 산업별, 규모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사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황정임 외, 2022).

2. 중앙 및 타시도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가. 중앙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1)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 연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제적인 여성폭력 기준에 맞는 통계의 필요성과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시행되었고 전국적 조사로 여성폭력의 발생 상황을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020년에 이루어진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 연구」는 2021년 시행될 여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표를 개발하고, 표본설계 제안, 조사방법 및 운영방안 제안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 결과 여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율과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파악했고, 여러 가해자의 유형을 포괄하여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개별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기존의 실태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피해 경험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 조사를 통해 최종 조사 항목을 결정하였으며, 이 조사 항목에는 2차 피해 경험 및 유형, 2차 피해의 가해자, 정서적·심리적 폭력, 통제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라인 그루밍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그동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폭력 경험 및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노인 여성의 인구가 경험하는 여성폭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연령 대상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되, 연령의 상한을

두지 않고, 만 15세~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심각한 성폭력 피해발생율은 빈번하게 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전국단위의 통계를 제공할 뿐 지자체 별로 폭력 피해의 발생비 등은 제공하지 않기에 지역에서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21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고, 해당 자료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의 유형을 UN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간 조사가 되지 않았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지속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조사는 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하여, 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여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고, 부가조사는 만 14~18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된 인식 및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장미혜 외, 2021). 특히, 2021년 조사에서는 장애여성과 이주여성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의 여성이 구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성폭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2020년과 2021년 코로나가 여성폭력의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폭력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피해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성폭력 중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폭력 피해 경험을 중첩피해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 실시된 조사로서, 향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폭력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여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여성폭력 자료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장미혜 외, 2021).

실태조사 결과 평생 스토킹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친밀한 관계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 피해자 10명 중 4명 수준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삼분의 일정도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정책제언으로 데이트(교제)폭력, 스토킹, 그루밍 범죄 등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법률 및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입력 가이드 개발 연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폭력통계 체계화의 필요성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표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피해자 지원실적 통계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표준화된 통계입력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고 있어 통계 수치에 대한 해석이나 타기관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입력 가이드 개발 연구」는 여성폭력의 고유한 속성을 정책적 의제로 이끌어내면서 다양한 피해지원 현황의 포괄적 집계 가능한 지원통계 표준안 및 입력 가이드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원기관의 통계집계 현황 및 수집 환경 사례를 조사하고 폭력유형·지원기관·지원대상별 실적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통계 표준안, 지원 실적 입력 가이드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여성폭력통계는 지원통계, 범죄통계, 조사통계로 나누어지며 이중 지원통계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이 작성하여 매해 지원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지원기관 통계 작성의무는 국비지원 기관이 주요 대상이며, 여성가족부는 보고되는 통계 중 일부 통계를 매해 피해지원기관 운영실적 통계로 공표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중 일부 기관이 협의회 차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부분 기관별 자체 입력·관리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표준안 초안을 작성하고, 합의개발회의를 통해 2021년 표준안 입력가이드를 제시했다.

입력가이드는 크게 운영현황, 피해자 정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지원내용, 상담소(방법, 의뢰인, 유형), 시설·센터(이용자현황, 기간, 경로)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목 별로 집계 단위, 구분 안, 구분 변수를 설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 중인 지원실적 입력 서식지 및 입력 가이드라인, 공표통계 등에 대해 자료검토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표준안을 사전 개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합의개발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수정·보완된 표준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집계항목은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하여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표준안은 통일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기관별, 피해유형별, 지원대상별 다름과 다양성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여성폭력 지원통계를 총괄하는 기관에서 지원실적 입력 가이드라인의 표준안을 제공하고 개별 상담소에서 수집하여 관리 중인 여성폭력 피해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화하여 아카이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관리부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

나. 타 시도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1) 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에 비해 여성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고자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찰통계와 검찰통계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분석, 서울시 내 상담소의 상담통계 분석, 여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미투 운동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코로나 19가 여성폭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과 친족성폭력,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가 나타났다. 여성폭력 피해는 단일한 하나의 피해 유형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중첩,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의 중첩 등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가 중첩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첩피해는 피해가 중첩될 때까지 폭력 중단을 위한 지원체계가 개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지원체계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연이은 피해 상황에 대한 조기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중첩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피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의 피해를 파악해 폭력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여성폭력은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지금의 상담분류가 이를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에 따라 피해지원의 대상과 내용, 방식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각 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상담통계 개선 및 적극적 관리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하였다. 또한 상담소의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직장 생활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강화하여 단기적 사건 해결 중심의 지원보다 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부산지역 데이트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2020년에는 「부산지역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연구에서 모두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피해그룹 및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은 관계를 중요시 하지만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낮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어 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별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경험한 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폭력 발생 후 관계 유지 이유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 중 통제 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 보호조치가 미약하거나 보복 등을 두려워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트 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어릴수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법영상물의 공유,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30대가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10대가 가장 불안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폭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으며, 젠더폭력 대응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감시단 활성화, 삭제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데이트 폭력 전문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언급했

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나 이에 대한 불안은 10대가 가장 덜 느끼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또한 앞서 살펴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를, 2021년에는 「대구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구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의 경우 대구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범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벌 등을 살펴 신고 사례를 살펴보았다.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예방 정책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신변보호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 대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법촬영물 시청에 대해서는 93.5%, 돈을 주고 구매해서 보는 것은 94.6%가 범죄라고 인식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 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성범죄의 절반 정도는 서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성 86.9%, 남성 80.3%가 두렵다고 응답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두려움이 높았으나, 여성은 본인이나 딸이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딸, 여자친구, 배우자가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는 여성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폭력 모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관 간 연

계 강화,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대구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타 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2020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2020년에 「울산 지역 여성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울산의 여성폭력 및 안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및 현황, 그리고 안전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울산 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여성폭력 방지 대책 및 울산지역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여성폭력 범죄는 2018년 189건에서 2019년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유형과 양상 또한 불법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배포 등 다변화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48.6%가 실제 젠더폭력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경험 유형에서는 길거리 성적 괴롭힘(35.2%), 직장 내 성희롱(24.0%), 사이버 폭력(8.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생활환경에 비해 사이버공간(디지털성범죄)이 상대적으로 젠더폭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응답자들이 느끼는 실제 위험한 곳은 길거리였지만 심각성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전에는 여성폭력 발생 장소가 여관, 모텔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일상으로 들어와 여성들이 실제로 주거하는 ‘원룸’이 주요 장소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울산광역시시의 경우, 울산의 남성중심산업구조가 여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울산광역시만의 정책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가부장적인 성향은 강화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주도권이 낮아 남성은 여성폭력에 대한 범죄의식이 낮고, 피해여성은 사회-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 한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곧 울산의 여성폭력 문제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여성폭력의 핵심적인 예방 및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여성폭력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여성의 자활프로그램, 직장 내 성희롱 변호사지원제도, 여성특보 관련 현황, 전문가 처우 개선 문제, 사각지대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그치고 있어 최근의 범죄 양상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직시하고,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에 진행된 「제조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대응, 피해 영향,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젠더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 성희롱(18.1%), 성추행(10.6%), 가정폭력(6.0%) 순으로 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젠더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폭력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항목에서 각각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여 남성들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 경험 및 대응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폭력 인식과 경험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고, 데이트 폭력 경험 시 여성은 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남성은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가만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 기관 방문 등의 적극적 조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심층 면접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강한 제주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개인의 신상이 금방 드러나고 소문날까 두려워 피해 경험 이후 신고나 상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변인들도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례제정 및 개정,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추진 체계 마련, 피해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인식 개선 및 일상적 불안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젠더폭력 현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와 통계 생산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 지표’와 같은 대규모 조사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현황과악 및 원인 진단을 통한 신속한 정책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6) 성남시

성남시는 2019년 「성남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계획 연구」, 2020년 「성남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계획」 연구를 각각 수행하여 각 폭력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남시민 중 19~64세 성인, 중1~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성남시민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코로나 19가 가정폭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분당권역에 비해 수정·중원권역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사는 동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피해 경험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분당권역 거주자가 전체적으로 피해 경험이 적었으며, 이는 청소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함께 있는 시간, 스트레스, 싸움(갈등)이 코로나 19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1%, 39.6%, 23.7%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여성의 55.1%, 남성의 47.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유형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있어서 모든 유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고, 분당권역보다 수정·중원권역이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같은 성남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분당권역과 수정·중원권역 간 지역 격차가 존재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경험 및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타 시도 조사에 비해 권역별 차이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수행되었으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성남시의 위치성 및 생활권에 따른 정책 사업 수행을 제안했다. 구별 및 세부 동 단위의 안전진단 정례화, 지역 간 성평등 의식과 성폭력 및 안전 의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관련 홍보 강화, 지역 간 안전 불안감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특화된 안전 정책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7) 수원시

수원시는 2019년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특히 데이트폭력 실태와 인식,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원시민의 데이트 폭력 인식 및 경험을 확인하고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실태조사는 수원시민 만 15세~59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응,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연구에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나누어 정책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원시의 여성폭력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지역연대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폭력의 범위를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한정하여 여성폭력의 범위가 좁으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례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젠더 폭력에 기반한 폭력으로 개정해야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현황 및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지원의 홍보를 확대하여 수원시민 스스로가 데이트 폭력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며,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홈페이지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배너를 설치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원시 데이트 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 학계 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의견청취,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가. 2019년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는 2019년에 수행된 연구로, 스마트폰 보급의 일상화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인천광역시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인천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천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6.6%가 ‘지금까지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및 유포 협박, 온라인 상의 성적 비하 등 괴롭힘’과 같은 피해를 1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성적 메시지 혹은 성적 비하, 공격하는 댓글, 문자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전체 피해 경험의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를 경험한 후에는 심리적 불안감과 수치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해 경험이라고 응답한 인원 중 38%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1위는 공중화장실, 2위는 지하철, 3위는 숙박업소로 나타났고, 시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37.9%가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태 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의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전문 인력 지원의 필요성,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수립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불법촬영 점검 내실화를 통한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 둘째,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셋째, 지역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심리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넷째, 가해자 처벌 강화, 적극적 단속 및 모니터링, 수사기관의 개입 의지 향상을 통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고과정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관 대상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나. 2021년 「인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폭력 상담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달체계에 서 상담이라는 주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은 심리·정서 지원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사법적 지원과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까지 연계 되는만큼 상담소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상담소에 종사하는 상근직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원이 인식하는 역할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여성폭력 상담소는 2021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가정 폭력 상담소 8개소, 성폭력 상담소 5개소, 성매매 상담소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구 내 분포가 다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상담소 상근 상담직원 1명이 연간 담당한 상담실적은 가정폭력 501~702건, 통합 259~540건, 성폭력 145~283 건으로 상담원이 담당하는 상담 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상담원의 소진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담원들은 상담, 홍보·교육, 조사·연구, 지원·연계, 행정 중 상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나 상대적으로 수행 정도가 낮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행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및

■

연계 서비스 제공은 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에서는 지원·연계의 중요도를 행정 수준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도의 간극이 존재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재분배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기능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담소에서는 기타 행정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력 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재분배하여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나 집단 상담, 부모 및 가족 상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유 업무 전문화와 과잉업무 축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했으며, 상담 구조화 전략 마련, 상담원 소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담원의 역량 개발 교육 정례화, 비대면 차원에서의 상담 접근성 향상, 지역 여성폭력 관련 유관 기관과 원스톱 서비스 구축, 행정 간소화 및 폭력의 조기 발견과 대응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여 상담소 간 서비스의 균일화와 질적 수준의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Ⅲ.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1. 조사개요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3년 동안에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 학교 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피해경험을 조사하였고 평생동안의 성폭력 경험과 성추행 경험, 지난 1년 동안의 성폭력 경험과 성추행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사회의 성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지역별·연령별 통계청 자료(2021년)를 근거로 하여 조사 표본을 배정하고 이 비율에 맞춰 표본을 할당하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통합하여 조사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목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을 교차한 목표 표집이 완결되면 조사를 완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활용하였고 유효표본으로 총 1,110명이 응답하였다. 애초의 지역별 연령에 따른 할당을 초과한 지역이 일부 포함되었지만, 엄격한 군구별 비교 분석을 목표로 한 연구가 아니기에 인천 지역 사례 연구로 응답자료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 군구별 응답자 1,110명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 III-1>와 같다. 지역별로는 서구 18.1%, 부평구 17.9%, 남동구 17.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만19세~29세 24.4%, 40대 23.0%, 30대 2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 지역사회 안전 및 성범죄 인식, 직장 내/대학(원) 성희롱(성적 괴롭힘) 피해 경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인식, 인천광역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도 등이었다.

<표 III-1> 지역별·연령별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 연령별 | 전체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 옹진 |
|----------------|----------------|------------|-----------|-------------|-------------|-------------|-------------|-------------|-------------|-----------|
| 전체 | 1,110 100.0 | 52 4.7 | 18 1.6 | 163 14.7 | 146 13.2 | 198 17.8 | 199 17.9 | 112 10.1 | 201 18.1 | 21 1.9 |
| 20대 (만19포함) | 271 24.4 | 7 13.5 | 4 22.2 | 44 27.0 | 33 22.6 | 50 25.3 | 51 25.6 | 32 28.6 | 49 24.4 | 1 4.8 |
| 30대 | 225 20.3 | 13 25.0 | 3 16.7 | 29 17.8 | 34 23.3 | 41 20.7 | 39 19.6 | 18 16.1 | 44 21.9 | 4 19.0 |
| 40대 | 255 23.0 | 12 23.1 | 4 22.2 | 33 20.2 | 37 25.3 | 49 24.7 | 41 20.6 | 21 18.8 | 50 24.9 | 8 38.1 |
| 50대 | 189 17.0 | 9 17.3 | 2 11.1 | 29 17.8 | 24 16.4 | 31 15.7 | 32 16.1 | 21 18.8 | 36 17.9 | 5 23.8 |
| 60대 | 119 10.7 | 8 15.4 | 2 11.1 | 19 11.7 | 14 9.6 | 19 9.6 | 25 12.6 | 12 10.7 | 17 8.5 | 3 14.3 |
| 70대 이상 | 51 4.6 | 3 5.8 | 3 16.7 | 9 5.5 | 4 2.7 | 8 4.0 | 11 5.5 | 8 7.1 | 5 2.5 | 0 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전체 | | 1,110 | 100.0 |
| 국적 | 대한민국(출생시 국적 취득) | 1,100 | 99.1 |
| | 귀화 이주민(출생국가 기록) | 3 | 0.3 |
| | 국적 미취득 이주민(출신국가 기록) | 5 | 0.5 |
| | 외국인(출신국가 기록) | 2 | 0.2 |
| 인천거주기간 | 1년 미만 | 28 | 2.5 |
| | 1~3년 미만 | 62 | 5.6 |
| | 3~5년 미만 | 57 | 5.1 |
| | 5~10년 미만 | 84 | 7.6 |
| | 10~20년 미만 | 190 | 17.1 |
| | 20년 이상 | 689 | 62.1 |
| 최종 학력 | 중학교 졸업 이하 | 8 | 0.7 |
| | 고등학교 졸업 | 333 | 30.0 |
| | 23년제 대학 졸업 | 255 | 23.0 |
| | 4년제 대학 졸업 | 449 | 40.5 |
| | 대학원 졸업 | 65 | 5.9 |
| 장애 | 예 | 25 | 2.3 |
| | 아니요 | 1,085 | 97.7 |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21 | 84.0 |
| | 미등록장애인 | 4 | 16.0 |
| 혼인상태 | 미혼/비혼 | 465 | 41.9 |
| | 기혼(배우자 있음) | 563 | 50.7 |
| | 동거(사실혼 포함) | 9 | 0.8 |
| | 이혼 | 65 | 5.9 |
| | 사별 | 5 | 0.5 |
| | 별거 | 3 | 0.3 |
| 가구형태 | 1인 가구 | 145 | 13.1 |
| | 부부(사실혼 포함) | 212 | 19.1 |
| | 한부모 가족 | 58 | 5.2 |
| | 부모+미혼자녀 | 606 | 54.6 |
| | 부모+기혼자녀 | 20 | 1.8 |
| | 3세대 이상 | 38 | 3.4 |
| | 기타 | 31 | 2.8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직업 | 관리자 | 27 | 2.4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16 | 10.5 |
| | 사무종사자 | 347 | 31.3 |
| | 서비스 종사자 | 86 | 7.7 |
| | 판매 종사자 | 34 | 3.1 |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4 | 0.4 |
| | 기능원 및 관련 기증 종사자 | 18 | 1.6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2 | 0.2 |
| | 단순노무종사자 | 38 | 3.4 |
| | 군인 | 2 | 0.2 |
| | 주부 | 244 | 22.0 |
| | 학생 | 57 | 5.1 |
| | 무직/퇴직 | 98 | 8.8 |
| | 기타 | 37 | 3.3 |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 545 | 80.9 |
| | 임시근로자 | 63 | 9.3 |
| | 일용근로자 | 20 | 3.0 |
| |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 17 | 2.5 |
| |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 26 | 3.9 |
| | 무급가족종사자 | 3 | 0.4 |
| 고용형태 | 정규직 | 529 | 78.5 |
| | 비정규직 | 145 | 21.5 |
| 직장주소지 | 중구 | 39 | 5.8 |
| | 동구 | 12 | 1.8 |
| | 미추홀구 | 89 | 13.2 |
| | 연수구 | 50 | 7.4 |
| | 남동구 | 111 | 16.5 |
| | 부평구 | 75 | 11.1 |
| | 계양구 | 31 | 4.6 |
| | 서구 | 98 | 14.5 |
| | 강화군 | 13 | 1.9 |
| | 옹진군 | 3 | 0.4 |
| | 서울 | 79 | 11.7 |
| | 경기 | 60 | 8.9 |
| | 기타 지역 | 14 | 2.1 |
| 총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64 | 5.8 |
| | 100~200만원 미만 | 88 | 7.9 |
| | 200~300만원 미만 | 183 | 16.5 |
| | 300~400만원 미만 | 166 | 15.0 |
| | 400~500만원 미만 | 149 | 13.4 |
| | 500~600만원 미만 | 121 | 10.9 |
| | 600~700만원 미만 | 94 | 8.5 |
| | 700만 원 이상 | 168 | 15.1 |
| | 잘 모름 | 77 |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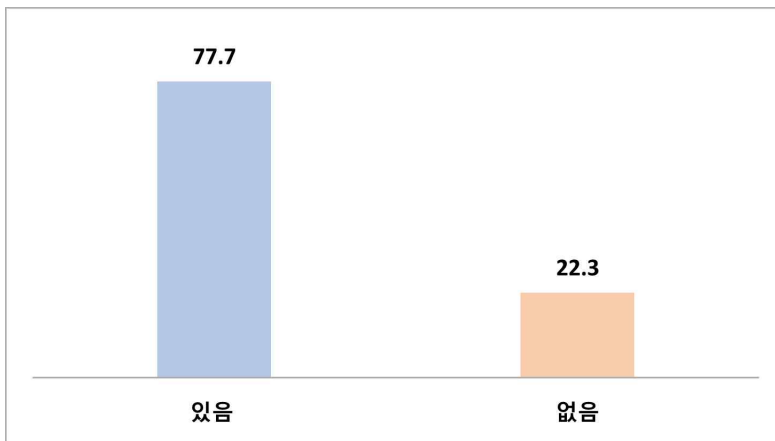
2. 조사결과 분석

가.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7.7%(862명)이었고, 직장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22.3%(248명)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 최근 3년 직장 경험 유무

(n= 1,11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최근 3년 내에 직장 경험이 있는 응답자(927명)가 다닌 직장 주소지는 인천 78.3%, 서울 15.45%, 경기도 12.0%, 기타지역 2.0%로 조사되었다.

<표 Ⅲ-3> 최근 3년 직장 주소지(복수응답)

(n=927,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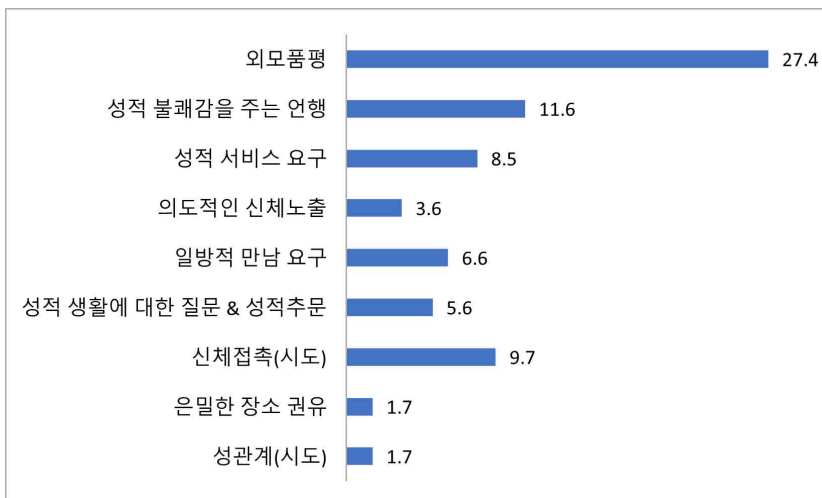
| 지역 | 명수 (%) | 케이스 비율 |
|-----|-------------|--------|
| 인천 | 674 (72.7) | 78.3 |
| 서울 | 133 (14.3) | 15.4 |
| 경기도 | 103 (11.1) | 12.0 |
| 기타 | 17 (1.8) | 2.0 |
| 합계 | 927 (100.0) | 107.7 |

1)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27.4%(2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품평 다음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동영상, 글, 음성, SNS 등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이 11.6%(100명), ‘신체접촉(시도)’(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고의 혹은 강제로 내 몸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끼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이 9.7%(84명)로 높은 피해 경험 비율을 보였다.

‘은밀한 장소 권유’(나는 원하지 않는데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려 하거나, 권유하여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와 ‘성관계(시도)’(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와 관련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15명)였다.

[그림 III-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n=862, 단위: 명, %)

| 항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외모품평 | 236 (27.4) | 626 (72.6) | 862 (100.0) |
| (2)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예: 음담패설, 성적인 동영상 및 음성 등을 제안 등) | 100 (11.6) | 762 (88.4) | 862 (100.0) |
| (3) 성적 서비스 요구 (예: 안마, 스킨십,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옆에 앉기 요구 등) | 73 (8.5) | 789 (91.5) | 862 (100.0) |
| (4) 의도적인 신체노출 | 31 (3.6) | 831 (96.4) | 862 (100.0) |
| (5) 일방적 만남 요구 | 57 (6.6) | 805 (93.4) | 862 (100.0) |
| (6) 성적 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추문 | 48 (5.6) | 814 (94.4) | 862 (100.0) |
| (7) 신체접촉(시도) | 84 (9.7) | 778 (90.3) | 862 (100.0) |
| (8) 은밀한 장소(예: 집, 모텔, 음란한 장소 회식 등) 권유 | 15 (1.7) | 847 (98.3) | 862 (100.0) |
| (9) 성관계(시도) | 15 (1.7) | 847 (98.3) | 862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외모품평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빈도를 확인한 결과 6개월에 1~2회가 38.1%(90명)로 가장 높고, 년 1회 이하와 월 1~2회가 각각 25.8%(61명)였다. 외모품평 다음으로 피해경험 비율이 높았던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신체접촉(시도)의 발생빈도는 모두 년 1회 이하가 가장 많았고 6개월에 1~2회, 월 1~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은밀한 장소 권유는 년 1회 이하와 6개월에 1~2회가 각각 6명이었고, 성관계(시도)는 년 1회 이하가 9명, 6개월에 1~2회가 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빈도

(단위: 명, %)

| 항목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합계 |
|---|--------------|--------------|--------------|-------------|------------|----------------|
| (1) 외모품평 | 61 (25.8) | 90 (38.1) | 61 (25.8) | 18 (7.6) | 6 (2.5) | 236 (100.0) |
| (2)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예: 음담패설, 성적인 동영상 및 음성 등을 제안 등) | 37 (37.0) | 35 (35.0) | 19 (19.0) | 6 (6.0) | 3 (3.0) | 100 (100.0) |
| (3) 성적 서비스 요구 (예: 안마, 스킨십,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옆에 앉기 요구 등) | 41 (56.2) | 22 (30.1) | 9 (12.3) | 1 (1.4) | — | 73 (100.0) |
| (4) 의도적인 신체노출 | 13 (41.9) | 10 (32.3) | 3 (9.7) | 4 (12.9) | 1 (3.2) | 31 (100.0) |
| (5) 일방적 만남 요구 | 25 (43.9) | 16 (28.1) | 13 (22.8) | 3 (5.3) | — | 57 (100.0) |
| (6) 성적 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추문 | 24 (50.0) | 14 (29.2) | 8 (16.7) | 2 (4.2) | — | 48 (100.0) |
| (7) 신체접촉(시도) | 35 (41.7) | 27 (32.1) | 17 (20.2) | 5 (6.0) | — | 84 (100.0) |
| (8) 은밀한 장소 (예: 집, 모텔, 음란한 장소 회식 등) 권유 | 6 (40.0) | 6 (40.0) | 2 (13.3) | 1 (6.7) | — | 15 (100.0) |
| (9) 성관계(시도) | 9 (60.0) | 6 (40.0) | — | — | — | 15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다른 연령대보다 20대(10.9%), 30대(10.2%)에서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장 낮은 피해 비율을 보인 60대(5.1%)와 약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품평,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적 서비스 요구, 의도적 신체 노출,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추문, 신체접촉(시도)는 모두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장소 권유는 50대가 3.1%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20대(2.1%), 30대(1.6%) 순으로 높았다. 일방적 만남요구와 강제적인 성관계(시도)는 6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피해 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표 Ⅲ-6> 연령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 (시도) | 합계 (평균) |
|------------------|--------------|---------------|--------------|-------------|-------------|-----------------|--------------|------------|------------|---------------|
| 20대 (만19세 포함) | 81 (34.8) | 33 (14.2) | 26 (11.2) | 13 (5.6) | 16 (6.9) | 19 (8.2) | 30 (12.9) | 5 (2.1) | 5 (2.1) | 228 (10.9) |
| 30대 | 68 (35.2) | 27 (14.0) | 19 (9.8) | 11 (5.7) | 12 (6.2) | 11 (5.7) | 25 (13.0) | 3 (1.6) | 2 (1.0) | 178 (10.2) |
| 40대 | 44 (21.7) | 20 (9.9) | 14 (6.9) | 5 (2.5) | 10 (4.9) | 9 (4.4) | 13 (6.4) | 3 (1.5) | 3 (1.5) | 121 (6.6) |
| 50대 | 25 (19.2) | 13 (10.0) | 8 (6.2) | 2 (1.5) | 9 (6.9) | 5 (3.8) | 11 (8.5) | 4 (3.1) | 2 (1.5) | 79 (6.8) |
| 60대 | 11 (14.1) | 5 (6.4) | 4 (5.1) | — | 7 (9.0) | 3 (3.8) | 4 (5.1) | — | 2 (2.6) | 36 (5.1) |
| 70대 이상 | 7 (28.0) | 2 (8.0) | 2 (8.0) | — | 3 (12.0) | 1 (4.0) | 1 (4.0) | — | 1 (4.0) | 17 (7.6)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20~30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여기에는 외모품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적 서비스 요구 등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문제와 관련한 성희롱 피해 경험을 많이 보고하고 있다. 20~30대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점도 피해 경험에 예민하게 보고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학력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9.2%), 고등학교 졸업(8.9%), 4년제 졸업(8.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졸업이하(6.4%)에서 조금 낮게 응답하였다.

<표 III-7> 학력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시도) | 평균 |
|----------------|------|---------------|-----------|----------|----------|-----------------|----------|-----------|---------|-----|
| 중졸 이하 | 14.3 | 14.3 | 14.3 | — | — | — | 14.3 | — | — | 6.4 |
| 고졸 | 21.6 | 13.7 | 8.8 | 3.5 | 9.7 | 7.0 | 9.3 | 3.1 | 3.1 | 8.9 |
| 초대졸 (2·3년제) | 25.0 | 8.3 | 7.3 | 3.6 | 5.2 | 4.7 | 9.9 | 1.0 | 1.0 | 7.3 |
| 대졸 (4년제) | 31.6 | 11.1 | 8.2 | 3.4 | 6.4 | 5.0 | 10.6 | 1.3 | 1.3 | 8.8 |
| 대학원졸 | 32.2 | 16.9 | 11.9 | 5.1 | 1.7 | 6.8 | 5.1 | 1.7 | 1.7 | 9.2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정규직 유무는 응답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규직 응답자는 9.2%, 비정규직 응답자는 8.6%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품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적 서비스 요구, 신체접촉(시도)는 정규직 응답자의 피해가 조금 더 많은 반면, 의도적 신체노출, 일방적 만남요구, 성적생활에 관한 질문 및 성적 추문, 은밀한 장소 권유, 성관계(시도)는 비정규직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8> 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 (시도) | 평균 |
|------|------|---------------|-----------|----------|----------|-----------------|-----------|-----------|----------|-----|
| 정규직 | 29.6 | 14.0 | 9.4 | 3.7 | 7.0 | 6.2 | 10.5 | 1.0 | 1.6 | 9.2 |
| 비정규직 | 25.9 | 9.6 | 6.7 | 4.4 | 9.6 | 6.7 | 6.7 | 3.7 | 3.7 | 8.6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직장 주소지가 서울(10.1%)일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9.0%), 인천(8.9%), 경기도(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직장에 다니는 응답자들은 외모품평(35.3%)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15.0)에 대한 피해경험 비율을 다른 피해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인천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적 서비스 요구(9.8%), 일방적 만남 요구(7.4%), 신체접촉(시도)와 관련된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직장 주소지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 (시도) | 평균 |
|-----|------|---------------|-----------|----------|----------|-----------------|-----------|-----------|----------|------|
| 인천 | 27.0 | 11.6 | 9.8 | 3.6 | 7.4 | 6.1 | 10.5 | 2.1 | 1.6 | 8.9 |
| 서울 | 35.3 | 15.0 | 8.5 | 3.8 | 6.8 | 6.8 | 10.5 | 1.7 | 2.3 | 10.1 |
| 경기도 | 28.2 | 10.7 | 2.9 | 2.9 | 7.1 | 2.9 | 10.3 | 2.0 | 1.0 | 7.6 |
| 기타 | 27.0 | 11.4 | 5.9 | 3.6 | 5.9 | 11.8 | 9.7 | — | 5.9 | 9.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장애가 있는 응답자가 장애가 없는 응답자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율이 3.3%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적 서비스 요구를 제외한 모든 직장 내 성희롱 유형에서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외모품평(31.3%)과 일방적 만남요구(25.0%)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장애유무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추문 | 신체접촉(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시도) | 평균 |
|-------|------|---------------|-----------|----------|----------|----------------|----------|-----------|---------|------|
| 장애 있음 | 31.3 | 6.3 | 6.3 | 6.3 | 25.0 | 6.3 | 12.5 | 6.3 | 6.3 | 11.8 |
| 장애 없음 | 27.3 | 11.7 | 8.5 | 3.6 | 6.3 | 5.7 | 9.7 | 1.7 | 1.7 |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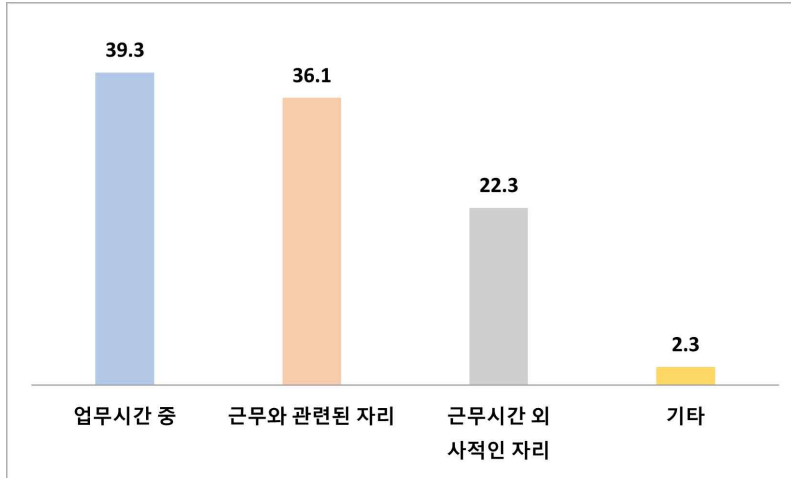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직장 내 성희롱은 사적인 자리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간은 업무시간 39.3%, 업무시간은 아니지만 근무와 관련된 자리(회식, 접대, 야유회 등) 36.1%, 근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 22.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간

(n=305,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외모품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의도적 신체노출, 신체접촉(시도)는 업무시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서비스 요구, 일방적 만남요구, 성적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 주문, 은밀한 장소 권유는 회식, 접대, 야유회 등과 같은 근무와 관련된 시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성관계(시도)는 업무 및 근무와 관련된 자리보다는 근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III-11>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과 발생시간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 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 (시도) |
|---------------|----------------|----------------|---------------|---------------|---------------|------------------|---------------|---------------|---------------|
| 업무시간 중 | 102 (43.2) | 36 (36.0) | 20 (27.4) | 14 (45.2) | 13 (22.8) | 15 (31.3) | 32 (38.1) | 3 (20.0) | 3 (20.0) |
| 근무 관련 자리 | 85 (36.0) | 35 (35.0) | 36 (49.3) | 11 (35.5) | 23 (40.4) | 17 (35.4) | 29 (34.5) | 7 (46.7) | 5 (33.3) |
| 근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 | 44 (18.6) | 28 (28.0) | 14 (19.2) | 6 (19.4) | 20 (35.1) | 15 (31.3) | 20 (23.8) | 4 (26.7) | 7 (46.7) |
| 기타 | 5 (2.1) | 1 (1.0) | 3 (4.1) | — | 1 (1.8) | 1 (2.1) | 3 (3.6) | 1 (6.7) | — |
| 합계 | 236 (100.0) | 100 (100.0) | 73 (100.0) | 31 (100.0) | 57 (100.0) | 48 (100.0) | 84 (100.0) | 15 (100.0) | 15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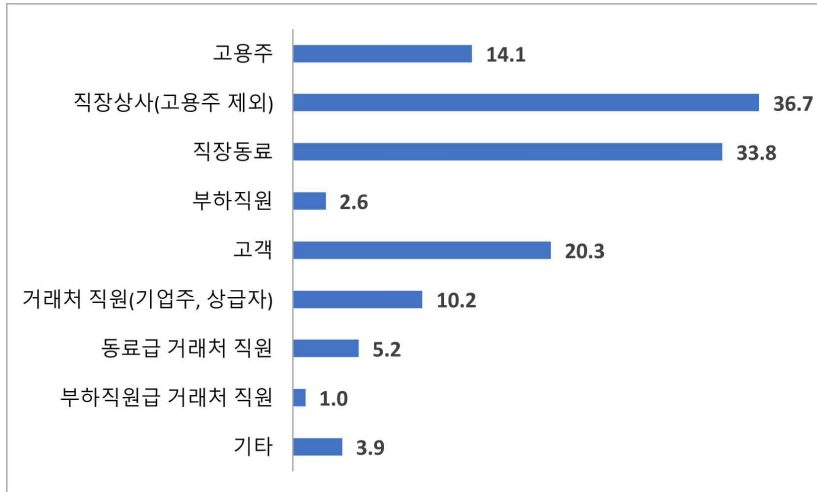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상사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100명 중 약 37명은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직장상사 다음으로는 직장동료 33.8%, 고객 20.3%, 고용주 14.1%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부하직원보다는 상사 또는 직장동료인 비율이 높았다. 가해자가 부하직원(2.6%)과 부하직원급 거래처 직원(1.0%)일 경우의 비율이 상사 또는 동료인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성별이 결합하여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림 Ⅲ-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복수응답)

(n=39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1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복수응답)

(n=39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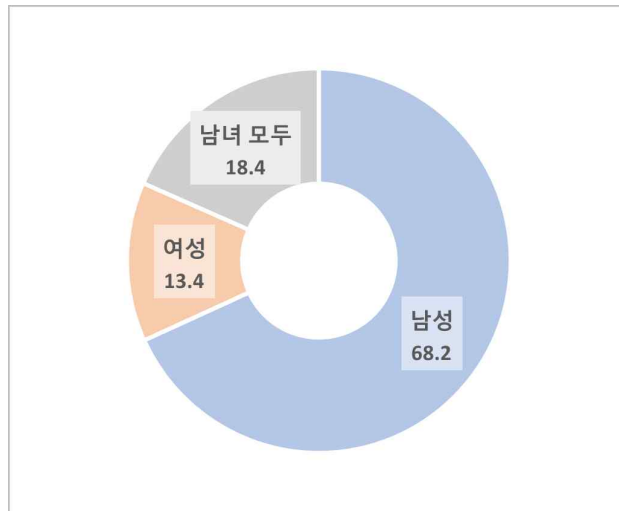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고용주 | 43 | 11.0 | 14.1 |
| 직장 상사(고용주 제외) | 112 | 28.7 | 36.7 |
| 직장 동료 | 103 | 26.4 | 33.8 |
| 부하 직원 | 8 | 2.1 | 2.6 |
| 고객 | 62 | 15.9 | 20.3 |
| 거래처 직원(기업주 또는 상급자) | 31 | 7.9 | 10.2 |
| 거래처 직원(동료급) | 16 | 4.1 | 5.2 |
| 거래처 직원(부하직원급) | 3 | 0.8 | 1.0 |
| 기타 | 12 | 3.1 | 3.9 |
| 합계 | 390 | 100.0 | 127.9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68.2%(208명), 남녀 모두가 18.4%(56명), 여성이 13.4%(41명)였다.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31.8%(여성 13.4%, 남녀 모두 18.4%)가 다른 여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성들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성별

(n=30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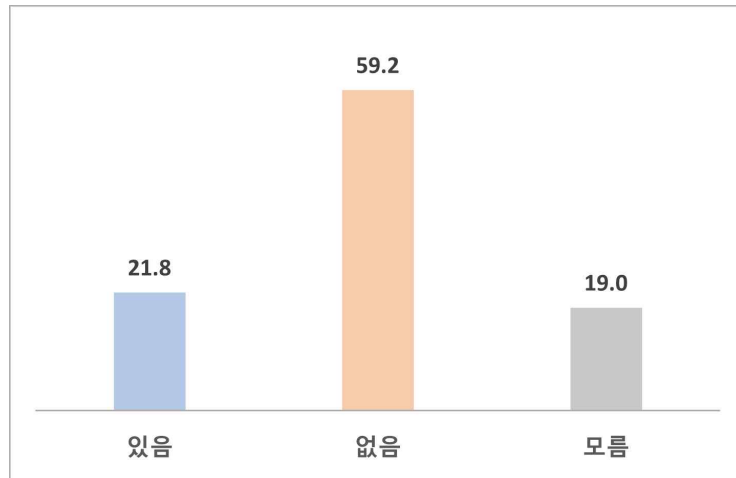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직장 경험이 있는 86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 및 담당직원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처리기구 및 담당직원이 없다(59.2%)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21.8%, 모른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고충처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기구가 없을 수 있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충처리기구의 실제적인 역할 강화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 Ⅲ-6]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 및 담당직원

(n=86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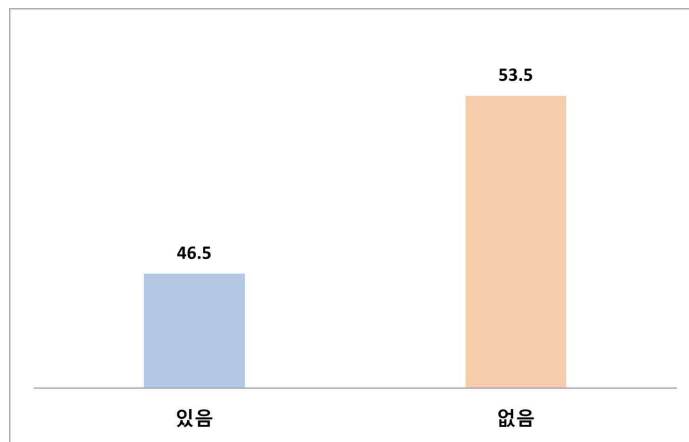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2명 중 최근 3년 내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46.5%(401명), 없는 비율은 53.5%(461명)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7]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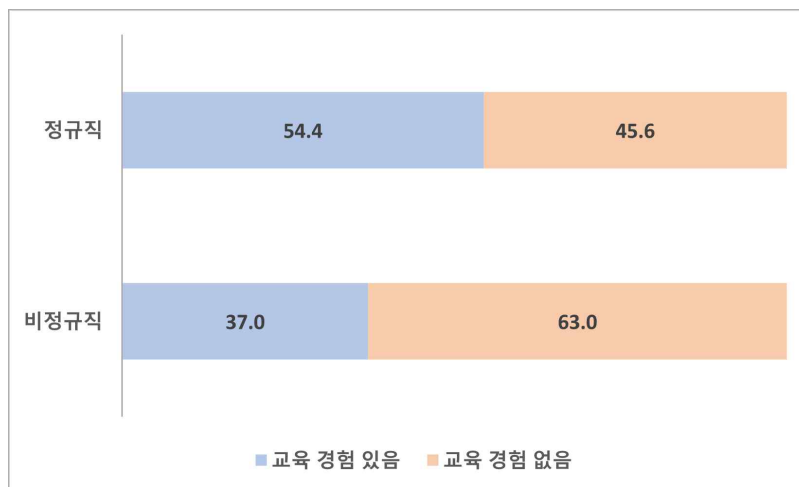
(n=862,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경험은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 응답자(54.4%)가 비정규직 응답자(37.0%)보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은 교육경험을 하지 않은 비율(63.0%)라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경험이 모든 고용형태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I-8] 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경험 여부
(n=64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66.2%는 피해경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 중 약 66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한 응답자들은 동료 및 상사에게 논의(14.8%),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 및 사과요구(13.4%)를 대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0.3%), 고용노동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신고(1.3%)와 같은 국가적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 대처를 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III-1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337,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 1 | 0.3 | 0.3 |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행정기관 신고 | 4 | 1.2 | 1.3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상담 | 5 | 1.5 | 1.6 |
| 노동조합, 직원협의회 등 상담 | 5 | 1.5 | 1.6 |
| 수사기관(경찰) 신고 | 6 | 1.8 | 2.0 |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 9 | 2.7 | 3.0 |
|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조치 요청 | 9 | 2.7 | 3.0 |
| 상대방에게 문제제기 및 사과요구 | 41 | 12.2 | 13.4 |
| 동료 및 상사에게 논의 | 45 | 13.4 | 14.8 |
|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 | 202 | 59.9 | 66.2 |
| 기타 | 10 | 3.0 | 3.3 |
| 합계 | 337 | 100.0 | 110.5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피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모품평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비율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체접촉(시도)이 59.5%,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이 58.0%, 성적 서비스 요구가 52.1%로 확인되었다. 성적 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과반수가 피해에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밀한 장소 권유와 성관계(시도) 피해와 의도적 신체노출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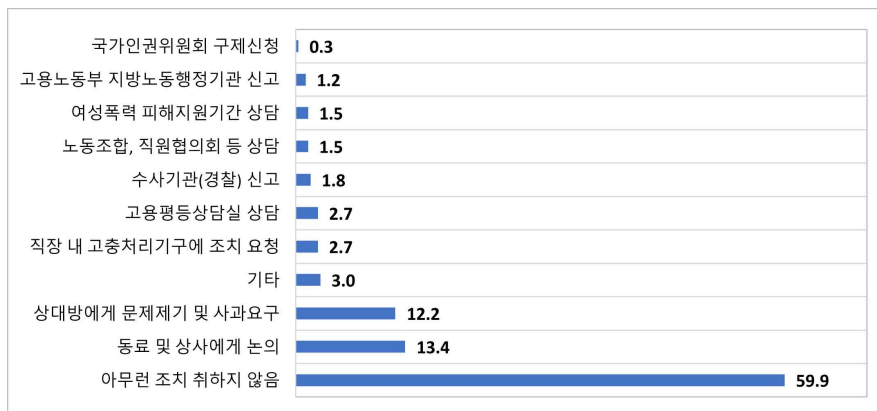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일방적 만남요구 | 성적 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은밀한 장소 권유 | 성관계 (시도) |
|-------------|---------------|---------------|--------------|--------------|--------------|------------------|--------------|-------------|-------------|
| 피해경험 있음 | 236 | 100 | 73 | 31 | 57 | 48 | 84 | 15 | 15 |
| 피해에 대처하지 않음 | 166 (70.3) | 58 (58.0) | 38 (52.1) | 13 (41.9) | 28 (49.1) | 24 (50.0) | 50 (59.5) | 6 (40.0) | 6 (4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그림 III-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33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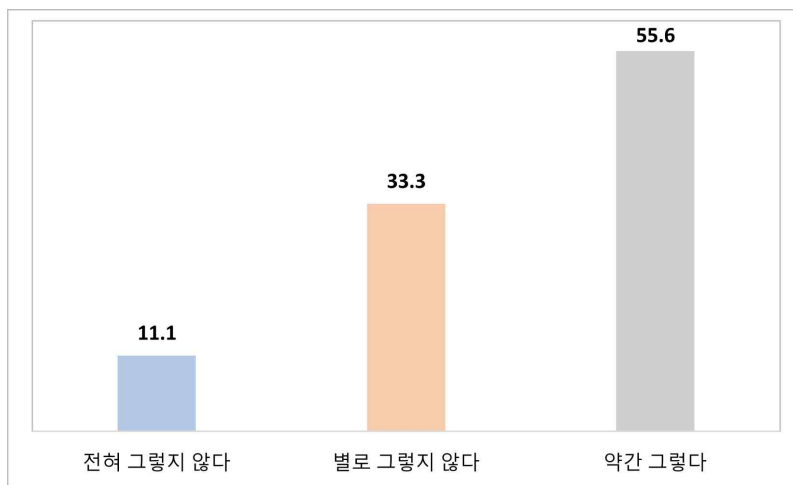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그림 Ⅲ-9]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조치를 요청한 비율은 2.7%(9명)였다.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조치를 요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서 사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55.6%)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44.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충처리기구의 사건조사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Ⅲ-10]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 사건조사 만족도

(n=9,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 소문과 불이익이 우려되어서(33.8%)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피해 경험에 대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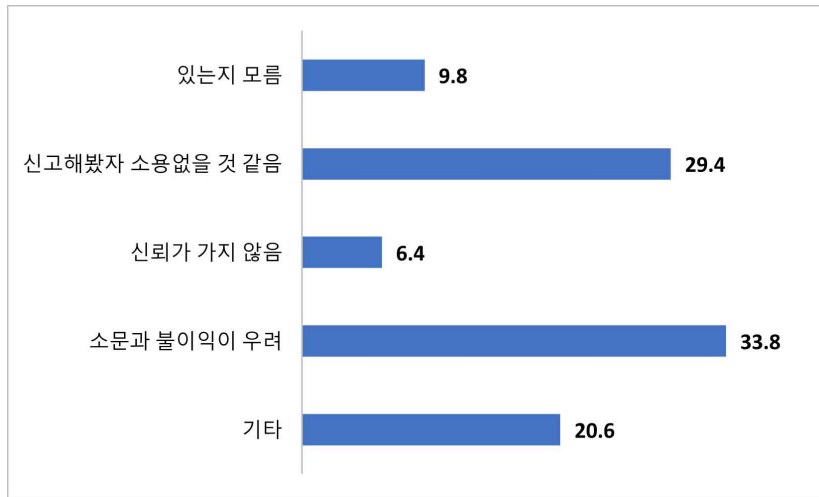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29.4%,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인 것으로 볼 때,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의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61명) 중에는 신고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21명)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에서 신고 대상까지는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행에 대해 피해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의견에서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가 없다(16명)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고충처리기구가 없는 직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9.8%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구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

[그림 III-11]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n=29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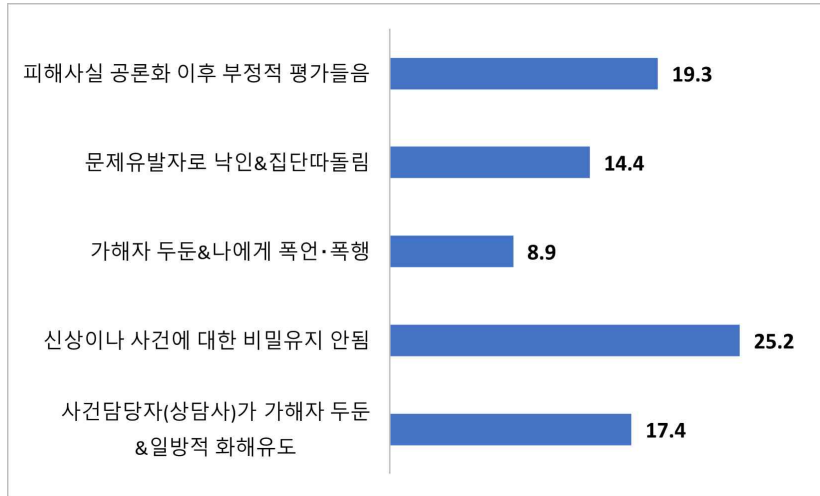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피해 대처 이후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은 사건이나 신상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25.2%)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19.3%, 사건 담당자나 상담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며 일방적인 화해를 유도하였다는 응답은 17.4%, 나를 문제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역량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훈련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Ⅲ-12]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이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n=305,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15> 직장 내 성희롱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n=305, 단위: 명, %)

| 항 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 및 이야기 들음 | 59 (19.3) | 246 (80.7) | 305 (100.0) |
| (2) 문제유발자로 낙인 & 집단 따돌림 | 44 (14.4) | 261 (85.6) | 305 (100.0) |
| (3) 가해자를 두둔 & 나에게 폭언 및 폭행 | 27 (8.9) | 278 (91.1) | 305 (100.0)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 | 77 (25.2) | 228 (74.8) | 305 (100.0)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 &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 | 53 (17.4) | 252 (82.6) | 305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이후 가해자에게 발생한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100명 중 약 53명은 가해자에게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무기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처벌을 통해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III-16> 직장 내 성희롱 대처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복수응답)

(n=325, 단위: 명, %)

| 항목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 162 | 49.8 | 53.1 |
|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사과 | 48 | 14.8 | 15.7 |
|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사과 | 4 | 1.2 | 1.3 |
| 상대방이 성희롱 관련 교육 수강 | 12 | 3.7 | 3.9 |
| 상대방이 부서 또는 근무지 이동 | 9 | 2.8 | 3.0 |
| 상대방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음 | 10 | 3.1 | 3.3 |
| 상대방이 해고 | 3 | 0.9 | 1.0 |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서나 근무지 이동 또는 퇴사 | 7 | 2.2 | 2.3 |
| 상대방이 과태료 납부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 | 1 | 0.3 | .3 |
| 조치 결과를 알지 못함 | 57 | 17.5 | 18.7 |
| 기타 | 12 | 3.7 | 3.9 |
| 합계 | 325 | 100.0 | 106.6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조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17.5%)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100명 중 약 18명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역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 과정 및 결과가 사건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공적인 조치(공적인 사과, 처벌징계)보다 사적인 조치(개인적인 사과)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증가시키고, 피해 대처에 대한 피해자

의 소극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 대처 방안 및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나. 대학(원)에서의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최근 3년(2019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학생으로서 대학(원)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8%(142명), 학생으로 대학(원)에 다닌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87.2%(968명)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 내에 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다닌 학교 소재지는 인천 46.5%, 서울 26.8%, 경기도 17.6%, 기타지역 13.4%였다.

<표 III-17> 최근 3년 학교 소재지(복수응답)

(단위 : 명, %)

| 지역 | 명수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인천 | 66 | 44.6 | 46.5 |
| 서울 | 38 | 25.7 | 26.8 |
| 경기도 | 25 | 16.9 | 17.6 |
| 기타 | 19 | 12.8 | 13.4 |
| 합계 | 148 | 100.0 | 104.2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1)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교내 성희롱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18.3%로 다른 성희롱 피해 경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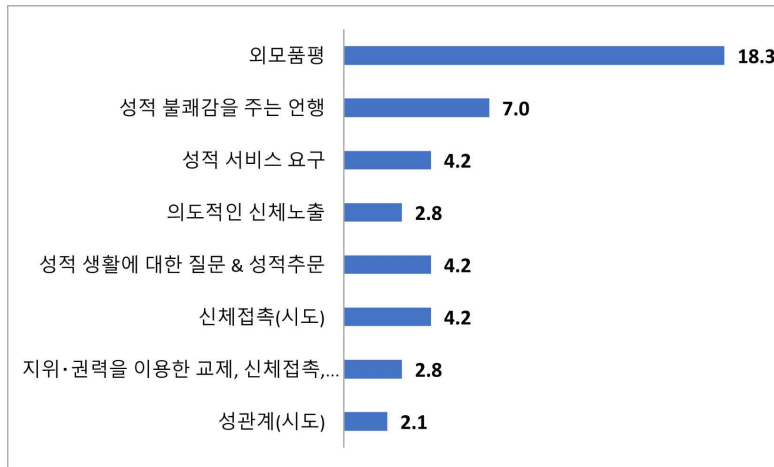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동영상, 글, 음성, SNS 등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이 7.0%에 해당하며, ‘성적 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추문’(나의 성적인 생활에

대해 질문받거나 나와 관련한 성적 추문이 퍼져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신체 접촉(시도)’(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고의 혹은 강제로 내 몸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끼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의 피해 경험 비율은 각각 4.2%였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장학금이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교제나 신체접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는 3.8%, ‘성관계(시도)’(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2.1% 였다.

[그림 III-13]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1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n=142, 단위 : 명, %)

| 항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외모품평 | 26 (18.3) | 116 (81.7) | 142 (100.0) |
| (2)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예: 음담패설, 성적인 동영상 및 음성 등을 제안 등) | 10 (7.0) | 132 (93.0) | 142 (100.0) |
| (3) 성적 서비스 요구 (예: 안마, 스킨십,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옆에 앉기 요구 등) | 6 (4.2) | 136 (95.8) | 142 (100.0) |
| (4) 의도적인 신체노출 | 4 (2.8) | 138 (97.2) | 142 (100.0) |
| (5) 성적 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추문 | 6 (4.2) | 136 (95.8) | 142 (100.0) |
| (6) 신체접촉(시도) | 6 (4.2) | 136 (95.8) | 142 (100.0) |
| (7)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 | 4 (2.8) | 138 (97.2) | 142 (100.0) |
| (8) 성관계(시도) | 3 (2.1) | 139 (97.9) | 142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외모품평, 성적서비스 요구,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 성관계(시도)는 6개월에 1~2회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신체접촉(시도)는 년 1회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빈도

(단위 : 명, %)

| 항목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합계 |
|--|-------------|--------------|-------------|-------------|-------------|---------------|
| (1) 외모품평 | 4 (15.4) | 8 (30.8) | 7 (26.9) | 4 (15.4) | 3 (11.5) | 26 (100.0) |
| (2)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예: 음담패설, 성적인 동영상 및 음성 등을 제안 등) | 3 (30.0) | 2 (20.0) | 1 (10.0) | 2 (20.0) | 2 (20.0) | 10 (100.0) |
| (3) 성적 서비스 요구 (예: 안마, 스킨십,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앞에 앉기 요구 등) | 2 (33.3) | 3 (50.0) | 1 (16.7) | — | — | 6 (100.0) |
| (4) 의도적인 신체노출 | 2 (50.0) | 2 (50.0) | — | — | — | 4 (100.0) |
| (5) 성적 생활에 대한 질문 및 성적추문 | 2 (33.3) | 2 (33.3) | 2 (33.3) | — | — | 6 (100.0) |
| (6) 신체접촉(시도) | 3 (50.0) | 1 (16.7) | 2 (33.3) | — | — | 6 (100.0) |
| (7) 자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 | 1 (25.0) | 2 (50.0) | 1 (25.0) | — | — | 4 (100.0) |
| (8) 성관계(시도) | — | 3 (100.0) | — | — | — | 3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10.2%)와 20대(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모품평, 성적생활에 관련한 질문 및 성적추문을 제외한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20대, 30대에게만 확인되었고 40대와 60대 응답자 중 대학(원)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20대의 경우 외모품평,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적 서비스 요구, 신체접촉(시도) 순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표 Ⅲ-20> 연령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지위/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 성관계 (시도) | 합계 (평균) |
|---------------|--------------------|--------------|------------|------------|----------------|------------|----------------|------------|-------------|
| 20대 (만19세 포함) | 있음 22 (21.6) | 9 (8.8) | 5 (4.9) | 3 (2.9) | 4 (3.9) | 5 (4.9) | 3 (2.9) | 2 (2.0) | 53 (6.5) |
| 30대 | 있음 2 (18.2) | 1 (9.1) | 1 (9.1) | 1 (9.1) | 1 (9.1) | 1 (9.1) | 1 (9.1) | 1 (9.1) | 9 (10.2) |
| 40대 | 있음 — | — | — | — | — | — | — | — | — |
| 50대 | 있음 2 (20.0) | — | — | — | 1 (10.0) | — | — | — | 3 (3.8) |
| 60대 | 있음 — | — | — | — | — | — | — | — | —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대학(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품평 피해의 경우 학력에 따른 피해경험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졸업이 33.3%로 가장 높고, 4년제 대학 졸업이 26.4%, 2·3년제 졸업이 20.0%, 고등학교 졸업이 3.9%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지위/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관계(시도)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 학력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지위/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 성관계 (시도) | 합계 (평균) |
|------------|-------------------|--------------|------------|------------|----------------|------------|----------------|------------|-------------|
| 고졸 | 있음 2 (3.9) | 4 (7.8) | 1 (2.0) | 1 (2.0) | 1 (2.0) | 2 (3.9) | 1 (2.0) | 1 (2.0) | 13 (3.2) |
| 초대졸 (23년제) | 있음 4 (20.0) | 1 (5.0) | 1 (5.0) | 1 (5.0) | 1 (5.0) | — | — | — | 8 (5.0) |

| | | | | | | | | | | |
|-------------|----|--------------|------------|------------|------------|------------|------------|------------|------------|-------------|
| 대졸 (4년제) | 있음 | 14 (26.4) | 4 (7.5) | 3 (5.7) | 1 (1.9) | 3 (5.7) | 3 (5.7) | 2 (3.8) | 1 (1.9) | 31 (7.3) |
| 대학원졸 | 있음 | 6 (33.3) | 1 (5.6) | 1 (5.6) | 1 (5.6) | 1 (5.6) | 6 (4.2) | 1 (5.6) | 1 (5.6) | 18 (8.9)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장애가 있는 응답자가 장애가 없는 응답자보다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에서 장애가 있는 응답자가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22> 장애유무에 따른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지위/권 력을 이용한 성희롱 | 성관계 (시도) | 합계 (평균) |
|-------|--------------|------------------------|-----------------|-------------|--------------------------|--------------|--------------------------|-------------|-------------|
| 장애 있음 | 1 (33.3) | 1 (33.3) | 1 (33.3) | 1 (33.3) | 1 (33.3) | 1 (33.3) | 1 (33.3) | 1 (33.3) | 8 (33.3) |
| 장애 없음 | 25 (17.8) | 9 (6.5) | 5 (3.6) | 3 (2.2) | 5 (3.6) | 5 (3.6) | 3 (2.2) | 2 (1.4) | 57 (5.1)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는 강의실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는 피해자의 약 42명이 강의실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강의실 다음으로 주변 술집 29.0%, 도서관 및 교수연구실 각각 1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장소로는 교내 복도 및 회의실이 있었다.

<표 Ⅲ-23>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장소(복수응답)

(n=44,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강의실 | 13 | 29.5 | 41.9 |
| 교수 연구실 | 4 | 9.1 | 12.9 |
| 실험실 | 3 | 6.8 | 9.7 |
| 동아리실 | 3 | 6.8 | 9.7 |
| 도서관 | 4 | 9.1 | 12.9 |
| 주변 술집 | 9 | 20.5 | 29.0 |
| 주변 숙박시설(모텔 등) | 1 | 2.3 | 3.2 |
| 자취방(집) | 2 | 4.5 | 6.5 |
| 기타 | 5 | 11.4 | 16.1 |
| 합계 | 44 | 100.0 | 14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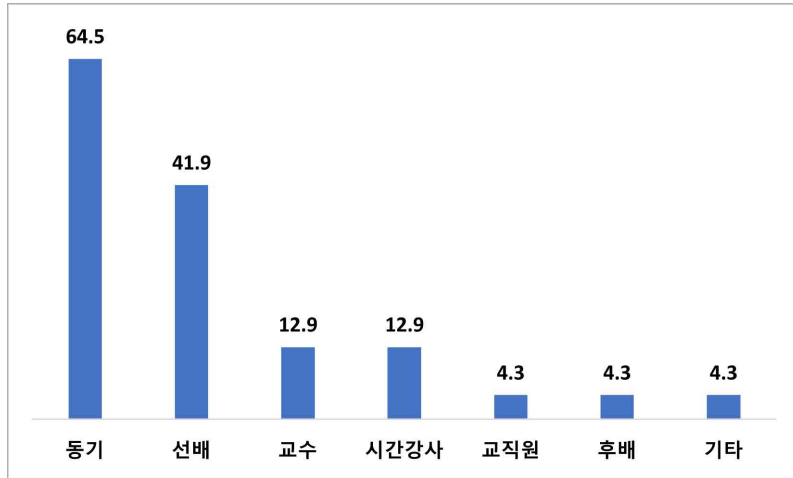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케이스 비율은 동기가 64.5%로 가장 높았다. 이는 피해자 100명 중 약 65명은 동기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한다. 선배 27.7%, 교수 및 시간강사 각각 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100명 중 약 42명은 선배로부터, 약 13명은 교수와 시간강사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14]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47,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24>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47,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동기 | 20 | 42.6 | 64.5 |
| 선배 | 13 | 27.7 | 41.9 |
| 교수 | 4 | 8.5 | 12.9 |
| 시간강사 | 4 | 8.5 | 12.9 |
| 교직원 | 2 | 4.3 | 6.5 |
| 후배 | 2 | 4.3 | 6.5 |
| 기타 | 2 | 4.3 | 6.5 |
| 합계 | 47 | 100.0 | 151.6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0대는 학교 관계자(교수, 시간강사, 교직원)보다 동기(41.5%)와 선배(29.3%)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는 9.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30대는 시간강사와 선배로부터 각각 50.0%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50

대는 동기(75.0%)와 교직원(25.0%)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다.

<표 Ⅲ-25> 연령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47, 단위: 명, %)

| 구분 | 교수 | 시간강사 | 교직원 | 선배 | 동기 | 후배 | 기타 | 합계 |
|------------------|------------|-------------|-------------|--------------|--------------|------------|------------|---------------|
| 20대 (만19세 포함) | 4 (9.8) | 3 (7.3) | 1 (2.4) | 12 (29.3) | 17 (41.5) | 2 (4.9) | 2 (4.9) | 41 (100.0) |
| 30대 | — | 1 (50.0) | — | 1 (50.0) | — | — | — | 2 (100.0) |
| 50대 | — | — | 1 (25.0) | — | 3 (75.0) | — | — | 4 (100.0) |
| 전체 | 4 (8.5) | 4 (8.5) | 2 (4.3) | 13 (27.7) | 20 (42.6) | 2 (4.3) | 2 (4.3) | 47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모든 학력에서 학교 동기와 선배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15.4%)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교수에 의한 피해 경험의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6> 학력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4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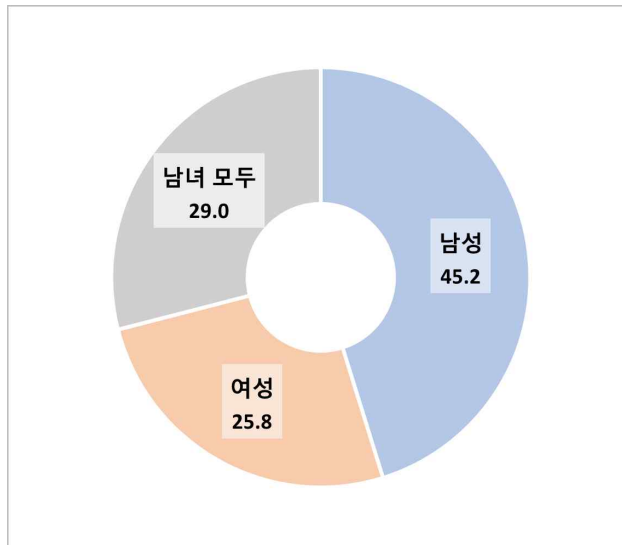
| 구분 | 교수 | 시간강사 | 교직원 | 선배 | 동기 | 후배 | 기타 | 합계 |
|---------------------|-------------|-------------|------------|--------------|--------------|-------------|-------------|---------------|
| 고등학교 졸업 | 1 (10.0) | 1 (10.0) | — | 3 (30.0) | 4 (40.0) | 1 (10.0) | — | 10 (100.0) |
| 초대졸 (23년제 대학 졸업) | — | — | — | 1 (20.0) | 3 (60.0) | — | 1 (20.0) | 5 (100.0) |
| 4년제 대학 졸업 | 1 (5.3) | 2 (10.5) | 1 (5.3) | 5 (26.3) | 9 (47.4) | — | 1 (5.3) | 19 (100.0) |
| 대학원 졸업 | 2 (15.4) | 1 (7.7) | 1 (7.7) | 4 (30.8) | 4 (30.8) | 1 (7.7) | — | 13 (100.0) |
| 전체 | 4 (8.5) | 4 (8.5) | 2 (4.3) | 13 (27.7) | 20 (42.6) | 2 (4.3) | 2 (4.3) | 47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45.2%(14명), 남녀 모두가 29.0%(9명), 여성이 25.8%(8명)로 조사되었다. 남성에게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4.2%(남성 45.2%, 남녀 모두 29.0%), 여성에게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54.8%(여성 25.8%, 남녀 모두 29.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은 남녀 모두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희롱 가해 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I-15]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성별

(n=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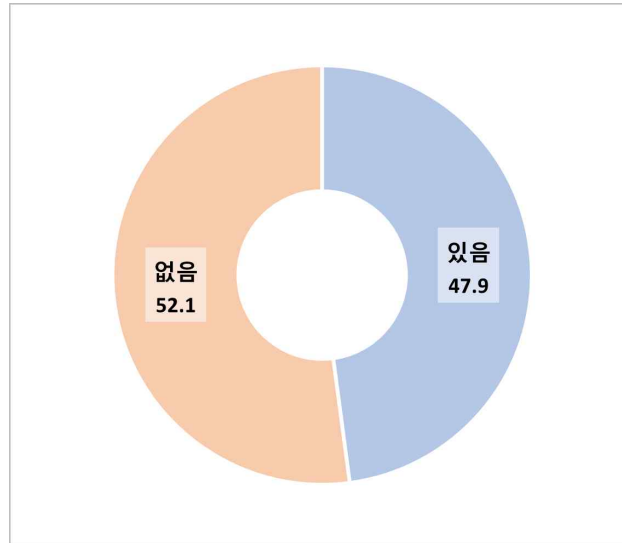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3)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체계

대학(원) 재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47.9%(68명), 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은 52.1%(74명)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6]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경험 여부

(n=6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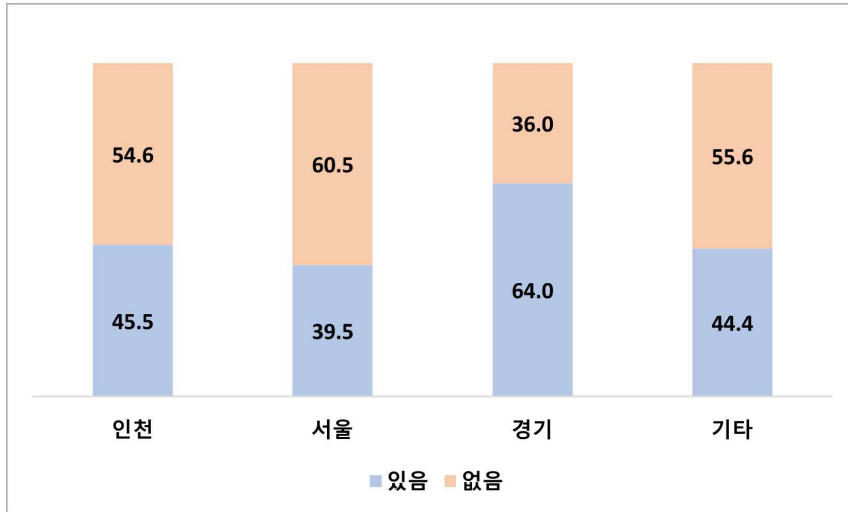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인천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45.5%였다. 인천에 소재한 대학(원)은 경기도(64.0%)에 비해서 교육경험이 낮지만 서울(39.5%), 기타지역(44.4%)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7] 학교 소재지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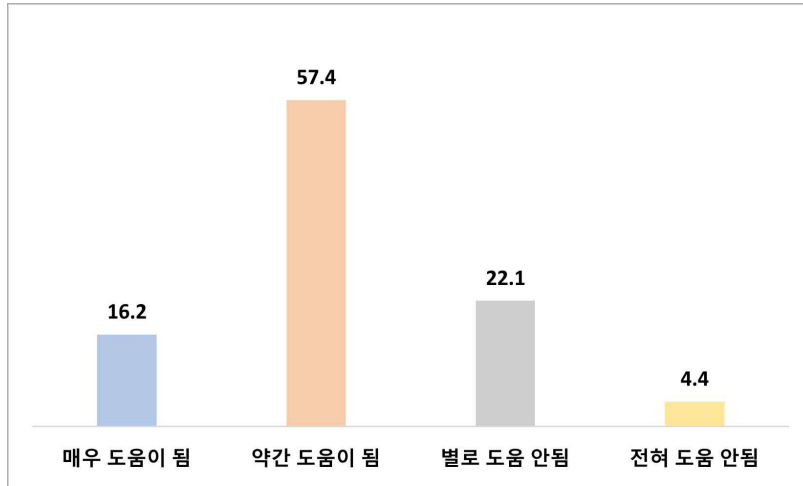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인천지역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 경기도 경험비율과 18.5%p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학교에서 받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희롱에 대해 알고,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3.6%(매우 도움 됨 16.2, 약간 도움 됨 57.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6.5%(도움 안됨 22.1%, 전혀 도움 안됨 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도움 정도

(n=6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학교 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또는 교육 자체가 형식적이어서(11명), 온라인 교육이라 집중력이 떨어져서(6명),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어서(5명)로 응답하였다. 학교 내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및 교육정보에 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4)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61.3%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 100명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61명은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와 이를 통한 피해자 지원이 요구된다. 성희롱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은 친한 친구 및 선배에게 상담(16.1%),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상담(12.9%) 순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36,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27>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36,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수사기관(경찰) 신고 | 1 | 2.8 | 3.2 |
| 교수에게 상담 | 2 | 5.6 | 6.5 |
| 상대방에게 문제제기 및 사과요구 | 2 | 5.6 | 6.5 |
|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조치 요청 | 2 | 5.6 | 6.5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상담 | 4 | 11.1 | 12.9 |
| 친한 친구 및 선배에게 상담 | 5 | 13.9 | 16.1 |
|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 | 19 | 52.9 | 61.3 |
| 기타 | 1 | 2.8 | 3.2 |
| 합계 | 36 | 100.0 | 116.1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28>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단위: 명, %)

| 항목 | 외모품평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성적 서비스 요구 | 의도적 신체노출 |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 추문 | 신체접촉 (시도) | 지위/권력 을 이용한 성희롱 | 성관계 (시도) |
|-------------------|--------------|------------------------|-----------------|-------------|--------------------------|--------------|--------------------------|-------------|
| 피해경험 있음 | 26 | 10 | 6 | 4 | 6 | 6 | 4 | 3 |
| 피해에 대처하지 않음 | 18 (69.2) | 4 (40.0) | 3 (50.0) | 1 (25.0) | 2 (33.3) | 2 (33.3) | 2 (50.0) | 1 (33.3)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비율을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모품평(69.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적 서비스 요구와 지위/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이 피해자 4명 중 2명(50%)이 피해에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의도적 신체노출, 성적생활 질문 및 성적추문, 신체접촉(시도), 성관계(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 소문과 불이익이 우려되어서(34.5%)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비밀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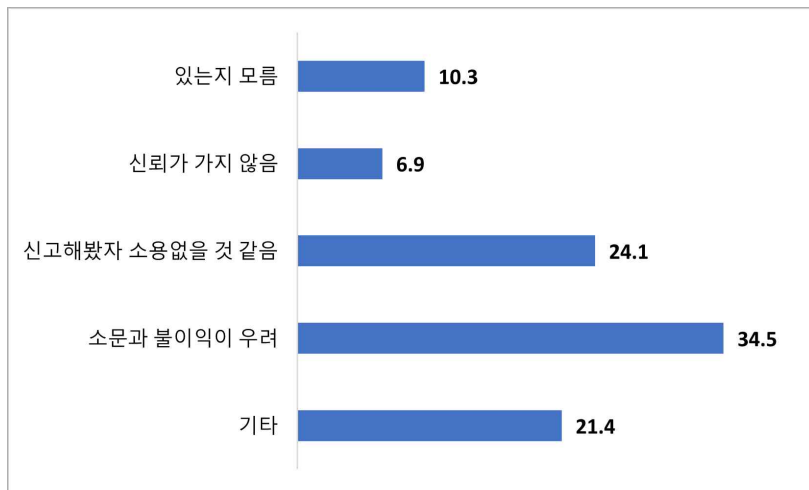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24.1%,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9%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전담기구의 전문성 향상, 신뢰 향상 등이 필요하다.

전담기구가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10.3%에 해당하므로 전담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기타 의견에서 피해가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성희롱인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III-20]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n=2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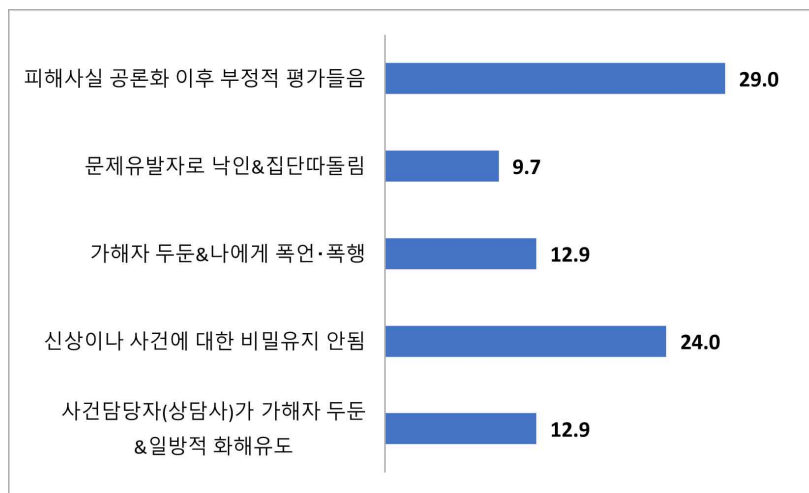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피해 대처 이후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 및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9.0%,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4.0%에 해당하였다. 가해자 두둔하며 폭언 및 폭행, 사건 담당자나 상담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며 일방적인 화해를 유도하였다는 응답도 각각 12.9%로 조사되었다. 이 점을 고려해봤을 때, 사건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과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Ⅲ-21]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대처 이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n=31,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29>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n=31명, 단위: 명, %)

| 항 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 및 이야기 들음 | 9 (29.0) | 22 (71.0) | 31 (100.0) |
| (2) 문제유발자로 낙인 & 집단 따돌림 | 3 (9.7) | 28 (90.3) | 31 (100.0) |
| (3) 가해자를 두둔 & 나에게 폭언 및 폭행 | 4 (12.9) | 27 (87.1) | 31 (100.0)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 | 7 (24.0) | 22.6 (77.4) | 31 (100.0)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 &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 | 4 (12.9) | 27 (87.1) | 3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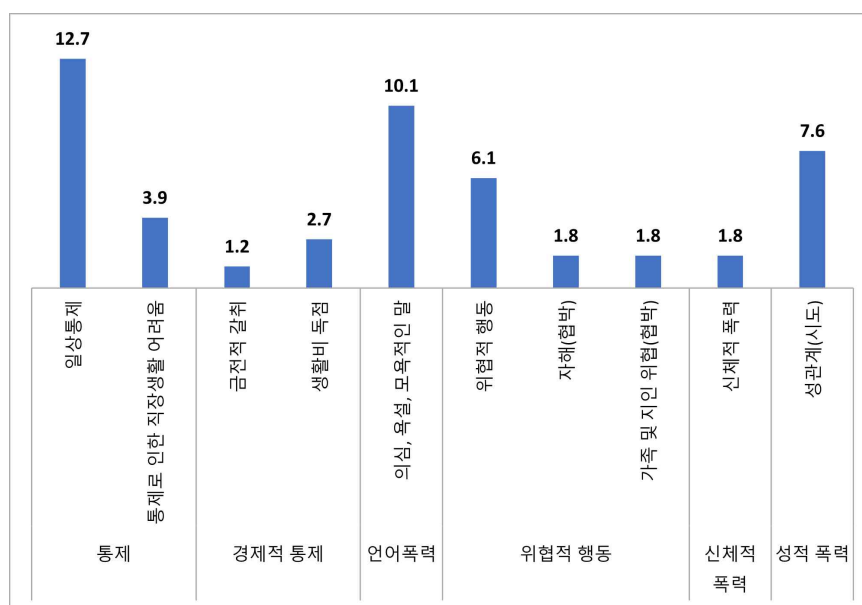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그림 III-22]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 있음 비율

(n=1,11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최근 3년(2019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일상통제’(파트너로부터 일상생활(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 및 연락 등)을 통제받은 경험이 있다)가 12.7%(1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대체로 통제로부터 시작되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통제와 관련된 피해경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통제 다음으로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파트너가 나를 의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설, 모욕적인 말 등을 한 적이 있다)과 관련된 언어폭력(10.1%, 112명)과 ‘성관계(시도)’(파트너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도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와 같은 성적 폭력(7.6%, 84명)이 높게 조사되었다. 위협적 행동과 관련된 폭력 중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본 비율(6.1%, 68명)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30>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n=1,110, 단위: 명, %)

| 항목 | | 있다 | 없다 | 합계 |
|--------|-------------------------------------|---------------|-----------------|------------------|
| 통제 | (1) 일상통제 (예: 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연락) | 141 (12.7) | 969 (87.3) | 1,110 (100.0) |
| | (2) 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43 (3.9) | 1,067 (96.1) | 1,110 (100.0) |
| 경제적 통제 | (3) 금전적 갈취 | 13 (1.2) | 1,097 (98.8) | 1,110 (100.0) |
| | (4) 생활비 독점 | 30 (2.7) | 1,080 (97.3) | 1,110 (100.0) |
| 언어폭력 | (5)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112 (10.1) | 998 (89.9) | 1,110 (100.0) |
| 위협적 행동 | (6) 위협적 행동 (예: 물건 던지기, 부수기) | 68 (6.1) | 1,042 (93.9) | 1,110 (100.0) |
| | (7) 자해(협박) | 25 (2.3) | 1,085 (97.8) | 1,110 (100.0) |
| | (8) 가족 및 지인 위협(협박) | 20 (1.8) | 1,090 (98.2) | 1,110 (100.0) |
| 신체적 폭력 | (9) 신체적 폭력 | 20 (1.8) | 1,090 (98.2) | 1,110 (100.0) |
| 성적 폭력 | (10) 성관계(시도) | 84 (7.6) | 1,026 (92.4)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일상통제는 다른 폭력 피해에 비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확인됨. 일상통제의 경우 월1~2회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제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금전적 갈취, 위협적 행동(위협적 행동, 자해(협박), 가족 및 지인 위협(협박)), 신체적 폭력은 년 1회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비 독점, 언어폭력, 성관계(시도)는 6개월에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빈도

(n=556, 단위: 명, %)

| 항목 |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합계 |
|-----------|-------------------------------------|--------------|--------------|--------------|--------------|-------------|----------------|
| 통제 | (1) 일상통제 (예: 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연락) | 39 (27.7) | 40 (28.4) | 46 (32.6) | 10 (7.1) | 6 (4.3) | 141 (100.0) |
| | (2) 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13 (30.2) | 12 (27.9) | 10 (23.3) | 6 (14.0) | 2 (4.7) | 43 (100.0) |
| 경제적 통제 | (3) 금전적 갈취 | 5 (38.5) | 4 (30.8) | 4 (30.8) | — | — | 13 (100.0) |
| | (4) 생활비 독점 | 8 (26.7) | 10 (33.3) | 2 (6.7) | 2 (6.7) | 8 (26.7) | 30 (100.0) |
| 언어폭력 | (5)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30 (26.8) | 39 (34.8) | 30 (26.8) | 12 (10.7) | 1 (0.9) | 112 (100.0) |
| 위협적 행동 | (6) 위협적 행동 (예: 물건 던지기, 부수기) | 40 (58.8) | 17 (25.0) | 6 (8.8) | 5 (7.4) | — | 68 (100.0) |
| | (7) 자해(협박) | 15 (60.0) | 6 (24.0) | 2 (8.0) | 2 (8.0) | — | 25 (100.0) |
| | (8) 가족 및 지인 위협(협박) | 8 (40.0) | 6 (30.0) | 6 (30.0) | — | — | 20 (100.0) |
| 신체적 폭력 | (9) 신체적 폭력 | 10 (50.0) | 7 (35.0) | 2 (10.0) | — | 1 10.0 | 20 (100.0) |
| 성적 폭력 | (10) 성관계(시도) | 21 (25.0) | 30 (35.7) | 22 (26.2) | 9 (10.7) | 2 (2.4) | 84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0대와 60대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일상통제, 언어폭력(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적폭력(성관계(시도)) 피해도 적지 않았다. 7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성적인 폭력이 일상통제 및 언어폭력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32> 연령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n=556, 단위: 명, %)

| 항목 | 통제 | | 경제적 통제 | | 언어 폭력 | 위협적 행동 | |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합계 (평균) |
|---------------|--------------------|-------------------|------------|-------------|----------------|-------------|------------|--------------|------------|--------------|--------------|
| | 일상통제 | 일상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금전적 갈취 | 생활비 독점 |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위협적 행동 | 자해 (협박) | 가족지인 위협 (협박) | 신체적 폭력 | 성관계 (시도) | |
| 20대 (만19세 포함) | 있음 46 (17.0) | 12 (4.4) | 3 (1.1) | 3 (1.1) | 34 (12.5) | 19 (7.0) | 9 (3.3) | 3 (1.1) | 6 (2.2) | 24 (8.9) | 159 (5.9) |
| 30대 | 있음 36 (16.0) | 8 (3.6) | 1 (0.4) | 3 (1.3) | 21 (9.3) | 14 (6.2) | 3 (1.3) | 3 (1.3) | 3 (1.3) | 15 (6.7) | 107 (4.7) |
| 40대 | 있음 25 (9.8) | 14 (5.5) | 4 (1.6) | 11 (4.3) | 23 (9.0) | 14 (5.5) | 6 (2.4) | 5 (2.0) | 5 (2.0) | 12 (4.7) | 119 (4.7) |
| 50대 | 있음 15 (7.9) | 6 (3.2) | 1 (0.5) | 6 (3.2) | 16 (8.5) | 10 (5.3) | 3 (1.6) | — | 4 (2.1) | 15 (7.9) | 76 (4.0) |
| 60대 | 있음 15 (12.6) | 2 (1.7) | 2 (1.7) | 5 (4.2) | 14 (11.8) | 8 (6.7) | 3 (2.5) | 6 (5.0) | 2 (1.7) | 13 (10.9) | 70 (5.9) |
| 70대 이상 | 있음 4 (7.8) | 1 (2.0) | 2 (3.9) | 2 (3.9) | 4 (7.8) | 3 (5.9) | 1 (2.0) | 3 (5.9) | — | 5 (9.8) | 25 (4.5)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는 동거(사실혼 포함, 14.4%), 이혼/사별/별거 (6.8%), 미혼/비혼(5.0%), 기혼(배우자 있음, 4.7%)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3> 혼인상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n=556, 단위: 명, %)

| 항목 | | 통제 | | 경제적 통제 | | 언어폭력 | 위협적 행동 | |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합계 (평균) |
|-------------|----|-----------|-------------------|----------|----------|-----------|----------------|----------|----------|----------|----------|-----------|
| | | 일상통제 | 일상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금전적 갈취 | 생활비 독점 | |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위협적 행동 | 자해 (협박) | | | |
| 미혼 | 있음 | 63 (13.5) | 19 (4.1) | 5 (1.1) | 7 (1.5) | 50 (10.8) | 28 (6.0) | 12 (2.6) | 6 (1.3) | 9 (1.9) | 33 (7.4) | 232 (5.0) |
| 기혼 (배우자 있음) | 있음 | 69 (12.3) | 18 (3.2) | 5 (0.9) | 14 (2.5) | 52 (9.2) | 32 (5.7) | 10 (1.8) | 11 (2.0) | 6 (1.1) | 44 (7.8) | 261 (4.7) |
| 동거 (사실혼 포함) | 있음 | 1 (11.1) | 1 (11.1) | 2 (22.2) | 2 (22.2) | 1 (11.1) | 1 (11.1) | 1 (11.1) | 1 (11.1) | 1 (11.1) | 2 (22.2) | 13 (14.4) |
| 이혼 사별 별거 | 있음 | 8 (11.0) | 5 (6.9) | 1 (1.4) | 7 (9.6) | 9 (12.3) | 7 (9.6) | 2 (2.7) | 2 (2.7) | 4 (4.6) | 5 (6.9) | 50 (6.8)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형태(2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11.1%), 1인 가구(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일상통제와 언어폭력(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구성된 가구는 일상통제, 성적폭력(성관계(시도))이 높게 조사되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일상통제와 언어폭력이 각각 1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의 위협적 행동(11.1%)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4> 가구형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경험

(n=556, 단위: 명, %)

| 항목 | | 통제 | | 경제적 통제 | | 언어 폭력 | 위협적 행동 | |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합계 (평균) |
|-------------|----|-----------|-------------------|---------|----------|----------------|-----------|----------|--------------|---------|----------|------------|
| | | 일상통제 | 일상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금전적 갈취 | 생활비 독점 |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위협적 행동 | 자해 (협박) | 가족지인 위협 (협박) | 신체적 폭력 | 성관계 (시도) | |
| 1인 가구 | 있음 | 20 (13.8) | 6 (4.1) | 2 (1.4) | 1 (0.7) | 20 (13.8) | 16 (11.0) | 2 (1.4) | 3 (2.1) | 3 (2.1) | 12 (8.3) | 85 (8.5) |
| 부부 (사실혼 포함) | 있음 | 27 (12.7) | 8 (3.7) | 5 (2.4) | 8 (3.8) | 15 (7.1) | 11 (5.2) | 2 (0.9) | 8 (3.8) | 6 (2.8) | 21 (9.9) | 111 (11.1) |
| 한부모 가족 | 있음 | 7 (12.1) | 4 (6.9) | — | 7 (12.1) | 8 (13.8) | 4 (6.9) | 1 (1.7) | — | 4 (6.9) | 4 (6.9) | 39 (3.9) |
| 부모한 자녀 | 있음 | 78 (12.9) | 21 (3.5) | 5 (0.8) | 11 (1.8) | 57 (9.4) | 29 (4.8) | 13 (2.2) | 7 (1.2) | 3 (0.5) | 42 (6.9) | 266 (26.6) |
| 부모한 자녀 | 있음 | 1 (5.0) | — | — | 1 (5.0) | 2 (10.0) | 2 (10.0) | 2 (10.0) | 1 (5.0) | 1 (5.0) | 1 (5.0) | 11 (1.1) |
| 3세대 이상 | 있음 | 5 (13.2) | 1 (2.6) | 1 (2.6) | 2 (5.3) | 4 (10.5) | 2 (5.3) | 3 (7.9) | 1 (2.6) | 1 (2.6) | 2 (5.3) | 22 (2.2) |
| 기타 | 있음 | 3 (9.7) | 3 (9.7) | — | — | 6 (19.4) | 4 (12.9) | 2 (6.5) | — | 2 (6.5) | 2 (6.5) | 22 (2.2)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주: 제시된 값은 피해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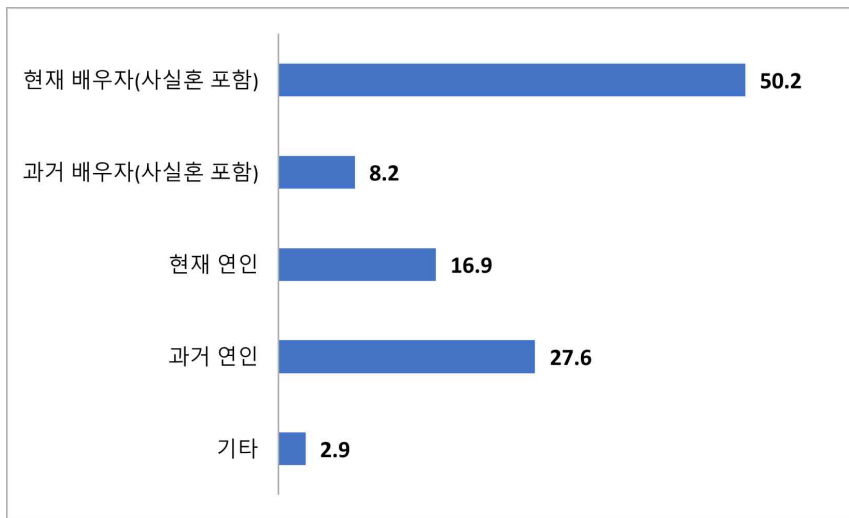
장애가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조사자는 22명으로 숫자가 적어 조사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8.8%)가 장애가 없다고 한 응답자(4.8%)보다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여성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착취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 폭력 피해의 지속기간이 길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생계나 생활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김홍미리 외, 2021: 129). 장애가 있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자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현재 배우자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100명 중 50명은 현재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배우자 다음으로 과거 연인 27.6%, 현재 연인 16.9%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III-23]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243,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35>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243,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현재 배우자(사실혼 포함) | 122 | 47.5 | 50.2 |
| 과거 배우자(사실혼 포함) | 20 | 7.8 | 8.2 |
| 현재 연인 | 41 | 16.0 | 16.9 |
| 이전 연인 | 67 | 26.1 | 27.6 |
| 기타 | 7 | 2.7 | 2.9 |
| 합계 | 243 | 100.0 | 105.8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는 연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20대의 경우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78.1%(과거 연인 50.7%, 현재 연인 34.3%) 매우 높은 편이었다. 30대의 경우 폭력 가해자는 과거 연인(38.0%), 사실혼을 포함한 현재 배우자(36.0%), 현재 연인(26.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40대 이상부터는 가해자 비율에서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40대, 50대에서 배우자가 아닌 현재와 과거 연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각각 28.9%, 16.7%로 조사되었다.

<표 Ⅲ-36> 연령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243, 단위: 명, %)

| 구분 | 현재 배우자 (사실혼 포함) | 과거 배우자 (사실혼 포함) | 현재 연인 | 과거 연인 | 기타 | 합계 |
|------------------|--------------------|--------------------|--------------|--------------|------------|-----|
| 20대 (만19세 포함) | 10 (14.9) | 5 (7.5) | 23 (34.3) | 34 (50.7) | 1 (1.5) | 67 |
| 30대 | 18 (36.0) | 2 (4.0) | 13 (26.0) | 19 (38.0) | 2 (4.0) | 50 |
| 40대 | 29 (64.4) | 6 (13.3) | 3 (6.7) | 10 (22.2) | — | 45 |
| 50대 | 23 (63.9) | 5 (13.9) | 2 (5.6) | 4 (11.1) | 3 (8.3) | 36 |
| 60대 | 31 (91.2) | 2 (5.9) | — | — | 1 (2.9) | 34 |
| 70대 이상 | 11 (100.0) | — | — | — | — | 11 |
| 전체 | 122 | 20 | 41 | 67 | 7 | 243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혼인상태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자가 분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미혼/비혼의 경우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89.2%(현재 연인

38.7%, 과거 연인 5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과거 연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 중 기혼자는 90.2%가 현재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과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과거 연인(18.8%), 현재 연인(12.5%)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I-37> 혼인상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243, 단위: 명, %)

| 구분 | 현재 배우자 (사실혼 포함) | 과거 배우자 (사실혼 포함) | 현재 연인 | 과거 연인 | 기타 | 합계 |
|-------------|--------------------|--------------------|--------------|--------------|------------|-----|
| 미혼/비혼 | 1 (1.1) | 6 (6.5) | 36 (38.7) | 55 (59.1) | 4 (4.3) | 93 |
| 기혼 (배우자 있음) | 119 (90.2) | 3 (2.3) | 2 (1.5) | 8 (6.1) | 3 (2.3) | 132 |
| 동거 (사실혼 포함) | 1 (50.0) | 1 (50.0) | 1 (50.0) | 1 (50.0) | — | 2 |
| 이혼/사별/별거 | 1 (6.3) | 10 (62.5) | 2 (12.5) | 3 (18.8) | — | 16 |
| 전체 | 122 | 20 | 41 | 67 | 7 | 243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1인 가구의 경우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91.2%(현재 연인 38.2%, 과거 연인 52.9%)였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과거 연인(50.0%)과 사실혼을 포함한 과거 배우자(43.8%)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구형태에서 사실혼을 포함한 현재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표 Ⅲ-38> 가구형태별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복수응답)

(n=243, 단위: 명, %)

| 구분 | 현재 배우자 (사실혼 포함) | 과거 배우자 (사실혼 포함) | 현재 연인 | 과거 연인 | 기타 | 합계 |
|-------------|--------------------|--------------------|--------------|--------------|-------------|-----|
| 1인 가구 | 0 | 5 (14.7) | 13 (38.2) | 18 (52.9) | 0 | 34 |
| 부부 (사실혼 포함) | 45 (88.2) | 2 (3.9) | 2 (3.9) | 2 (3.9) | 2 (3.9) | 51 |
| 한부모 가족 | — | 7 (43.8) | 2 (12.5) | 8 (50.0) | — | 16 |
| 부모+미혼자녀 | 65 (53.7) | 6 (5.0) | 21 (17.4) | 35 (28.9) | 2 (1.7) | 121 |
| 부모+기혼자녀 | 2 (50.0) | — | 1 (25.0) | 0 | 1 (25.0) | 4 |
| 3세대 이상 | 6 (75.0) | — | 2 (25.0) | 1 (12.5) | 0 | 8 |
| 기타 | 4 (44.4) | — | — | 3 (33.3) | 2 (22.2) | 9 |
| 전체 | 122 | 20 | 41 | 67 | 7 | 2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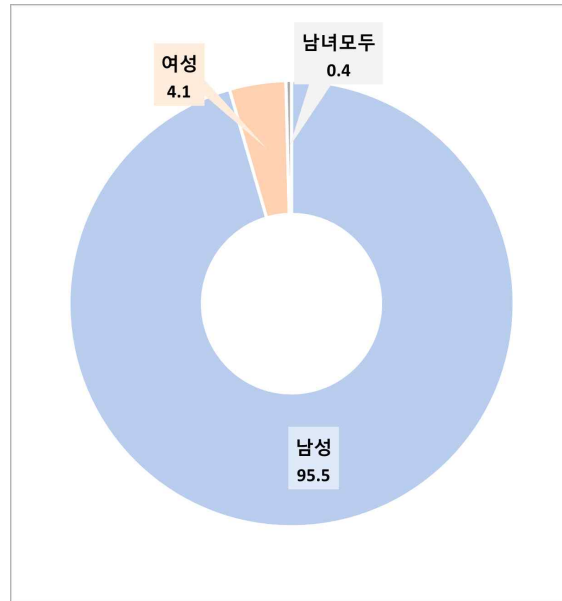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을 행한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95.5%, 여성이 4.1%, 남녀 모두가 0.4%로 나타났다.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폭력이 발생된다는 점은 다양한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대처 방법

[그림 III-24]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 성별

(n=24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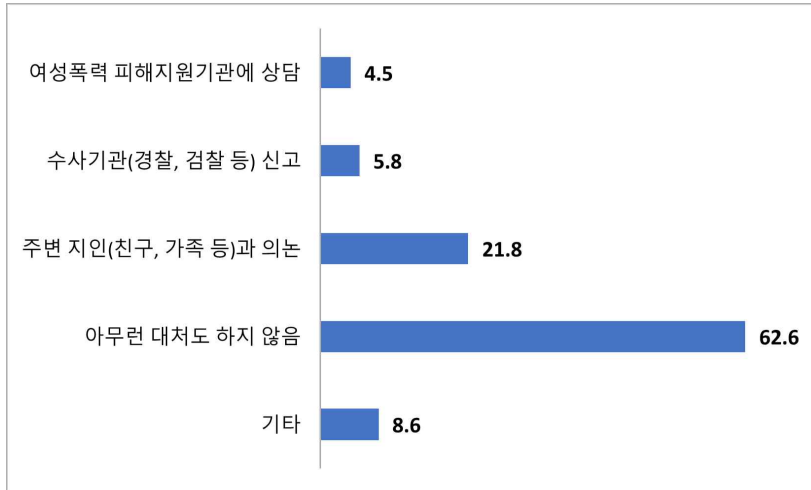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를 경험한 62.6%가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100명 중 약 63명이 어떤 대처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 중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논의한 비율은 21.8%,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신고한 비율이 5.8%,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한 비율이 4.5%였다. 폭력 피해에 대해 대처한 비율보다 대처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점,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도 공적·조직적 도움보다 사적인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피해 대처 방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Ⅲ-25]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251,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39>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251,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신고하였다 | 14 | 5.6 | 5.8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 11 | 4.4 | 4.5 |
|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의논하였다 | 53 | 21.1 | 21.8 |
|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 152 | 60.6 | 62.6 |
| 기타 | 21 | 8.4 | 8.6 |
| 합계 | 251 | 100.0 | 103.3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피해 중 폭력 유형별 피해자 대비 대처하지 않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일상통제를 경험한 피해자 141명 중 65.2%가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관계(시도)는 61.9%, 위협적 행동에 대해 58.8%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과 교내 성희롱에서 성관계(시도) 피해에 대처한 비율이 과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폭력 피해 대처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은 문제를 드러내기 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가족 지인 위협/협박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75.0%, 금전적 갈취에 대해서는 피해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0>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단위: 명, %)

| 항목 | 통제 | | 경제적 통제 | | 언어 폭력 | 위협적 행동 | |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
| | 일상통제 | 일상통제로 인한 직장생활 어려움 | 금전적 갈취 | 생활비 독점 | 의심, 욕설, 모욕적인 말 | 위협적 행동 | 자해 (협박) | 가족지인 위협 (협박) | 신체적 폭력 | 성관계 (시도) |
| 피해경험 있음 | 141 | 43 | 13 | 30 | 112 | 68 | 25 | 20 | 20 | 84 |
| 피해에 대처하지 않음 | 92 (65.2) | 19 (44.2) | 4 (30.8) | 15 (50.0) | 65 (58.0) | 40 (58.8) | 12 (48.0) | 5 (25.0) | 10 (50.0) | 52 (61.9)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5.8%(14명)에 해당하는 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94.2%(229명)였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사 기관의 사건 처리가 폭력 관계 및 피해를 벗어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64.2%(약간 도움 됨 57.1%, 매우 도움 됨 7.1%)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율(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14.0%)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2순위 이유는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20.5%,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19.7%로 조사되었다.

<표 Ⅲ-41> 친밀한 관계 폭력 -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n=229,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신고할 수 있는지 몰라서 | 4 | 1.7 | 14 | 6.1 |
|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8 | 3.5 | 15 | 6.6 |
|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10 | 4.4 | 3 | 1.3 |
|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 32 | 14.0 | 24 | 10.5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30 | 13.1 | 45 | 19.7 |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 3 | 1.3 | 5 | 2.2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107 | 46.7 | 37 | 16.2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 20 | 8.7 | 47 | 20.5 |
| 기타 | 15 | 6.6 | 39 | 17.0 |
| 합계 | 229 | 100.0 | 229 |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39>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4.5%(11명)이었다. 이 중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2> 친밀한 관계 폭력-도움을 요청한 여성 폭력피해지원기관(복수응답)

(n=16,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여성긴급전화1366 | 5 | 31.3 | 45.5 |
|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5 | 31.3 | 45.5 |
| 해바라기센터 | 5 | 31.3 | 45.5 |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의 전화 | — | — | — |
| 기타 | 1 | 6.3 | 9.1 |
| 합계 | 16 | 100.0 | 145.5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11명의 응답자들은 기관의 사건처리가 폭력 관계와 폭력피해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약간 도움 됨 63.6%)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전혀 도움 안됨 9.1%, 별로 도움 안됨 27.3%)였다.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순위 이유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4.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14.7%),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이유로는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25.0%),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24.1%),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9.4%) 순이었다.

<표 III-43>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n=232,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 25 | 10.8 | 4 | 1.7 |
|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20 | 8.6 | 24 | 10.3 |
|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19 | 8.2 | 13 | 5.6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34 | 14.7 | 56 | 24.1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103 | 44.4 | 45 | 19.4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 15 | 6.5 | 58 | 25.0 |
| 기타 | 16 | 6.9 | 32 | 13.8 |
| 합계 | 232 | 100.0 | 232 |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관계와 폭력피해를 벗어나는 데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비밀보장을 통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44>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n=15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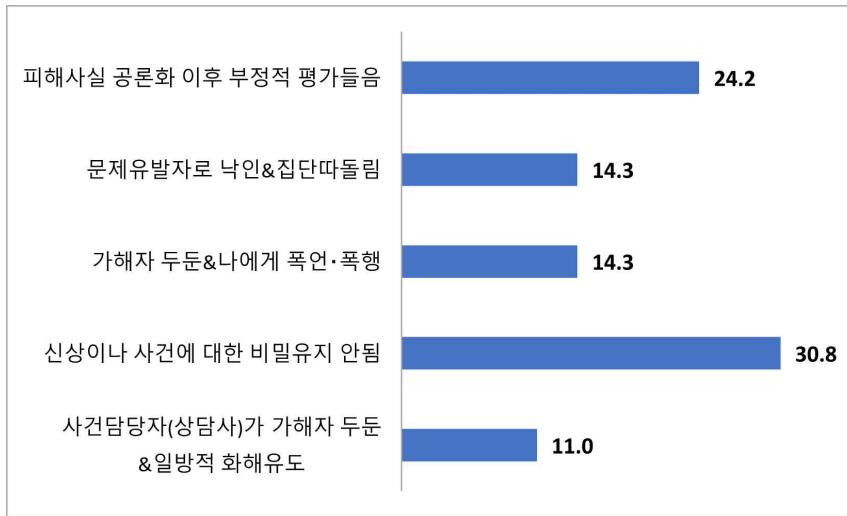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누구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4 | 2.6 | 9 | 5.9 |
| 가해자가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 — | — | 2 | 1.3 |
|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8 | 5.3 | 9 | 5.9 |
|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2 | 1.3 | 8 | 5.3 |
|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28 | 18.4 | 14 | 9.2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12 | 7.9 | 19 | 12.5 |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 1 | 0.7 | 3 | 2.0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63 | 41.4 | 25 | 16.4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 8 | 5.3 | 24 | 15.8 |
|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 20 | 13.2 | 34 | 22.4 |
| 기타 | 6 | 3.9 | 5 | 3.3 |
| 합계 | 152 | 100.0 | 152 |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4%,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8.4%,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13.2%로 나타났다. 2순위 이유는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22.4%,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6.4%,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15.8%로 확인되었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1순위, 2순위 이유는 폭력 피해자가 폭력과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다양한 피해 대처기관들은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를 빠르게 인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피해 대처 기관들에 대한 신뢰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신상이나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가 되지 않은 경험(30.8%)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24.2%)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n=91,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45>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n=91, 단위: 명, %)

| 항 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 및 이야기 들음 | 22 (24.2) | 69 (75.8) | 91 (100.0) |
| (2) 문제유발자로 낙인 & 집단 따돌림 | 13 (14.3) | 78 (85.7) | 91 (100.0) |
| (3) 가해자를 두둔 & 나에게 폭언 및 폭행 | 13 (14.3) | 78 (85.7) | 91 (100.0)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 | 28 (30.8) | 63 (69.2) | 91 (100.0)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 &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 | 10 (11.0) | 81 (89.0) | 91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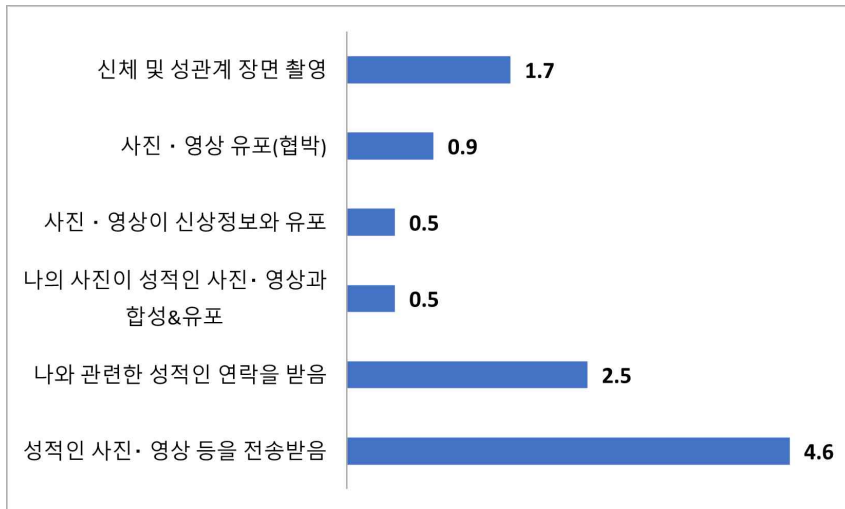
라. 디지털성범죄 피해

1)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동안 응답자가 직접 경험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피해(PC, 핸드폰, 전화 등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사진, 영상, 소리, 글 등을 전해 받은 적이 있다) 경험이 4.6%로 가장 높았다. 본인과 관련한 성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성적 메시지 혹은 성적 비하, 공격하는 댓글, 문자 등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는 2.5%에 해당했으며,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해(나의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적이 있다)는 1.7%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있음 비율

(n=119.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46>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n=1,110명, 단위: 명, %)

| 항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 19 (1.7) | 1,091 (98.3) | 1,110 (100.0) |
| (2) 사진·영상 유포(협박) | 10 (0.9) | 1,100 (99.1) | 1,110 (100.0) |
| (3) 사진·영상이 신상정보와 유포 | 5 (0.5) | 1,105 (99.5) | 1,110 (100.0) |
| (4) 나의 사진이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유포 | 6 (0.5) | 1,104 (99.5) | 1,110 (100.0) |
| (5) 나와 관련한 성적인 연락을 받음 | 28 (2.5) | 1,082 (97.5) | 1,110 (100.0) |
| (6) 성적인 사진, 영상 등 전송받음 | 51 (4.6) | 1,059 (95.4) | 1,110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는 20대(2.8%)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60대(2.3%)가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성적인 사진·영상을 전해받은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자신과 관련한 성적인 연락을 받은 피해 경험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전해받은 경험이 5.2%,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가 2.2%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전해받은 경험이 3.6%,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와 자신과 관련한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피해 경험이 각각 2.2%였다. 40대~70대 이상 모두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전해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를 제외하고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 경험이 그 다음 순위로 높았다.

<표 Ⅲ-47>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n=119. 단위: 명, %)

| 항목 | |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 사진 · 영상 유포 협박 | 사진 · 영상이 신상정보 와 유포 | 나의 사진이 성적인 사진, 영상과 합성 & 유포 | 나와 관련한 성적인 연락 | 성적인, 사진, 영상 전송받음 | 합계 |
|---------------------|----|----------------------|---------------------|-----------------------------|--|------------------------|------------------------|-------------|
| 20대 (만19세 포함) | 있음 | 6 (2.2) | 2 (0.7) | 1 (0.4) | — | 16 (5.9) | 14 (5.2) | 39 (2.8) |
| 30대 | 있음 | 5 (2.2) | 3 (1.3) | 2 (0.9) | 2 (0.9) | 5 (2.2) | 8 (3.6) | 25 (1.9) |
| 40대 | 있음 | 4 (1.6) | 2 (0.8) | 2 (0.8) | 2 (0.8) | 1 (0.4) | 8 (3.1) | 19 (1.2) |
| 50대 | 있음 | 1 (0.5) | — | — | 2 (1.1) | 4 (2.1) | 9 (4.8) | 16 (1.4) |
| 60대 | 있음 | 2 (1.7) | 2 (1.7) | — | — | 2 (1.7) | 10 (8.4) | 16 (2.3) |
| 70대 이상 | 있음 | 1 (2.0) | 1 (2.0) | — | — | — | 2 (3.9) | 4 (1.3)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다른 성범죄 피해 경험과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가해자보다는 친분이 없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40.7%로 피해자 100명 중 약 41명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27.9%)는 피해자 100명 중 약 28명,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16.3%)는 약 16명에 해당하였다.

[그림 III-28]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복수응답)

(n=121,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48>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복수응답)

(n=12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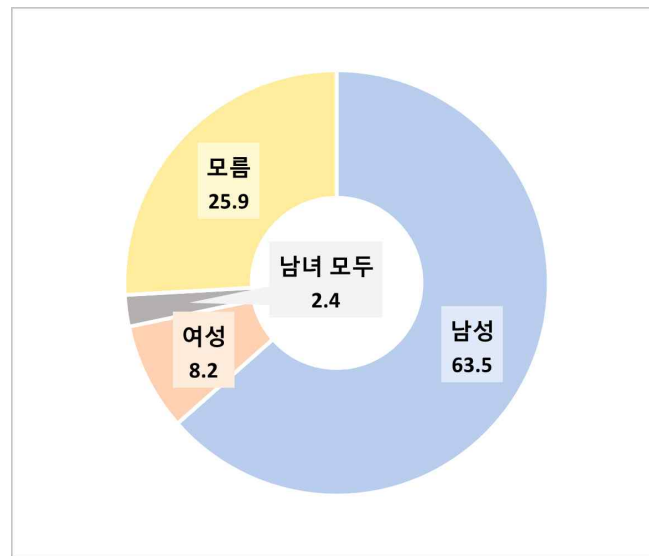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친구·학교 선후배 | 11 | 9.1 | 12.8 |
| 학교 선생, 교수, 학원강사 | 1 | 0.8 | 1.2 |
|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8 | 6.6 | 9.3 |
| 가족관계 (부모, 형제자매) | 1 | 0.8 | 1.2 |
| 친인척 | 1 | 0.8 | 1.2 |
| 가족외 동거인 | 3 | 2.5 | 3.5 |
| 현재 연인 | 2 | 1.7 | 2.3 |
| 이전 연인 | 12 | 9.9 | 14.0 |
| 이웃, 단순 대면인 | 4 | 3.3 | 4.7 |
| 데이트 상대 (소개팅, 맞선 등으로 만난 사람) | 5 | 4.1 | 5.8 |
|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14 | 11.6 | 16.3 |
| 모르는 사람 | 35 | 28.9 | 40.7 |
|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24 | 19.8 | 27.9 |
| 합계 | 121 | 100.0 | 140.7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성별은 남성 63.5%, 모름 25.9%, 여성 8.2%, 남녀 모두 2.4%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성범죄 피해와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Ⅲ-29]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성별

(n=8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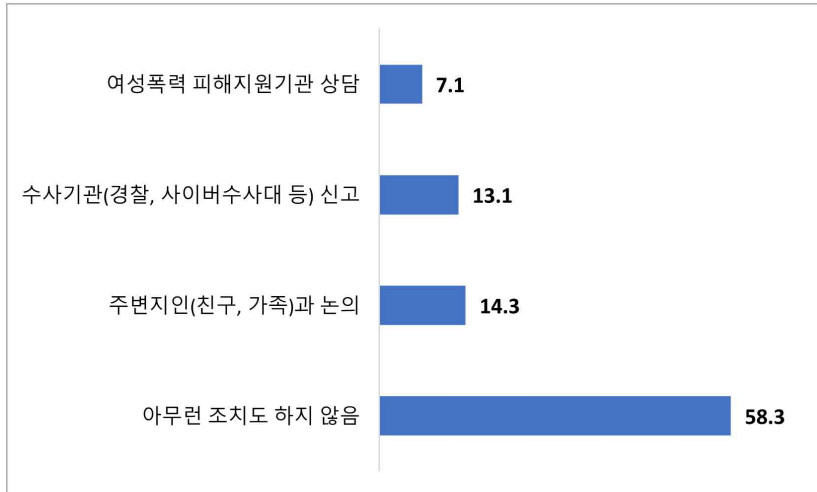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 중 58.3%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피해자 100명 중 약 58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은 주변지인(친구, 가족 등)과 논의한 비율이 14.3%, 수사기관(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찰 등)에 신고한 비율이 13.1%,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등)에 상담한 비율은 7.1%였다.

[그림 III-30]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8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49>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n=88,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수사기관(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찰 등) 신고 | 11 | 12.5 | 13.1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상담 | 6 | 6.8 | 7.1 |
|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의논 | 12 | 13.6 | 14.3 |
|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음 | 49 | 55.7 | 58.3 |
| 기타 | 10 | 11.4 | 11.9 |
| 합계 | 88 | 100.0 | 104.8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각 폭력 유형별 피해자 대비 피해대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나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47.4%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와 관련한 성적인 연락(50.0%),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전달받은 피해(54.9%)에 대해서는 약 절반 이상의 비율이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사진 및 영상 유포/협박 피해와 나의 사진이 성적인 사진 및 영상과 합성되어 유포된 경우, 사진 및 영상이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빈도(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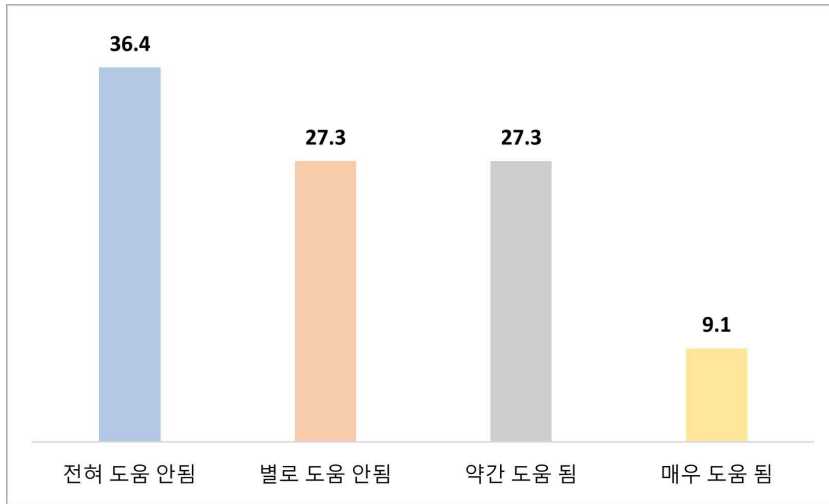
| 항목 | 신체 및 성관계 장면 촬영 | 사진·영상 유포 협박 | 사진· 영상이 신상정보와 유포 | 나의 사진이 성적인 사진, 영상과 합성 & 유포 | 나와 관련한 성적인 연락 | 성적인, 사진, 영상 전송받음 |
|----------------|----------------------|----------------|---------------------------|-------------------------------------|------------------|------------------------|
| 피해경험 있음 | 19 | 10 | 5 | 6 | 28 | 51 |
| 피해에 대처하지 않음 | 9 (47.4) | 1 (10.0) | 1 (20.0) | 1 (16.7) | 14 (50.0) | 28 (54.9)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12.9%(11명)인 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87.1%(74명)였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들이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가 폭력 관계 및 폭력피해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안됨 36.4%, 별로 도움 안됨 27.3%)고 응답한 비율이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 됨 27.3, 매우 도움 됨 9.1%)고 응답한 비율보다 27.3% 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III-31] 수사기관 사건처리 도움 정도

(n=11,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순위 이유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4.3%)와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21.6%)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28.4%),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와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6%로 조사되었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순위와 2순위 이유가 유사하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Ⅲ-51>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n=74,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신고할 수 있는지 몰라서 | 5 | 6.8 | 2 | 2.7 |
|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10 | 13.5 | 1 | 1.4 |
|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4 | 5.4 | 7 | 9.5 |
|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 16 | 21.6 | 21 | 28.4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13 | 17.6 | 13 | 17.6 |
|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봐 | — | — | 1 | 1.4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18 | 24.3 | 13 | 17.6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 3 | 4.1 | 6 | 8.1 |
| 기타 | 5 | 6.8 | 10 | 13.5 |
| 합계 | 74 | 100.0 | 74 |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49>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7.1%(6명)인 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92.9%(79명)였다. 케이스 비율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100명 중 약 50명은 여성가족부에, 약 33명은 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 대응센터에, 약 17명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디지털성범죄 - 도움을 요청한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복수응답)

(n=8,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여성긴급전화1366 | 1 | 12.5 | 16.7 |
|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2 | 25.0 | 33.3 |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2 | 25.0 | 33.3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3 | 37.5 | 50.0 |
| 기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예: 경기도, 서울 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NGO 등) | — | — | — |
| 해바라기센터 | — | — | — |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의 전화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8 | 100.0 | 133.3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의 사건처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2명),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6.7%(4명)였다.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이유 1순위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0.4%,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19.0%,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16.5%였다. 2순위 이유로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22.8%)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22.6%)로 조사되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와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Ⅲ-53>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n=79,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 13 | 16.5 | 6 | 7.6 |
|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10 | 12.7 | 10 | 12.7 |
|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5 | 6.3 | 7 | 8.9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15 | 19.0 | 21 | 26.6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24 | 30.4 | 18 | 22.8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 9 | 11.4 | 6 | 7.6 |
| 기타 | 3 | 3.8 | 11 | 13.9 |
| 합계 | 79 | 100.0 | 79 |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1순위 이유는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30.0%),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18.0%)로 조사되었다. 2순위 이유는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26.0%),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0.0%),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12.0%) 순이었다.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대처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관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54>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

(n=5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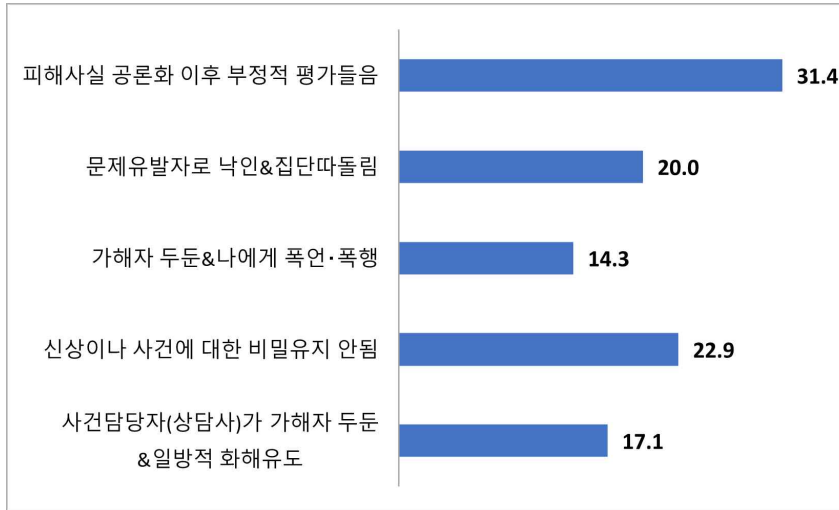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누구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3 | 6.0 | 3 | 6.0 |
|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2 | 4.0 | 4 | 8.0 |
|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5 | 10.0 | 6 | 12.0 |
|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15 | 30.0 | 10 | 20.0 |
|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9 | 18.0 | 5 | 10.0 |
|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6 | 12.0 | 13 | 26.0 |
|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 4 | 8.0 | 3 | 6.0 |
|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 1 | 2.0 | 2 | 4.0 |
| 기타 | 5 | 10.0 | 4 | 8.0 |
| 합계 | 50 | 100.0 | 50 |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 역시 2차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인 평가 및 이야기를 들은 경험(31.4%)이 높았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신상 및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가 되지 않은 경험(22.9%)과 사건 담당자와 지인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17.1%)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담당자 및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그림 Ⅲ-32]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대처 후 2차 피해 경험 있음 비율

(n=35,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55> 디지털성범죄 대처 과정 및 이후 경험

(n=35명, 단위: 명, %)

| 항 목 | 있다 | 없다 | 합계 |
|--|--------------|--------------|---------------|
| (1) 피해 사실 공론화 이후 부정적 평가 및 이야기 들음 | 11 (31.4) | 24 (68.6) | 35 (100.0) |
| (2) 문제유발자로 낙인 & 집단 따돌림 | 7 (20.0) | 28 (80.0) | 35 (100.0) |
| (3) 가해자를 두둔 & 나에게 폭언 및 폭행 | 5 (14.3) | 30 (85.7) | 35 (100.0)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 | 8 (22.9) | 27 (77.1) | 35 (100.0)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 &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 | 6 (17.1) | 29 (82.9) | 35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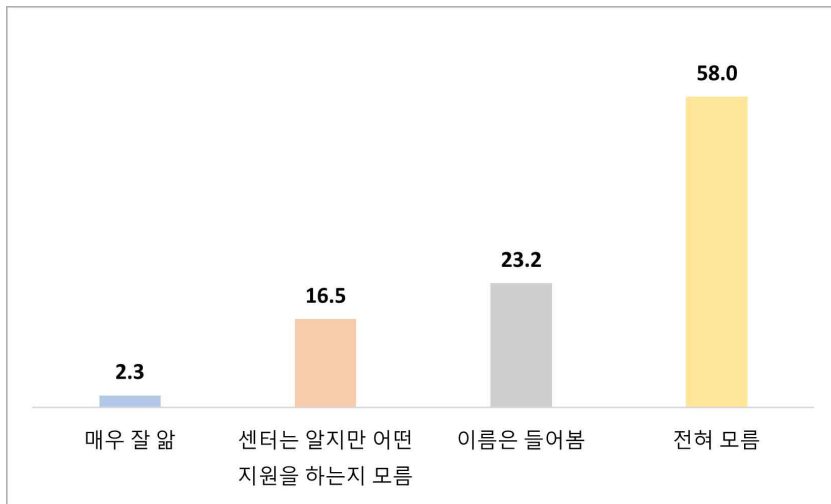
4)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지도

인천은 2021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수사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하였고,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5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센터를 알고 있어도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16.5%에 해당하므로 센터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센터의 지원종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그림 III-33]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지도

(n=1,11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할 사업 1순위는 피해촬영물 삭제지원(36.1%)과 대응방안지지와 관련한 상담지원(23.3%)으로 조사되었다. 강화해야 할 사업 2순위는 법률지원(21.6%), 전문 심리

상담 등 치료비 지원(21.4%)로 조사되었다.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기술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범죄피해 해결 및 지원, 심리적인 차원에서 상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리 치료비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5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우선해야 할 사업

(n=1,110명,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대응방안·지지상담 등) 상담 지원 | 259 | 23.3 | 114 | 10.3 |
| (피해촬영물 등) 삭제 지원 | 401 | 36.1 | 204 | 18.4 |
| (사건 서류작성 및 수사 동행 지원 등) 사건 지원 | 135 | 12.2 | 193 | 17.4 |
|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 159 | 14.3 | 240 | 21.6 |
| (전문심리상담 등) 치료비 지원 | 103 | 9.3 | 238 | 21.4 |
| 치유 프로그램 지원 | 45 | 4.1 | 120 | 10.8 |
| 기타 | 8 | 0.7 | 1 | 0.1 |
| 합계 | 1,110 | 100.0 | 1,110 | 100.0 |

출처: 202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마. 일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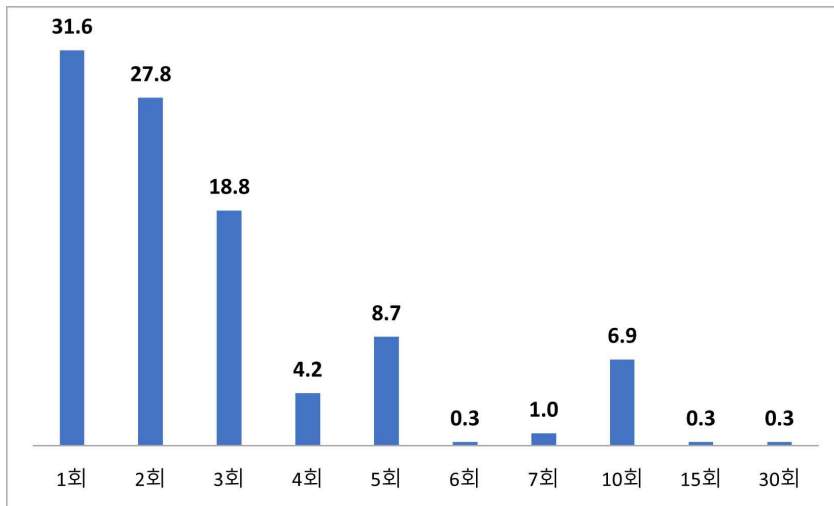
1) 일생 동안의 강제추행 피해 경험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응답자 1,110명 중 일생동안(지금까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0%(288명)에 해당하는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4.1%(822명)로 조사되었다.

강제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288명)는 일생 동안 최대 1회에서 최대 30회, 평균 3.0회의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4] 강제추행 피해 경험 횟수

(n=28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제추행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49.0%, 직장동료 및 일터관계자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전 연인 13.9%, 이웃 및 단순 대면자 12.2%, 친구 및 학교 선후배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7> 강제추행 가해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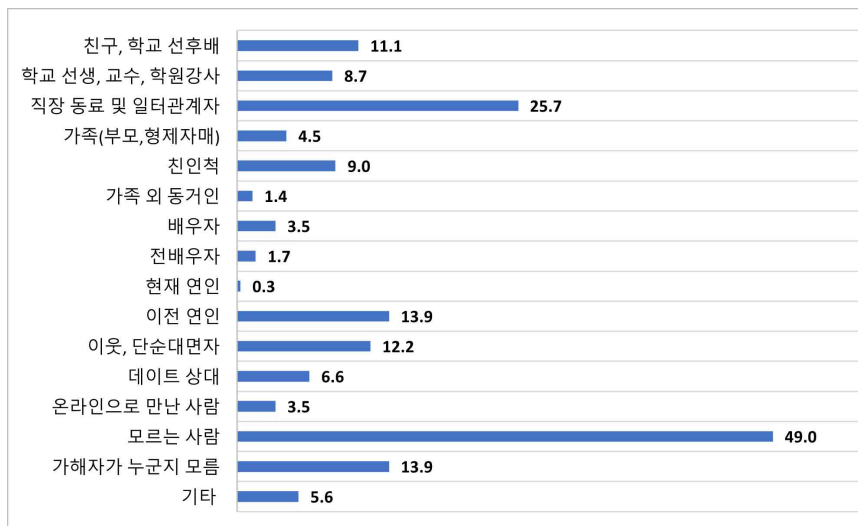
(n=491,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친구, 학교 선후배 | 32 | 6.5 | 11.1 |
| 학교 선생, 교수, 학원 강사 | 25 | 5.1 | 8.7 |
|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74 | 15.1 | 25.7 |
| 가족 (부모, 형제자매) | 13 | 2.6 | 4.5 |
| 친인척 | 26 | 5.3 | 9.0 |
| 가족 외 동거인 | 4 | 0.8 | 1.4 |
| 배우자 | 10 | 2.0 | 3.5 |
| 전배우자 | 5 | 1.0 | 1.7 |
| 현재 연인 | 1 | 0.2 | 0.3 |
| 이전 연인 | 40 | 8.1 | 13.9 |
| 이웃, 단순대면 | 35 | 7.1 | 12.2 |
| 데이트 상대(소개팅, 맞선 상대) | 19 | 3.9 | 6.6 |
|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10 | 2.0 | 3.5 |
| 모르는 사람 | 141 | 28.7 | 49.0 |
| 가해자가 누군지 모름 | 40 | 8.1 | 13.9 |
| 기타 | 16 | 3.3 | 5.6 |
| 전체 | 491 | 100.0 | 170.5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그림 III-35] 강제추행 가해자(복수응답)

(n=49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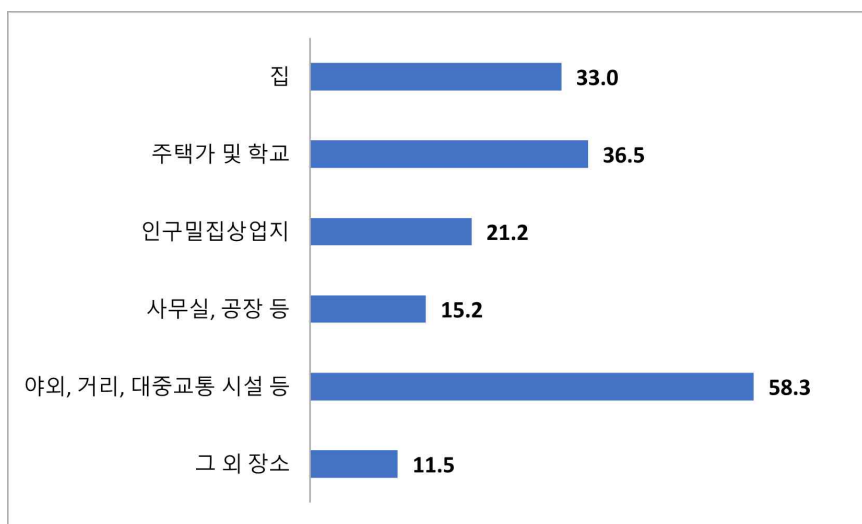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제추행 발생장소의 비율은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등(58.3%), 주택가 및 학교 (36.5%), 집(33.0%) 순으로 나타났다.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중에서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33.3%)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3명 중 1명은 대중교통 이용 중 강제 추행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집(19.8%)과 주택가나 그 인접도로 (22.6%)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강제추행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장소는 종교기관(1.0%)과 극장 및 공연장(1.4%),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6] 강제추행 피해발생 장소(복수응답)

(n=506, 단위: 명,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58> 강제추행 피해발생 장소(복수응답)

(n=506, 단위: 명, %)

| 발생장소 유형 |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케이스 합 |
|-------------------------|---|-----|-------|-----------|----------|
| 집 | 우리 집 | 57 | 11.3 | 19.8 | 33.0 |
| | 가해자의 집 | 39 | 7.7 | 13.2 | |
| 주택가 및 학교 |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 65 | 12.8 | 22.6 | 36.5 |
| | 학교 및 학교 주변 | 40 | 7.9 | 13.9 | |
| 인구밀집상 업지 | 상업건물(예: 백화점, 시장, 가게 등) | 26 | 5.1 | 8.7 | 21.2 |
| | 숙박장소 (예: 호텔, 여관 등) | 32 | 6.3 | 11.1 | |
| | 극장, 공연장 | 4 | 0.8 | 1.4 | |
| 사무실, 공장 등 | 기업, 회사 사무실 | 37 | 7.3 | 12.8 | 15.2 |
| | 종교기관 | 3 | 0.6 | 1.0 | |
| |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 4 | 0.8 | 1.4 | |
| 야외, 거리, 대중교통시 설 등 | 유원지, 공원, 등산로, 공터 | 40 | 7.9 | 13.9 | 58.3 |
| | 공공장소 화장실 | 8 | 1.6 | 2.8 | |
| | 교통시설 내부 (예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 96 | 19.0 | 33.3 | |
| | 대중교통 정거장, 역, 대합실 | 24 | 4.7 | 8.3 | |
| 그 외 장소 | 그 외 장소(예: 자동차 안, 친구 집 등) | 33 | 6.5 | 11.5 | 11.5 |
| 전체 | | 506 | 100.0 | 175.7 | 175.7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88명 중 최근 1년(2021년 5월~2022년 4월) 내에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7.3%(21명)였다. 최근 1년 내에 강제추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최소 1회에서 최대 15회, 평균 4.0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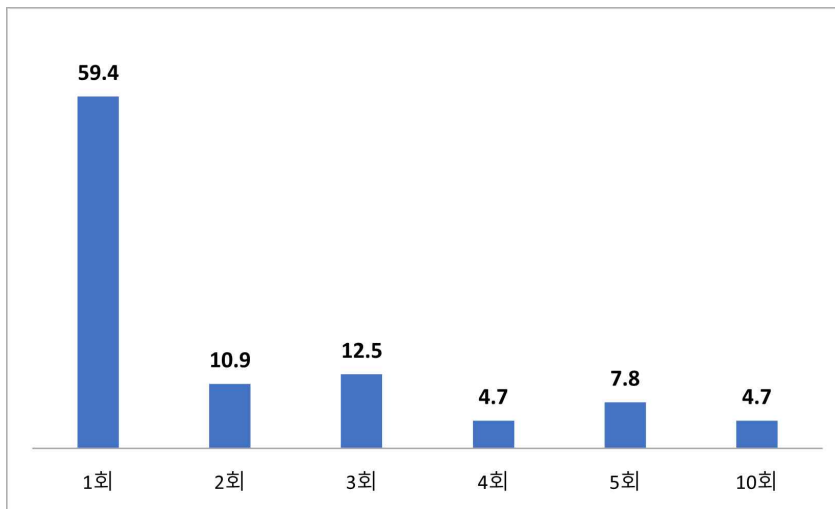
2) 일생 동안의 강간 피해 경험

강간은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및 항문에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응답자 1,110명 중 일생동안(지금까지) 강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64명)에 해당한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4.2%(1,046명)였다.

강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64명)는 일생 동안 최대 1회에서 최대 10회, 평균 2.2회의 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동안 강간피해를 1회 경험한 비율(59.4%)이 가장 높았으며, 3회(12.5%), 2회(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7] 강간 피해 경험 횟수

(n=6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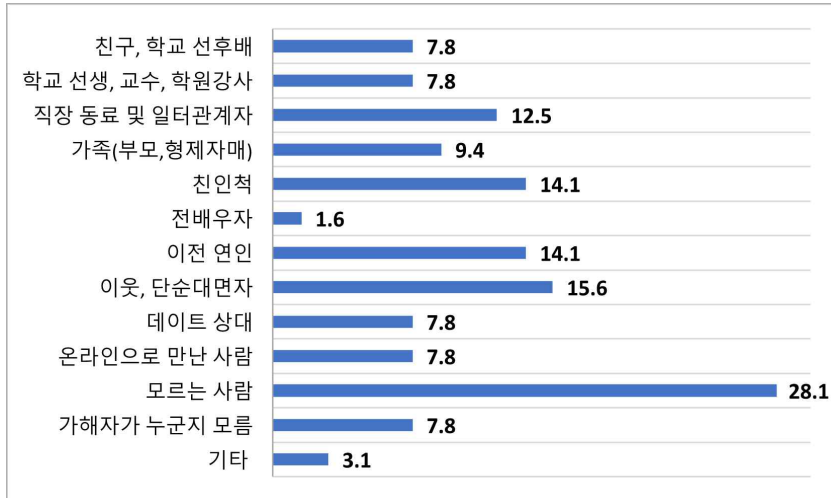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간피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8.1%였다. 그 다음으로 이웃 및 단순대면자 15.6%, 친인척과 이전 연인이 각각 1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8] 강간 피해 가해자(복수응답)

(n=8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59> 강간피해 가해자(복수응답)

(n=8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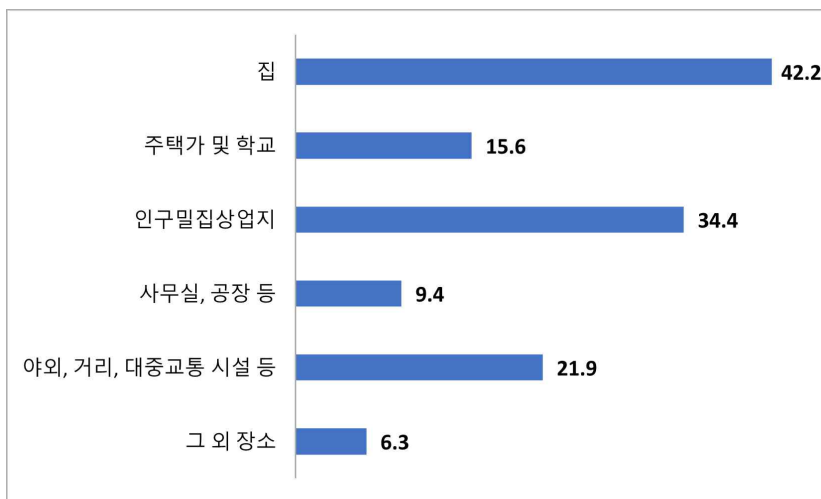
| 구분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친구, 학교 선후배 | 5 | 5.7 | 7.8 |
| 학교 선생, 교수, 학원 강사 | 5 | 5.7 | 7.8 |
|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8 | 9.1 | 12.5 |
| 가족 (부모, 형제자매) | 6 | 6.8 | 9.4 |
| 친인척 | 9 | 10.2 | 14.1 |
| 가족 외 동거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전배우자 | 1 | 1.1 | 1.6 |
| 현재 연인 | — | — | — |
| 이전 연인 | 9 | 10.2 | 14.1 |
| 이웃, 단순대면 | 10 | 11.4 | 15.6 |
| 데이트 상대(소개팅, 맞선 상대) | 5 | 5.7 | 7.8 |
|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5 | 5.7 | 7.8 |
| 모르는 사람 | 18 | 20.5 | 28.1 |
| 가해자가 누군지 모름 | 5 | 5.7 | 7.8 |
| 기타 | 2 | 2.3 | 3.1 |
| 전체 | 88 | 100.0 | 137.5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간피해 발생장소는 집(42.2%), 인구밀집상업지(34.4%),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21.9%), 주택가 및 학교(15.6%), 사무실/공장 등(9.4%), 그 외 장소(6.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발생 장소 중에서 숙박장소(28.1%)에서 피해자 100명 중 약 28명이 피해를 경험했다. 피해자의 집(20.3%, 100명 중 약 20명)보다 가해자의 집(21.9%, 100명 중 약 22명)에서 강간 피해가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9] 강간피해 발생 장소

(n=83,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64명 중 최근 1년(2021년 5월~2022년 4월) 내에 강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4.7%(3명)였다. 최근 1년 내에 강제추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최소 1회에서 최대 5회, 평균 3.0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0> 강간피해 발생 장소(복수응답)

(n=83, 단위: 명, %)

| 발생장소 유형 |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케이스 합 |
|------------------|--|----|-------|--------|-------|
| 집 | 우리 집 | 13 | 15.7 | 20.3 | 42.2 |
| | 가해자의 집 | 14 | 16.9 | 21.9 | |
| 주택가 및 학교 | 주택가나 그 인접 도로 | 5 | 6.0 | 7.8 | 15.6 |
| | 학교 및 학교 주변 | 5 | 6.0 | 7.8 | |
| 인구밀집상업지 | 상업건물(예: 백화점, 시장, 가게 등) | 3 | 3.6 | 4.7 | 34.4 |
| | 숙박장소 (예: 호텔, 여관 등) | 18 | 21.7 | 28.1 | |
| | 극장, 공연장 | 1 | 1.2 | 1.6 | |
| 사무실, 공장 등 | 기업, 회사 사무실 | 3 | 3.6 | 4.7 | 9.4 |
| | 종교기관 | 2 | 2.4 | 3.1 | |
| |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 1 | 1.2 | 1.6 | |
| 야외,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 | 유원지, 공원, 등산로, 공터 | 5 | 6.0 | 7.8 | 21.9 |
| | 공공장소 화장실 | 3 | 3.6 | 4.7 | |
| | 교통시설 내부 (예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 5 | 6.0 | 7.8 | |
| | 대중교통 정거장, 역, 대합실 | 1 | 1.2 | 1.6 | |
| 그 외 장소 | 그 외 장소(예: 자동차 안, 친구 집 등) | 4 | 4.8 | 6.3 | 6.3 |
| 전체 | | 83 | 100.0 | 129.7 | 129.7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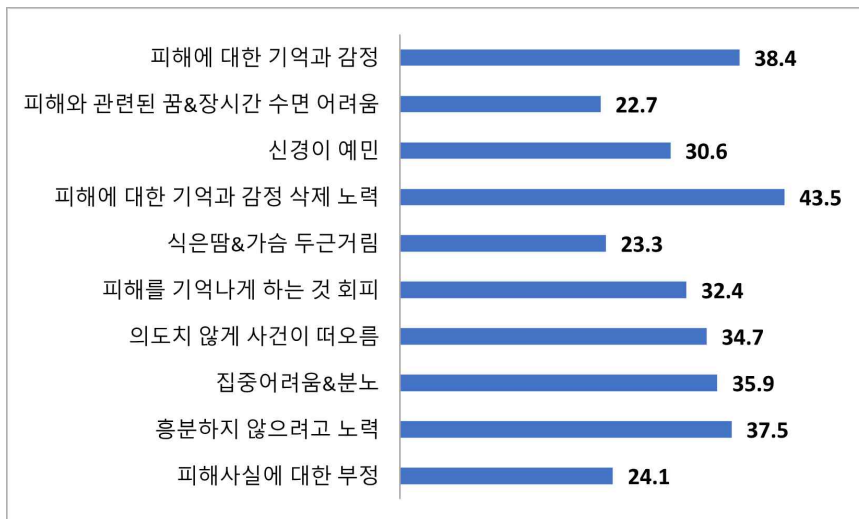
1)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최근 3년(2019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학(원) 내 성희롱·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디지털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이 최근 한 달(2022년 4월) 동안 본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로 평가하였다.

폭력피해자들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32.3%였다.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였다. 피해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는 경우는 38.4%, 피해사건이 떠오를 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37.5%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피해와 관련된 꿈을 꾸거나 오래 잠들기 어렵다는 응답(22.7%)과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마주하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반응이 나타난다는 응답(23.3%)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 비율이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 지원기관들은 단순히 폭력 피해, 폭력 관계의 극복에 집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적, 치유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40] 폭력피해 경험 이후 최근 한 달 스트레스 정도(‘그렇다’ 응답 비율)
(n=57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Ⅲ-61> 폭력피해 경험 이후 최근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정도

(n=570, 단위: 명, %)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피해(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밀려온다 | 191 (33.5) | 160 (28.1) | 169 (29.6) | 50 (8.8) |
| 피해(사건)에 대해 꿈을 꾸거나, 오래 동안 잠들기 어렵다 | 269 (47.2) | 172 (30.2) | 111 (19.5) | 18 (3.2) |
| 피해(사건) 이후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놀란다 | 254 (44.6) | 142 (24.9) | 136 (23.9) | 38 (6.7) |
| 피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기억(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 216 (37.9) | 106 (18.6) | 163 (28.6) | 85 (14.9) |
| 피해(사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접하면 땀을 흘리거나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반응이 나타난다 | 269 (47.2) | 168 (29.5) | 109 (19.1) | 24 (4.2) |
| 피해(사건)를 기억하게 하는 것(사건 장소, 상황 등)은 일부러 피한다 | 244 (42.8) | 141 (24.7) | 129 (22.6) | 56 (9.8) |
| 의도하지 않아도 피해(사건)가 생각난다 | 226 (39.6) | 146 (25.6) | 153 (26.8) | 45 (7.9) |
| 피해(사건)가 생각나면 집중하기 어렵거나 화가 난다 | 238 (41.8) | 127 (22.3) | 150 (26.3) | 55 (9.6) |
| 피해(사건)이 생각날 때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228 (40.0) | 128 (22.5) | 169 (29.6) | 45 (7.9) |
|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 281 (49.3) | 152 (26.7) | 99 (17.4) | 38 (6.7)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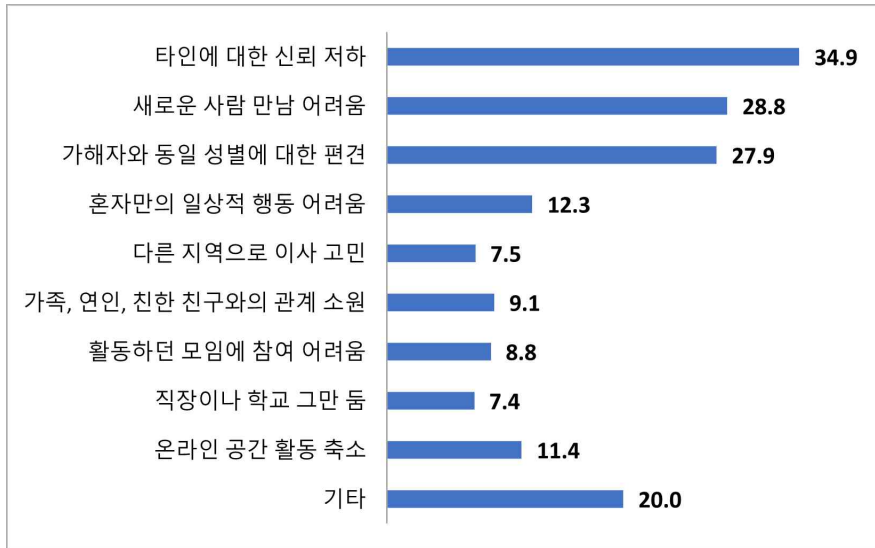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피해자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34.9%)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저하를 경험하는 피해자는 100명 중 약 35명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28.8%, 100명 중 약 29명),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편견이 발생(27.9%, 100명 중 약 28명)하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변화 없다, 외출할 때 주변을 경계한다, 옷차림에 신경쓰게 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을 조심한다 등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생활이나 모임 활동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보고하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피해자들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일상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III-41] 폭력피해 이후 일상생활 변화(복수응답)

(n=958,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62> 폭력피해 이후 일상생활 변화(복수응답)

(n=958, 단위: 명, %)

| 항목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저하 | 199 | 20.8 | 34.9 |
| 새로운 사람 만남에 어려움을 느낌 | 164 | 17.1 | 28.8 |
|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편견 발생 | 159 | 16.6 | 27.9 |
| 혼자만의 일상적인 행동에 어려움 | 70 | 7.3 | 12.3 |
|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고민 | 43 | 4.5 | 7.5 |
|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소원 | 52 | 5.4 | 9.1 |
| 활동하던 모임(동아리, 동호회, 종교 활동 등) 참여 어려움 | 50 | 5.2 | 8.8 |
|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 둠(휴직, 휴학포함) | 42 | 4.4 | 7.4 |
| 온라인 공간 활동 축소 | 65 | 6.8 | 11.4 |
| 기타 | 114 | 11.9 | 20.0 |
| 합계 | 958 | 100.0 | 16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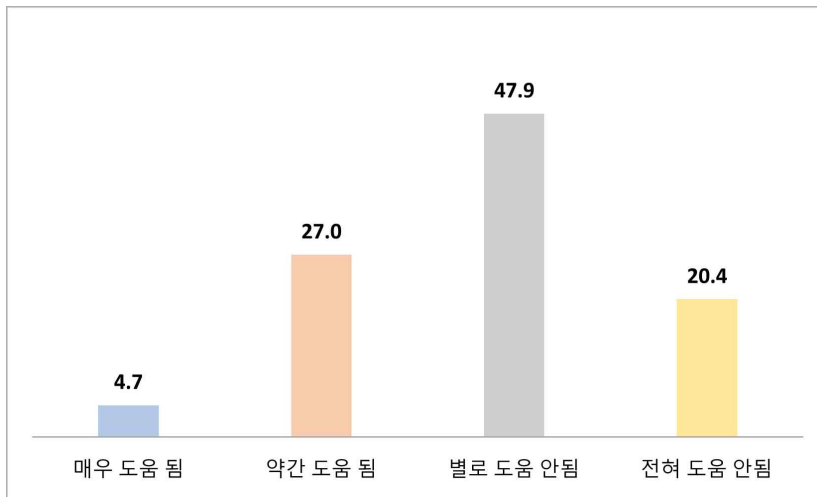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3) 성희롱·성폭력 피해 회복 과정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수사기관, 지원기관, 회사 등의 대응이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매우 도움 됨 4.7%, 약간 도움 됨 27.0%)에 불과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더 높은 비율이었다.

[그림 III-42] 관련 기관의 대응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된 정도

(n=57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피해 회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인·친구의 지지나 조언(52.7%, 100명 중 약 53명), 가족파트너의 지지(52.2%, 100명 중 약 52명)라고 응답하였다. 가족, 친구, 파트너의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비율 다른 응답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에서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수사기관, 법원판결 등이 피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기관의 대응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5.5%, 100명 중 약 6명) 및 법원판결(4.4%, 100명 중 약 4명)이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특히 낮다는 점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력 피해자들이 사적인 관계나 지지로부터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표 III-63> 피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기관(복수응답)

(n=279, 단위: 명, %)

| 항목 | 빈도 | 비율 | 케이스 비율 |
|--|-----|-------|-----------|
| 가족파트너의 지지 | 95 | 34.1 | 52.2 |
| 지인·친구의 지지나 조언 | 96 | 34.4 | 52.7 |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 18 | 6.5 | 9.9 |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디지털성범죄전문피해지원 기관 | 13 | 4.7 | 7.1 |
| 직장이나 학교의 사건처리기관 | 13 | 4.7 | 7.1 |
| 의료기관 | 9 | 3.2 | 4.9 |
|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 10 | 3.6 | 5.5 |
| 법원판결(가해자처벌) | 8 | 2.9 | 4.4 |
| 기타 | 17 | 6.1 | 9.3 |
| 합계 | 279 | 100.0 | 153.3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570명 중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6명)에 불과하였다.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상담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 36명 중 해당 치료와 상담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6.7%(약간 도움 됨 50.0%, 매우 도움 됨 16.7%)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전혀 도움 안됨 2.8%, 별로 도움 안됨 30.1%)보다 33.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165명)인 반면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369명)였다. 정신 의학적 치료 및 전문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료·상담을 받기를 꺼려하는 요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정신의학적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응답자 1,110명 중 향후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345명)였다. 폭력 피해자들이 치유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1) 지역사회 성범죄 인식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비율은 50.6%(약간 그렇다 42.9%, 매우 그렇다 7.7%) 걱정하지 않는 비율 49.4%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강도·절도 등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군·구는 부평구(59.3%), 미추홀구(55.2%), 계양구(51.8%), 서구(50.2%) 순으로 확인된다. 동구와 강화·옹진군은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64>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에 대한 걱정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8 (15.4) | 26 (50.0) | 18 (34.6) | — | 52 (100.0) |
| 동구 | 1 (5.6) | 11 (61.1) | 6 (33.3) | — | 18 (100.0) |
| 미추홀구 | 9 (5.5) | 64 (39.3) | 79 (48.5) | 11 (6.7) | 163 (100.0) |
| 연수구 | 24 (16.4) | 56 (38.4) | 58 (39.7) | 8 (5.5) | 146 (100.0) |
| 남동구 | 17 (8.6) | 83 (41.9) | 87 (43.9) | 11 (5.6) | 198 (100.0) |
| 부평구 | 16 (8.0) | 65 (32.7) | 96 (48.2) | 22 (11.1) | 199 (100.0) |
| 계양구 | 16 (14.3) | 38 (33.9) | 43 (38.4) | 15 (13.4) | 112 (100.0) |
| 서구 | 15 (7.5) | 85 (42.3) | 85 (42.3) | 16 (8.0)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5 (23.8) | 9 (42.9) | 4 (19.0) | 3 (14.3) | 21 (100.0) |
| 전체 | 111 (10.0) | 437 (39.4) | 476 (42.9) | 86 (7.7)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35.4%(약간 그렇다 30.2%, 매우 그렇다 5.2%)였다.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은 부평구(40.7%), 미추홀구(38.7%), 서구(37.3%), 계양구(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65>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10 (19.2) | 28 (53.8) | 14 (26.9) | — | 52 (100.0) |
| 동구 | 5 (27.8) | 11 (61.1) | 2 (11.1) | — | 18 (100.0) |
| 미추홀구 | 17 (1.4) | 83 (50.9) | 58 (35.6) | 5 (3.1) | 163 (100.0) |
| 연수구 | 28 (19.2) | 68 (46.6) | 39 (26.7) | 11 (7.5) | 146 (100.0) |
| 남동구 | 29 (14.6) | 108 (54.5) | 50 (25.3) | 11 (5.6) | 198 (100.0) |
| 부평구 | 30 (15.1) | 88 (44.2) | 73 (36.7) | 8 (4.0) | 199 (100.0) |
| 계양구 | 19 (17.0) | 53 (47.3) | 34 (30.4) | 6 (5.4) | 112 (100.0) |
| 서구 | 33 (16.4) | 93 (46.3) | 58 (28.9) | 17 (8.5)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4 (19.0) | 10 (47.6) | 7 (33.3) | — | 21 (100.0) |
| 전체 | 175 (15.8) | 542 (48.8) | 335 (30.2) | 58 (5.2)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7.9%(약간 그렇다 48.5%, 매우 그렇다 19.5%)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미추홀구(74.2%), 계양구(69.6%), 부평구(69.3%), 남동구(68.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편이다.

<표 III-66>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 피해 두려움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4 (7.7) | 18 (34.6) | 19 (36.5) | 11 (21.2) | 52 (100.0) |
| 동구 | 1 (5.6) | 7 (38.9) | 8 (44.4) | 2 (11.1) | 18 (100.0) |
| 미추홀구 | 3 (1.8) | 39 (23.9) | 90 (55.2) | 31 (19.0) | 163 (100.0) |
| 연수구 | 16 (11.0) | 31 (21.2) | 72 (49.3) | 27 (18.5) | 146 (100.0) |
| 남동구 | 10 (5.1) | 53 (26.8) | 98 (49.5) | 37 (18.7) | 198 (100.0) |
| 부평구 | 15 (7.5) | 46 (23.1) | 95 (47.7) | 43 (21.6) | 199 (100.0) |
| 계양구 | 6 (5.4) | 28 (25.0) | 54 (48.2) | 24 (21.4) | 112 (100.0) |
| 서구 | 8 (4.0) | 62 (30.8) | 94 (46.8) | 37 (18.4)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3 (14.3) | 6 (28.6) | 8 (38.1) | 4 (19.0) | 21 (100.0) |
| 전체 | 66 (5.9) | 290 (26.1) | 538 (48.5) | 216 (19.5)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집에 혼자 있을 때 수리기사, 택배 기사 등의 낯선 사람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0.9%(약간 그렇다 45.6%, 매우 그렇다 15.3%)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도 39.1%p 높게 나타났다.

낯선 사람 방문에 대한 두려움은 부평구(66.3%), 미추홀구(64.4%), 연수구(63.0%), 서구(59.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두려움이 가장 낮은 군·구는 동구(44.4%)이지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67> 낯선 사람 방문에 대한 두려움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5 (9.6) | 17 (32.7) | 22 (42.3) | 8 (15.4) | 52 (100.0) |
| 동구 | 3 (16.7) | 7 (38.9) | 6 (33.3) | 2 (11.1) | 18 (100.0) |
| 미추홀구 | 6 (3.7) | 52 (31.9) | 82 (50.3) | 23 (14.1) | 163 (100.0) |
| 연수구 | 15 (10.3) | 39 (26.7) | 76 (52.1) | 16 (11.0) | 146 (100.0) |
| 남동구 | 12 (6.1) | 70 (35.4) | 81 (40.9) | 35 (17.7) | 198 (100.0) |
| 부평구 | 16 (8.0) | 51 (25.6) | 95 (47.7) | 37 (18.6) | 199 (100.0) |
| 계양구 | 5 (4.5) | 44 (39.3) | 44 (39.3) | 19 (17.0) | 112 (100.0) |
| 서구 | 15 (7.5) | 67 (33.3) | 93 (46.3) | 26 (12.9)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6 (28.6) | 4 (19.0) | 7 (33.3) | 4 (19.0) | 21 (100.0) |
| 전체 | 83 (7.5) | 351 (31.6) | 506 (45.6) | 170 (15.3)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53.8%(약간 그렇다 40.9%, 매우 그렇다 12.9%)로 조사되었다.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두려움은 서구(60.2%), 연수구(58.9%), 계양구(55.4%), 미추홀구(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두려움이 가장 낮은 군·구는 강화/옹진군(23.8%)이었다. 이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문 제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표 III-68>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7 (13.5) | 21 (40.4) | 20 (38.5) | 4 (7.7) | 52 (100.0) |
| 동구 | 3 (16.7) | 8 (44.4) | 6 (33.3) | 1 (5.6) | 18 (100.0) |
| 미추홀구 | 5 (3.1) | 68 (41.7) | 72 (44.2) | 18 (11.0) | 163 (100.0) |
| 연수구 | 18 (12.3) | 42 (28.8) | 69 (47.3) | 17 (11.6) | 146 (100.0) |
| 남동구 | 13 (6.6) | 83 (41.9) | 78 (39.4) | 24 (12.1) | 198 (100.0) |
| 부평구 | 26 (13.1) | 73 (36.7) | 65 (32.7) | 35 (17.6) | 199 (100.0) |
| 계양구 | 10 (8.9) | 40 (35.7) | 47 (42.0) | 15 (13.4) | 112 (100.0) |
| 서구 | 19 (9.5) | 61 (30.3) | 92 (45.8) | 29 (14.4)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7 (33.3) | 9 (42.9) | 5 (23.8) | — | 21 (100.0) |
| 전체 | 108 (9.7) | 405 (36.5) | 454 (40.9) | 143 (12.9)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2)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응답자들 중 야간에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약간 그렇다, 55.6%, 매우 그렇다 24.5%)였다. 야간에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다고 응답한 군/구는 연수구(91.1%), 계양구(84.8%), 서구(8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화/옹진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71.4%가 야간에 가로등이 비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69> 야간 가로등 설치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 | 14 (26.9) | 24 (46.2) | 14 (26.9) | 52 (100.0) |
| 동구 | — | 4 (22.2) | 9 (50.0) | 5 (27.8) | 18 (100.0) |
| 미추홀구 | 2 (1.2) | 47 (28.8) | 78 (47.9) | 36 (22.1) | 163 (100.0) |
| 연수구 | 1 (0.7) | 12 (8.2) | 74 (50.7) | 59 (40.4) | 146 (100.0) |
| 남동구 | 5 (2.5) | 29 (14.6) | 116 (58.6) | 48 (24.2) | 198 (100.0) |
| 부평구 | 6 (3.0) | 36 (18.1) | 120 (60.3) | 37 (18.6) | 199 (100.0) |
| 계양구 | 2 (1.8) | 15 (13.4) | 68 (60.7) | 27 (24.1) | 112 (100.0) |
| 서구 | — | 33 (16.4) | 123 (61.2) | 45 (22.4)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7 (33.3) | 8 (38.1) | 5 (23.8) | 1 (4.8) | 21 (100.0) |
| 전체 | 23 (2.1) | 198 (17.8) | 617 (55.6) | 272 (24.5)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빈집 및 공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0%(약간 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17.8%)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38.0%p 높았다. 빈집 및 공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군·구는 연수구(80.8%), 남동구(75.3%), 계양구(74.1%) 순이었다. 빈집과 공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군·구는 강화/옹진군에(76.2%), 동구(66.7%)로 확인되었다.

<표 III-70> 빈집 및 공터 관리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6 (11.5) | 15 (28.8) | 22 (42.3) | 9 (17.3) | 52 (100.0) |
| 동구 | 1 (5.6) | 11 (61.1) | 4 (22.2) | 2 (11.1) | 18 (100.0) |
| 미추홀구 | 8 (4.9) | 53 (32.5) | 80 (49.1) | 22 (13.5) | 163 (100.0) |
| 연수구 | 2 (1.4) | 26 (17.8) | 71 (48.6) | 47 (32.2) | 146 (100.0) |
| 남동구 | 6 (3.0) | 43 (21.7) | 116 (58.6) | 33 (16.7) | 198 (100.0) |
| 부평구 | 10 (5.0) | 56 (28.1) | 105 (52.8) | 28 (14.1) | 199 (100.0) |
| 계양구 | 1 (0.9) | 28 (25.0) | 62 (55.4) | 21 (18.8) | 112 (100.0) |
| 서구 | 4 (2.0) | 58 (28.9) | 103 (51.2) | 36 (17.9)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9 (42.9) | 7 (33.3) | 5 (23.8) | — | 21 (100.0) |
| 전체 | 47 (4.2) | 297 (26.8) | 568 (51.2) | 198 (17.8)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3%(약간 그렇다, 54.0%, 매우 그렇다 15.3%)인 반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26.2%)로 나타났다. 공공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군·구는 계양구(79.5%), 연수구(78.1%), 남동구(73.2%) 순이었다. 공공화장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미추홀구(40.5%)가 가장 낮았다.

<표 Ⅲ-71> 공공화장실 이용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4 (7.7) | 13 (25.0) | 27 (51.9) | 8 (15.4) | 52 (100.0) |
| 동구 | 1 (5.6) | 5 (27.8) | 10 (55.6) | 2 (11.1) | 18 (100.0) |
| 미추홀구 | 9 (5.5) | 57 (35.0) | 77 (47.2) | 20 (12.3) | 163 (100.0) |
| 연수구 | 3 (2.1) | 29 (19.9) | 76 (52.1) | 38 (26.0) | 146 (100.0) |
| 남동구 | 7 (3.5) | 46 (23.2) | 123 (62.1) | 22 (11.1) | 198 (100.0) |
| 부평구 | 15 (7.5) | 57 (28.6) | 101 (50.8) | 26 (13.1) | 199 (100.0) |
| 계양구 | 2 (1.8) | 21 (18.8) | 70 (62.5) | 19 (17.0) | 112 (100.0) |
| 서구 | 6 (3.0) | 59 (29.4) | 102 (50.7) | 34 (16.9)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3 (14.3) | 4 (19.0) | 13 (61.9) | 1 (4.8) | 21 (100.0) |
| 전체 | 50 (4.5) | 291 (26.2) | 599 (54.0) | 170 (15.3)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찰순찰을 자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약간 그렇다, 35.6%, 매우 그렇다 7.5%)였다. 경찰순찰을 자주 한다고 응답한 군/구는 동구(55.6%), 연수구(50.7%), 계양구(50.0%) 순이었다. 경찰순찰을 자주 하지 않는 군·구는 강화/옹진군(71.4%), 서구(65.2%), 중구(63.5%) 순이었다.

<표 III-72> 경찰 순찰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7 (13.5) | 26 (50.0) | 16 (30.8) | 3 (5.8) | 52 (100.0) |
| 동구 | 1 (5.6) | 7 (38.9) | 9 (50.0) | 1 (5.6) | 18 (100.0) |
| 미추홀구 | 16 (9.8) | 79 (48.5) | 59 (36.2) | 9 (5.5) | 163 (100.0) |
| 연수구 | 10 (6.8) | 62 (42.5) | 60 (41.1) | 14 (9.6) | 146 (100.0) |
| 남동구 | 14 (7.1) | 96 (48.5) | 73 (36.9) | 15 (7.6) | 198 (100.0) |
| 부평구 | 19 (9.5) | 93 (46.7) | 72 (36.2) | 15 (7.5) | 199 (100.0) |
| 계양구 | 6 (5.4) | 50 (44.6) | 49 (43.8) | 7 (6.3) | 112 (100.0) |
| 서구 | 24 (11.9) | 107 (53.2) | 53 (26.4) | 17 (8.5)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4 (19.0) | 11 (52.4) | 4 (19.0) | 2 (9.5) | 21 (100.0) |
| 전체 | 101 (9.1) | 531 (47.8) | 395 (35.6) | 83 (7.5)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약간 그렇다, 35.6%, 매우 그렇다 7.5%)였다. CCTV가 잘 설치된 군·구는 남동구(84.9%), 계양구(84.8%), 남동구(80.3%) 순이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군·구는 강화/옹진군(47.6%)이 가장 높았다.

<표 Ⅲ-73> CCTV 설치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2 (3.8) | 15 (28.8) | 28 (53.8) | 7 (13.5) | 52 (100.0) |
| 동구 | 1 (5.6) | 4 (22.2) | 8 (44.4) | 5 (27.8) | 18 (100.0) |
| 미추홀구 | 4 (2.5) | 41 (25.2) | 99 (60.7) | 19 (11.7) | 163 (100.0) |
| 연수구 | 3 (2.1) | 19 (13.0) | 73 (50.0) | 51 (34.9) | 146 (100.0) |
| 남동구 | 7 (3.5) | 32 (16.2) | 127 (64.1) | 32 (16.2) | 198 (100.0) |
| 부평구 | 5 (2.5) | 39 (19.6) | 119 (59.8) | 36 (18.1) | 199 (100.0) |
| 계양구 | 1 (0.9) | 16 (14.3) | 73 (65.2) | 22 (19.6) | 112 (100.0) |
| 서구 | 4 (2.0) | 40 (19.9) | 122 (60.7) | 35 (17.4)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4 (19.0) | 6 (28.6) | 9 (42.9) | 2 (9.5) | 21 (100.0) |
| 전체 | 31 (2.8) | 212 (19.1) | 658 (59.3) | 209 (18.8)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여성과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약간 그렇다, 57.1%, 매우 그렇다 13.4%)로 조사되었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에 안전한 군·구는 연수구(82.9%), 남동구(74.7%), 계양구(7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아동이 생활하기에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구는 동구(50.0%)와 강화/옹진군(42.9%)이었다.

<표 III-74> 여성과 아동의 생활 안전

(n=1,110, 단위: 명, %)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합계 |
|--------|--------------|---------------|---------------|---------------|------------------|
| 중구 | 1 (1.9) | 15 (28.8) | 32 (61.5) | 4 (7.7) | 52 (100.0) |
| 동구 | 2 (11.1) | 7 (38.9) | 6 (33.3) | 3 (16.7) | 18 (100.0) |
| 미추홀구 | 9 (5.5) | 67 (41.1) | 70 (42.9) | 17 (10.4) | 163 (100.0) |
| 연수구 | 2 (1.4) | 23 (15.8) | 83 (56.8) | 38 (26.0) | 146 (100.0) |
| 남동구 | 9 (4.5) | 41 (20.7) | 128 (64.6) | 20 (10.1) | 198 (100.0) |
| 부평구 | 10 (5.0) | 50 (25.1) | 121 (60.8) | 18 (9.0) | 199 (100.0) |
| 계양구 | 2 (1.8) | 27 (24.1) | 65 (58.0) | 18 (16.1) | 112 (100.0) |
| 서구 | 3 (1.5) | 50 (24.9) | 119 (59.2) | 29 (14.4) | 201 (100.0) |
| 강화/옹진군 | 3 (14.3) | 6 (28.6) | 10 (47.6) | 2 (9.5) | 21 (100.0) |
| 전체 | 41 (3.7) | 286 (25.8) | 634 (57.1) | 149 (13.4) | 1,11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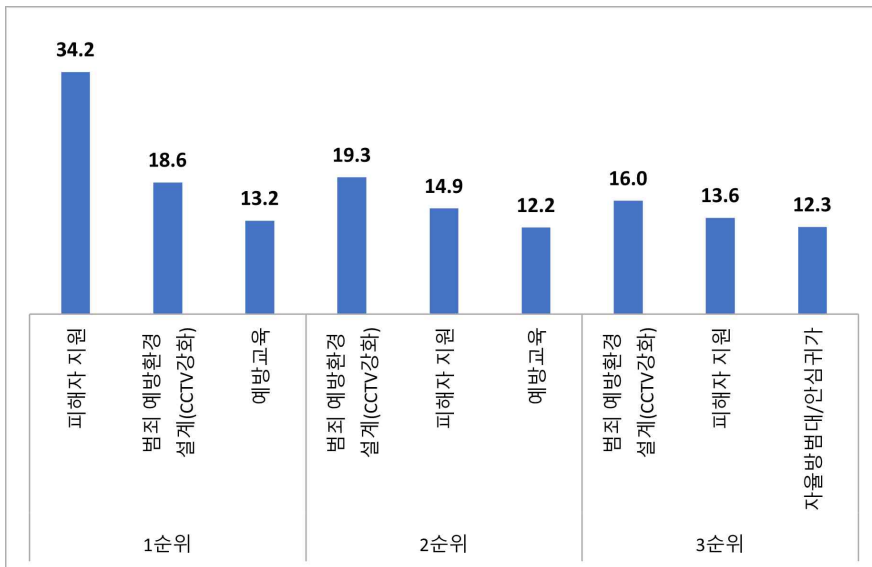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3) 인천광역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도

인천광역시에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정책 1~3순위 모두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가 강조되었다. 1순위 정책은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34.2%),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18.6%)와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성매매 예방교육(13.2%) 순이었다. 2순위, 3순위 정책에서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는 각각 19.3%, 16.0%로 나타난 반면,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14.9%, 13.6%로 나타났다.

[그림 III-43]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주요 안전정책

(n=1,110, 단위: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75>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안전정책

(n=1,110, 단위: 명, %)

| 항목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380 | 34.2 | 165 | 14.9 | 151 | 13.6 |
|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성매매 예방교육 | 146 | 13.2 | 135 | 12.2 | 83 | 7.5 |
|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 61 | 5.5 | 66 | 5.9 | 82 | 7.4 |
| 여성, 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 | 109 | 9.8 | 157 | 14.1 | 113 | 10.2 |
|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 31 | 2.8 | 26 | 2.3 | 28 | 2.5 |
| 자율방범대 및 안심귀가 동행지원 | 63 | 5.7 | 123 | 11.1 | 137 | 12.3 |
|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 | 207 | 18.6 | 214 | 19.3 | 178 | 16.0 |
| 자기방어훈련교육 운영 | 43 | 3.9 | 58 | 5.2 | 107 | 9.6 |
|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한 여성안심 화장실사업 | 48 | 4.3 | 115 | 10.4 | 126 | 11.4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공공시설물 여성친화 모니터링 | 11 | 1.0 | 29 | 2.6 | 39 | 3.5 |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사업 | 11 | 1.0 | 22 | 2.0 | 66 | 5.9 |
| 합계 | 1,110 | 100.0 | 1,110 | 100.0 | 1,110 |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달리 폭력 피해자들이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폭행 및 강도 피해, 밤 늦은 시간에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의 두려움,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이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요구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 단절 및 일상 회복에 수사기관과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에 해당하였으므로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각각 97.3%를 차지하였다.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폭력에 대처하기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폭력피해지원기관이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44] 인천광역시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필요 있음 비율)

(n=1,110, 단위: 명,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표 III-76> 인천광역시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n=1,110, 단위: 명, %)

| 항 목 | 전혀 필요없음 | 별로 필요없음 | 약간 필요있음 | 매우 필요있음 | 합계 |
|--|-------------|--------------|---------------|---------------|------------------|
|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TV, 인터넷, 공익광고) | 22 (2.0) | 110 (9.9) | 472 (42.5) | 506 (45.6) | 1,110 (100.0) |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강화 (CCTV 및 안전 벨 설치, 방법활동 등) | 9 (0.8) | 28 (2.5) | 211 (19.0) | 862 (77.7) | 1,110 (100.0) |
|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 17 (1.5) | 42 (3.8) | 225 (20.3) | 826 (74.4) | 1,110 (100.0) |
| 성범죄자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통한 가해자 검거 | 10 (0.9) | 19 (1.7) | 132 (11.9) | 949 (85.5) | 1,110 (100.0) |
| 수사기관(경찰 등)에서 성폭력 전담인력(전문가) 확충 | 9 (0.8) | 30 (2.7) | 245 (22.1) | 826 (74.4) | 1,110 (100.0) |
| 가해자 처벌 강화 | 8 (0.7) | 11 (1.0) | 99 (8.9) | 992 (89.4) | 1,110 (100.0) |
|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13 (1.2) | 17 (1.5) | 227 (20.5) | 853 (76.8) | 1,110 (100.0) |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 10 (0.9) | 20 (1.8) | 216 (19.5) | 864 (77.8) | 1,110 (100.0) |
| 사민 대상 성 인권 및 폭력 감수성(성폭력예방) 교육 확대 | 13 (1.2) | 55 (5.0) | 398 (35.9) | 644 (58.0) | 1,110 (100.0) |

출처: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폭력피해에 대처한 이후에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역량을 가진 사건 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와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못했기 때문에 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폭력에 대한 인지 및 폭력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가 필요하다.

3. 소결

최근 3년 동안(2019년 5월 ~ 2022년 4월)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27.4%(2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품평 다음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동영상, 글, 음성, SNS 등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이 11.6%(100명), ‘신체접촉(시도)’가 9.7%(84명)로 높은 피해 경험 비율을 보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직장상사가 36.7%로 가장 많고 직장동료 33.8%, 고객 20.3%, 고용주 14.1%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부하직원(2.6%)과 부하직원급 거래처 직원(1.0%)일 경우의 비율이 상사 또는 동료인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성별이 결합하여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대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66.2%는 피해경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 중 약 66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한 응답자들은 동료 및 상사에게 논의(14.8%),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 및 사과요구(13.4%)를 대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피해 대처 이후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들은 사건이나 신상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25.2%)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19.3%, 사건 담당자나 상담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며 일방적인 화해를 유도하였다는 응답은 17.4%, 나를 문제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역량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훈련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교내 성희롱은 ‘외모품평’(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이 18.3%로 다른 성희롱 피해 경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교제, 신체접촉, 성관계 요구 및 시도’(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장학금이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교제나 신체접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는 3.8%, ‘성관계(시도)’(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2.1% 였다.

최근 3년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일상통제’(파트너로부터 일상생활(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 및 연락 등)을 통제받은 경험이 있다)가 12.7%(1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대체로 통제로부터 시작되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통제와 관련된 피해경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동안 응답자가 직접 경험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전송받은 피해(PC, 핸드폰, 전화 등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사진, 영상, 소리, 글 등을 전해 받은 적이 있다) 경험이 4.6%로 가장 높았다. 본인과 관련한 성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성적 메시지 혹은 성적 비하, 공격하는 댓글, 문자 등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는 2.5%에 해당했으며,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해(나의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적이 있다)는 1.7%로 나타났다.

다른 성범죄 피해 경험과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가해자보다는 친분이 없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40.7%로 피해자 100명 중 약 41명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27.9%)는 피해자 100명 중 약 28명,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16.3%)는 약 16명에 해당하였다.

일생동안(지금까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0%(288명)에 해당한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4.1%(822명)로 조사되었다. 강제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288명)는 일생 동안 최대 1회에서 최대 30회, 평균 3.0회의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발생장소의 비율은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등(58.3%), 주택가 및 학교(36.5%), 집(33.0%) 순으로 나타났다.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 중에서 교통시설 내부(33.3%)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35.4%(약간 그렇다 30.2%, 매우 그렇다 5.2%)였다. 대중교통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은 부평구(40.7%), 미추홀구(38.7%), 서구(37.3%), 계양구(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가장 낮은 군·구는 동구(11.1%)였다.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7.9%(약간 그렇다 48.5%, 매우 그렇다 19.5%)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미추홀구(74.2%), 계양구(69.6%), 부평구(69.3%), 남동구(6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편이다.

인천광역시에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정책 1~3순위 모두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가 강조되었다. 1순위 정책은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34.2%),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18.6%)와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성매매 예방교육(13.2%) 순이었다. 2순위, 3순위 정책에서 범죄 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는 각각 19.3%, 16.0%로 나타난 반면,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14.9%, 13.6%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 단절 및 일상 회복에 수사기관과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에 해당하였으므로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IV.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발생 현황

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및 현황
2.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및 특성
3. 소결

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및 현황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집계한 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범죄 통계의 경우 경찰청에서 매해 발간되는 「범죄통계」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를 확인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하였다. 대검찰청이 매해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통해 검거 이후 기소 및 불기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범죄 통계는 종류에 따라 인천시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통계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공식통계인 경찰 통계를 기본으로 폭력 유형별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실적 통계를 보완적으로 분석하여 세부적인 피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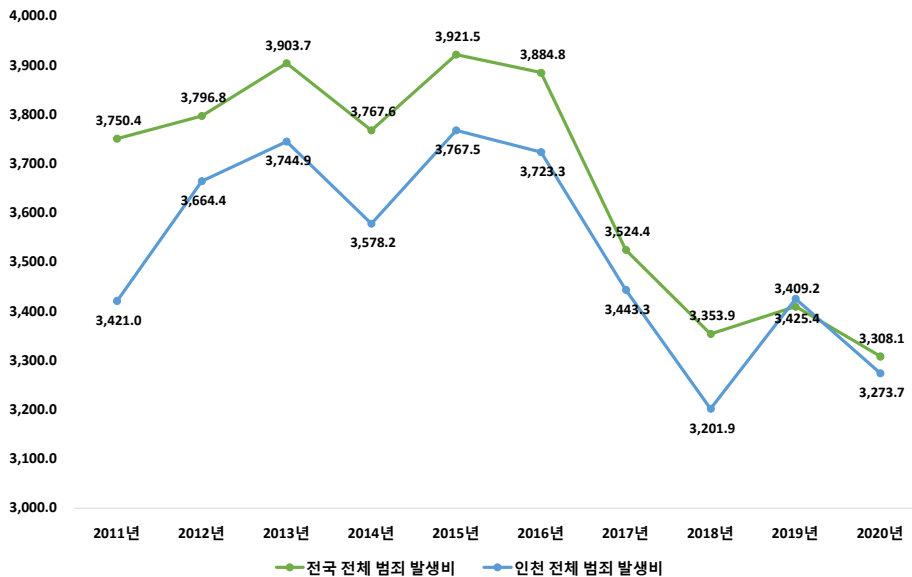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촬영, 유포협박, 사진합성 등에 의한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대상 폭력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폭력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트 폭력, 스토킹, 그루밍 등 친밀한 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새로운 방식의 폭력 유형과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폭력 유형과 사례가 보고되면서 여성폭력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함께 데이트 폭력, 스토킹, 그루밍 등이 새로운 피해 유형 분류에 포함되는 추세이다.

가. 전체범죄 발생추이 및 전국 성폭력 범죄 현황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714,579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30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20년의 전체 범죄 발생비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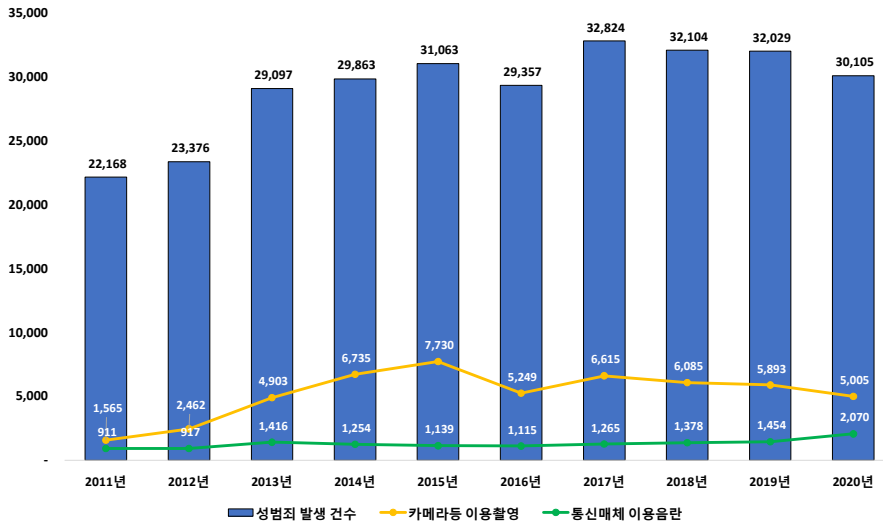
2020년 인천의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44,595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273.7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20년의 전체범죄 발생비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추이와 유사한 형태의 추이곡선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가장 많은 발생비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까지 인천의 전체 범죄발생비는 전국 평균보다는 1,500여명 낮은 추이를 이어가다가 2019년부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 전국 및 인천의 전체 범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출처: 각 연도별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림 IV-2]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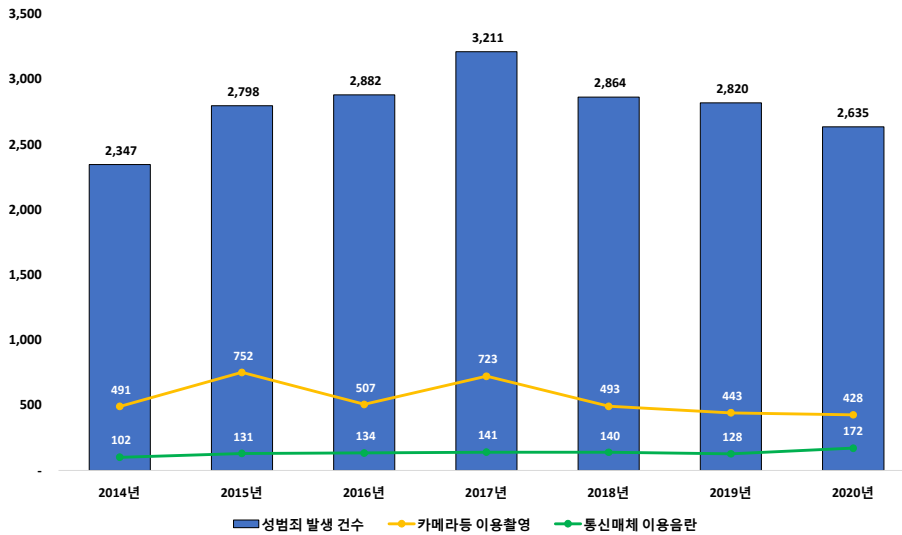
출처: 각 연도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의 전국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30,105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8.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전국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는 2019년에 비해 감소 하였으며,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5,005건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2,070건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10년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경우 매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2020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635건으로, 2019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 인천의 성폭력 범죄는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 인천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4년~2020년)



출처: 각 연도별 대검찰청 「범죄분석」

인천의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428건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172건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7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경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1) 경찰통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 2,510건에서 2020년 2,108건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전국 대비 발생률 또한 2017년 7.23%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 6.2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0년 71.6건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1>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인구 대비 발생률(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전국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34,703 (67.0) | 34,858 (67.3) | 33,621 (64.8) | 33,512 (64.7) |
| 인천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2,510 (85.1) | 2,370 (80.2) | 2,219 (75.0) | 2,108 (71.6) |
| 전국 대비 인천 비중 | 7.2 | 6.8 | 6.6 | 6.3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력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속범죄(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허위영상물편집·배포 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을 합한 값임

**인구대비 발생률은 각 연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공함

성폭력 범죄 유형별로 발생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추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유형에서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전국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
| 강간 | 전국 | 5,223 (10.1) | 5,293 (10.2) | 5,310 (10.2) | 5,313 (10.3) |
| | 인천▲ | 352 (12.0) | 362 (12.3) | 328 (11.1) | 339 (11.5) |
| | | 6.7% | 6.8% | 6.2% | 6.4% |
| 유사강간 | 전국 | 636 (1.2) | 776 (1.5) | 782 (1.5) | 823 (1.6) |
| | 인천▲ | 44 (1.5) | 44 (1.5) | 47 (1.6) | 45 (1.5) |
| | | 6.9% | 5.7% | 6.0% | 5.5% |
| 강제추행 | 전국 | 17,947 (34.7) | 17,053 (32.9) | 17,120 (33.0) | 15,344 (29.6) |
| | 인천 | 1,284 (43.6) | 1,163 (39.4) | 1,185 (40.1) | 978 (33.2) |
| | | 7.2% | 6.8% | 6.9% | 6.4% |
|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 전국 | 304 (0.6) | 356 (0.7) | 325 (0.6) | 237 (0.5) |
| | 인천 | 14 (0.5) | 19 (0.6) | 14 (0.5) | 14 (0.5) |
| | | 4.6% | 5.3% | 4.3% | 5.9% |
|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 전국 | 414 (0.8) | 639 (1.2) | 666 (1.3) | 686 (1.3) |
| | 인천▲ | 44 (1.5) | 72 (2.4) | 55 (1.9) | 67 (2.3) |
| | | 10.6% | 11.3% | 8.3% | 9.8% |

출처: 경찰범죄통계

*인구대비 발생률은 각 연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공함

경찰의 성폭력 범죄 검거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전에 발생한 범죄까지 검거하여 검거율이 100%를 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검거율이 99%에 달해 대부분의 범죄가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거인원의 성별을 살펴 보면 남성이 매해 전체 검거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여성의 비율이 9.16%, 성별불상이 5.24%로 높아져 남성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여성과 성별불상의 비율이 감소하고 남성의 비율이 증가했다.

<표 IV-3> 인천광역시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추이(2017~2020)

(단위: 건, 명, %)

| 연도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검거인원 | | | | |
|------|-------|-------|-------|-------|--------------|-----------------|--------------|------------|
| | | | | 계 | 여성 | 남성 | 불상 | 법인체 |
| 2017 | 2,510 | 2,521 | 100.4 | 2,696 | 118 (4.4) | 2,578 (95.6) | 55 (2.0) | 0 (0.0) |
| 2018 | 2,370 | 2,464 | 104.0 | 2,827 | 259 (9.2) | 2,568 (90.8) | 148 (5.2) | 2 (0.1) |
| 2019 | 2,219 | 2,201 | 99.2 | 2,533 | 164 (6.5) | 2,369 (93.5) | 75 (3.0) | 3 (0.1) |
| 2020 | 2,108 | 2,077 | 98.5 | 2,421 | 165 (6.8) | 2,256 (93.2) | 81 (3.4) | 2 (0.1)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력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속범죄(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허위영상물편집·배포 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을 합한 값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이후 처분 현황을 검찰청 통계로 살펴보면, <표 IV-4>에서 인천광역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국의 성폭력 범죄 기소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전국의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46.06%였으나 인천은 33.50%에 머물렀으며 2020년에는 전국이 48.63%인데 반해 인천은 45.90%의 기소율을 보인다. 다만 전국 기준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따라 인천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후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IV-4> 성폭력 범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2020년 | | |
|----|--------|--------|--------|--------|--------|--------|--------|--------|--------|--------|--------|--------|
|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 전국 | 31,190 | 14,365 | 15,092 | 31,013 | 14,375 | 14,344 | 32,347 | 14,663 | 15,148 | 31,010 | 15,081 | 13,169 |
| | | 46.1 | 48.4 | | 46.4 | 46.3 | | 45.3 | 46.8 | | 48.6 | 42.5 |
| 인천 | 3,070 | 1,028 | 1,902 | 2,904 | 1,226 | 1,470 | 2,895 | 1,207 | 1,460 | 2,786 | 1,280 | 1,273 |
| | | 33.5 | 62.0 | | 42.20% | 50.6 | | 41.7 | 50.4 | | 45.90% | 45.7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표 IV-5>에서 성폭력 범죄 유형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유형 전반에 걸쳐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은 여전히 기소율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성폭력 범죄 유형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단위: 건, %)

| 분류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
|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 소계 | 2,314 | 808 | 1,419 | 2,174 | 919 | 1,147 | 2,217 | 911 | 1,170 | 2,038 | 944 | 998 |
| | | 34.9 | 61.3 | | 42.3 | 52.8 | | 41.1 | 52.8 | | 46.3 | 49.0 |
| 강간 | 514 | 192 | 299 | 508 | 193 | 279 | 538 | 196 | 312 | 516 | 197 | 276 |
| | | 37.4 | 58.2 | | 38.0 | 54.9 | | 36.4 | 58.0 | | 38.2 | 53.5 |
| 강제추행 | 1,625 | 524 | 1,048 | 1,479 | 612 | 802 | 1,554 | 643 | 809 | 1,396 | 657 | 689 |
| | | 32.2 | 64.5 | | 41.4 | 54.2 | | 41.4 | 52.1 | | 47.1 | 49.4 |
| 간음 | 14 | 8 | 5 | 14 | 7 | 6 | 6 | 2 | 4 | 11 | 8 | 2 |
| | | 57.1 | 35.7 | | 50.0 | 42.9 | | 33.3 | 66.7 | | 72.7 | 18.2 |
| 강간 등 | 12 | 5 | 2 | 20 | 11 | 9 | 15 | 10 | 5 | 14 | 10 | 4 |
| | | 41.7 | 16.7 | | 55.0 | 45.0 | | 66.7 | 33.3 | | 71.4 | 28.6 |
| 간강 등 상해 | 20 | 12 | 8 | 21 | 17 | 4 | 15 | 11 | 2 | 16 | 12 | 4 |
| | | 60.0 | 40.0 | | 81.0 | 19.0 | | 73.3 | 13.3 | | 75.0 | 25.0 |
| 강간 등 치상 | 46 | 30 | 14 | 37 | 24 | 10 | 21 | 14 | 7 | 39 | 31 | 8 |
| | | 65.2 | 30.4 | | 64.9 | 27.0 | | 66.7 | 33.3 | | 79.5 | 20.5 |
| 강간 등 살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간 등 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강도 강간 등 | 2 | 2 | 0 | 4 | 3 | 1 | 4 | 4 | 0 | 13 | 9 | 4 |
| | | 100 | 0.0 | | 75.0 | 25.0 | | 100 | 0.0 | | 69.2 | 30.8 |
| 공중밀집 장소 추행 | 81 | 35 | 43 | 91 | 52 | 36 | 64 | 31 | 31 | 33 | 20 | 11 |
| | | 43.2 | 53.1 | | 57.1 | 39.6 | | 48.4 | 48.4 | | 60.6 | 33.3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2)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 추이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에 다시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증감이 있긴 하나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가정폭력의 상담 건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지만 5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테이트 폭력의 상담건수가 2016년 168건이었던데 반해 2021년에는 6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 정서에 대한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은 2019년부터 따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스토킹은 2019년 52건에서 2021년 16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디지털성범죄의 상담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 20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 12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21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개소한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전체 상담건수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68.6%에서 2017년 73.9%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69.5%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79.1%로 전체 상담 대비 젠더기반폭력 상담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있는데, 이 중에서 젠더기반폭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표 IV-6>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전체 상담건수(2016~2021)

(단위: 건)

| 구분 | 총계 | 가정 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데이트 폭력 | 가족 문제 | 이주 지원 | 정신 문제 | 심리 정서 | 부부 갈등 | 이혼 | 중독 | 성 상담 | 경제 문제 | 기관 문의 | 기타 |
|------|--------|--------|-------|-----|--------|-------|-------|--------------|-------|-------|--------|-----|------|-------|-------|-----|
| 2016 | 10,422 | 6312 | 509 | 159 | 168 | 327 | 3 | 425 | 800 | 275 | 166 | 78 | 45 | 29 | 537 | 589 |
| 2017 | 14,799 | 9,452 | 1,084 | 154 | 247 | 375 | 7 | 892 | 1,079 | 215 | 70 | 44 | 62 | 95 | 636 | 387 |
| 2018 | 17,867 | 10,512 | 1,277 | 121 | 513 | 397 | 7 | 1,210 | 862 | 95 | 85 | 43 | 36 | 67 | 1,864 | 778 |
| | | | | | | | | 심리정서 정신문제 | 스토킹 | | 디지털성범죄 | | 단순문의 | | | |
| 2019 | 16,225 | 10,401 | 737 | 104 | 554 | 498 | 26 | 1,571 | | 54 | | 71 | | 1,682 | | 527 |
| 2020 | 16,186 | 10,573 | 1,229 | 92 | 590 | 363 | 1 | 1,349 | | 71 | | 205 | | 1,220 | | 493 |
| 2021 | 16,988 | 10,402 | 1,687 | 114 | 624 | 417 | 3 | 1,974 | | 162 | | 125 | | 982 | | 498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9)

<표 IV-7>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유형별 현황: 젠더기반폭력

(단위: 건, %)

| 구분 | 합계 (비중)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 디지털 성범죄 |
|------|------------------|--------|-------|-----|-----------|-----|------------|
| 2016 | 7,148 (68.6) | 6312 | 509 | 159 | 168 | — | — |
| 2017 | 10,937 (73.9) | 9,452 | 1,084 | 154 | 247 | — | — |
| 2018 | 12,423 (69.5) | 10,512 | 1,277 | 121 | 513 | — | — |
| 2019 | 11,921 (73.5) | 10,401 | 737 | 104 | 554 | 54 | 71 |
| 2020 | 12,760 (78.8) | 10,573 | 1,229 | 92 | 590 | 71 | 205 |
| 2021 | 13,114 (79.1) | 10,402 | 1,687 | 114 | 624 | 162 | 125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9)

<표 IV-8> 인천광역시 긴급피난처 입소 현황

(단위: 명, 일, %)

| 연도 | 구분 | 보호인원 계 | 피해자 | 동반가족 | 보호일수 |
|------|-----|-----------|-----|------|-------|
| 2016 | 전체 | 719 | 482 | 237 | 1,523 |
| | 외국인 | 79 (11.0) | 53 | 26 | 175 |
| 2017 | 전체 | 627 | 428 | 199 | 1,565 |
| | 외국인 | 70(11.2) | 44 | 26 | 178 |
| 2018 | 전체 | 674 | 476 | 198 | 1,604 |
| | 외국인 | 88 (13.1) | 50 | 38 | 252 |
| 2019 | 전체 | 675 | 438 | 237 | 1,781 |
| | 외국인 | 94 (13.9) | 56 | 38 | 236 |
| 2020 | 전체 | 468 | 337 | 131 | 1,219 |
| | 외국인 | 71 (15.2) | 44 | 27 | 214 |
| 2021 | 전체 | 456 | 322 | 134 | 1,298 |
| | 외국인 | 76 (16.7) | 40 | 36 | 257 |

긴급 피난처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9명에서 2017년 627명으로 감소

했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468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피난처 보호 인원을 살펴보면 피해자만 입소한 경우도 있지만 동반 가족이 함께 입소한 경우도 있다. 같은 유형의 여성폭력을 경험했더라도 피해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가족이 함께 보호 받아야 할 상황도 있다.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 동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긴급피난처 입소자 중 외국인은 매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11.0% 이후 외국인의 비중은 매해 증가하여 2021년에는 1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체 보호인원이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 보호인원도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 현황

경찰이 집계한 112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국의 경우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 21,702건에서 2020년 16,41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신고율 또한 2017년 0.54%에서 2020년 0.43%로 감소했으며, 인천 또한 2017년 0.74%에서 2020년 0.56%로 감소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6개 광역시와 서울,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인구대비 신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9> 가정폭력 범죄 112 신고건수 및 인구대비 신고율(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112 신고건수 | 인구대비 신고율 | 112 신고건수 | 인구대비 신고율 | 112 신고건수 | 인구대비 신고율 | 112 신고건수 | 인구대비 신고율 |
| 전국 | 279,082 | 0.5 | 248,660 | 0.5 | 240,439 | 0.5 | 221,405 | 0.4 |
| 인천 | 21,702 | 0.7 | 20,029 | 0.7 | 19,674 | 0.7 | 16,410 | 0.6 |
| 서울 | 55,161 | 0.6 | 45,613 | 0.5 | 44,132 | 0.5 | 40,343 | 0.4 |
| 부산 | 16,185 | 0.5 | 15,174 | 0.4 | 13,938 | 0.4 | 11,436 | 0.3 |
| 대구 | 13,213 | 0.5 | 11,405 | 0.5 | 10,409 | 0.4 | 10,888 | 0.5 |
| 광주 | 6,875 | 0.5 | 6,748 | 0.5 | 5,250 | 0.4 | 4,774 | 0.3 |
| 대전 | 7,020 | 0.5 | 6,744 | 0.5 | 6,366 | 0.4 | 6,112 | 0.4 |
| 울산 | 6,809 | 0.6 | 5,818 | 0.5 | 5,990 | 0.5 | 4,804 | 0.4 |
| 경기 | 83,409 | 0.7 | 76,053 | 0.6 | 73,783 | 0.6 | 70,741 | 0.5 |

출처: 2021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조사(김홍미리 외, 2021)

가정폭력 범죄의 지역별 검거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2017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13.8%였으나 2020년 20.1%로 증가하였다. 인천광역시 또한 2017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11.6%에서 2020년 17.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전국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6개 광역시와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봐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인구대비 신고율이 가장 높게 났던 것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신고율은 높는데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표 IV-10>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검거율(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검거건수 |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 | 검거건수 |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 | 검거건수 |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 | 검거건수 |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 |
| 전국 | 38,583 | 13.8 | 41,905 | 16.9 | 50,277 | 20.9 | 44,459 | 20.1 |
| 인천 | 2,513 | 11.6 | 2,531 | 12.6 | 3,297 | 16.8 | 2,835 | 17.3 |
| 서울 | 6,721 | 12.2 | 6,981 | 15.3 | 8,145 | 18.5 | 7,460 | 18.5 |
| 부산 | 1,627 | 10.1 | 2,024 | 13.3 | 2,519 | 18.1 | 2,083 | 18.2 |
| 대구 | 1,797 | 13.6 | 2,064 | 18.1 | 2,302 | 22.1 | 1,974 | 18.1 |
| 광주 | 891 | 13.0 | 1,215 | 18.0 | 1,402 | 26.7 | 1,126 | 23.6 |
| 대전 | 1,597 | 22.7 | 1,655 | 24.5 | 1,651 | 25.9 | 1,681 | 27.5 |
| 울산 | 985 | 14.5 | 976 | 16.8 | 1,109 | 18.5 | 853 | 17.8 |
| 경기 | 12,116 | 14.5 | 12,887 | 17.2 | 15,896 | 21.5 | 14,057 | 19.9 |

출처: 2021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조사(김홍미리 외, 2021)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시, 검찰과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8조의2에서 긴급임시조치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다. 가정폭력 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청구 권한에 대해 담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2011년 제13차 개정에서 긴급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박복순, 2018).

전반적으로 112 신고 대비 긴급임시조치결정 비율은 높지 않다. 2017년에는

0.4%였고, 이후 2019년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1.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인천의 경우 112 신고 대비 긴급임시조치결정 비율이 2017년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1.4%로 전국보다 높게 나왔으며, 6개 시도와 서울,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4.0%), 서울(1.8%), 경기(1.6%)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도 다각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단기적인 흐름인지 장기적인 추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11>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긴급임시조치 결정 현황(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긴급 임시조치 결정 | 112 신고대비 비율 | 긴급 임시조치 결정 | 112 신고대비 비율 | 긴급 임시조치 결정 | 112 신고대비 비율 | 긴급 임시조치 결정 | 112 신고대비 비율 |
| 전국 | 1,183 | 0.4 | 1,787 | 0.7 | 3,447 | 1.4 | 2,567 | 1.2 |
| 인천 | 8 | 0.0 | 17 | 0.1 | 35 | 0.2 | 226 | 1.4 |
| 서울 | 393 | 0.7 | 341 | 0.7 | 710 | 1.6 | 737 | 1.8 |
| 부산 | 69 | 0.4 | 82 | 0.5 | 60 | 0.4 | 63 | 0.6 |
| 대구 | 16 | 0.1 | 48 | 0.4 | 156 | 1.5 | 102 | 0.9 |
| 광주 | 15 | 0.2 | 138 | 2.0 | 126 | 2.4 | 40 | 0.8 |
| 대전 | 235 | 3.3 | 262 | 3.9 | 270 | 4.2 | 247 | 4.0 |
| 울산 | 1 | 0.0 | 7 | 0.1 | 8 | 0.1 | 7 | 0.1 |
| 경기 | 256 | 0.4 | 728 | 1.3 | 1,655 | 2.9 | 875 | 1.6 |

출처: 2021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조사(김홍미리 외, 2021)

라. 인천광역시 성매매 발생 현황

1) 경찰 통계 성매매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성매매 발생 건수는 4,236건으로 2017년 11,19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천 또한 2017년 1,413건에서 2020년

464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명당 발생 건수 또한 전국과 인천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국 성매매 범죄 건수에서 인천의 비중은 2019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경찰의 단속 상황에 따라 통계에 집계되는 발생 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통계로 확인하는 발생건수가 실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발생 건수가 실제 성매매 발생의 감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김홍미리 외, 2021). 이에 성매매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담통계 등의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표 IV-12> 성매매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11,191 (21.6) | 7,456 (14.4) | 5,717 (11.0) | 4,236 (8.2) |
| 인천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1,413 (47.9) | 1,026 (34.7) | 540 (18.3) | 464 (15.8) |
| 전국 대비 인천 비중 | 12.6 | 13.8 | 9.5 | 11.0 |

출처: 경찰범죄통계

*인구대비 발생률은 각 연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공함

성매매의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건수는 전국과 인천 모두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서 발생 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0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기타 유형은 전국적으로 2019년 353건에서 2020년 573건, 인천도 2019년 22건에서 9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과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문제시 되고 있고, 이 연결고리가 사채 등의 불법 금융 산업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IV-13> 성매매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및 전국대비 인천 비중(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 전국 | 4,758 | 2,628 | 1,712 | 1,027 |
| | 인천 | 862 (18.1) | 312 (11.9) | 84 (4.9) | 49 (4.8)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 전국 | 27 | 26 | 23 | 16 |
| | 인천 | 1 (3.7) | 2 (7.7) | 2 (8.7) | 0 (0.0)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광고) | 전국 | 129 | 237 | 200 | 315 |
| | 인천 | 10 (7.8) | 92 (38.8) | 50 (25.0) | 39 (12.4)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전국 | 3,131 | 2,016 | 1,768 | 1,090 |
| | 인천 | 325 (10.4) | 190 (9.4) | 127 (7.2) | 79 (7.2)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아동·청소년) | 전국 | 5 | 7 | 2 | 0 |
| | 인천 | 1 (20.0) | 0 (0.0) | 0 (0.0) | 0 (0.0)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기타) | 전국 | 2071 | 1792 | 1352 | 941 |
| | 인천 | 77 (3.7) | 362 (20.2) | 237 (17.5) | 174 (18.5)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등) | 전국 | 74 | 57 | 47 | 57 |
| | 인천 | 4 (5.4) | 3 (5.3) | 3 (6.4) | 6 (10.5)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매매) | 전국 | 12 | 6 | 5 | 12 |
| | 인천 | 1 (8.3) | 0 (0.0) | 0 (0.0) | 1 (8.3)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 전국 | 523 | 203 | 190 | 137 |
| | 인천 | 96 (18.4) | 28 (13.8) | 11 (5.8) | 13 (9.5)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 전국 | 114 | 69 | 65 | 68 |
| | 인천 | 11 (9.6) | 11 (15.9) | 4 (6.2) | 11 (16.2)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타) | 전국 | 347 | 415 | 353 | 573 |
| | 인천 | 25 (7.2) | 26 (6.3) | 22 (6.2) | 92 (16.1) |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경찰통계와 비슷하게 전체 건수는 전국과 인천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국의 경우 2017년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2017년에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율 자체가 40%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14> 성매매 범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 2020년 | | |
|----|--------|-------|--------|--------|-------|-------|--------|-------|-------|-------|-------|-------|
|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 전국 | 20,601 | 7,142 | 12,178 | 14,507 | 5,317 | 8,223 | 12,430 | 4,620 | 7,012 | 8,498 | 3,214 | 4,279 |
| | | 34.7 | 59.1 | | 36.7 | 56.7 | | 37.2 | 56.4 | | 37.8 | 50.4 |
| 인천 | 2,219 | 731 | 1,394 | 1,590 | 578 | 927 | 1,318 | 445 | 796 | 869 | 297 | 517 |
| | | 32.9 | 62.8 | | 36.4 | 58.3 | | 33.8 | 60.4 | | 34.2 | 59.5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성매매 피해를 겪은 여성의 경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를 피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조차 단속 및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 한 건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노래방, 주점, 모텔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홍보를 공공연하게 하거나 현수막을 걸고 영업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 내부에서 단속과 조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건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성매매 업주들이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이로 인해 참고인이나 가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피해여성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호소나, 심각성에 대한 증명을 끊임없이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런 점에서 이중적인 어려움에 놓이기도 한다.

코로나 19는 성매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거리 두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유흥업소 영업을 하며 여성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2) 인천광역시 성매매 상담소 현황 분석

<표 IV-15> 성매매 피해 유형(2019~2021)

(단위: 명, %)

| 연도 | 총 인원 (명) | 전업형 | | 겸업형 (기존 산업형) | 위장형 (기존 산업형) | 출장형 | 온라인 | 해외 성매매 | 기타 | 미확인 |
|------|--------------|--------------|-------------|--------------------|--------------------------|--------------|---------------|------------|------------|------------|
| | | 집결지 | 오피스텔 | | | | | | | |
| 2019 | 314 100.0 | 78 (24.8) | 19 (6.1) | 70 (22.3) | 3 (1.0) | 23 (7.3) | 117 (37.3) | 0 (0.0) | 0 (0.0) | 4 (1.3) |
| | | | | | 키스방 등 불법 변종 성매매 | 조건 만남 | | | | |
| 2020 | 286 100.0 | 69 (24.1) | 9 (3.1) | 73 (25.5) | 4 (1.4) | 59 (20.6) | 61 (21.3) | 0 (0.0) | 4 (1.4) | 7 (2.4) |
| 2021 | 242 100.0 | 52 (21.5) | 10 (4.1) | 73 (30.2) | 9 (3.7) | 86 (35.5) | 0 (0.0) | 0 (0.0) | 7 (2.9) | 5 (2.1)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지원시설 통계 포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성매매 상담소와 지원 시설을 통해 접수된 피해 인원은 2019년 314명에서 2020년 286명, 2021년 242명으로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유흥업소 운영이 제한되었고,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 간 접촉 자체가 줄어들고, 성매매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성매매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2년부터 거리

■ ■

두기가 완화되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5>을 통해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검업형 비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성매매 유형과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성매매의 방식도 업주가 업소에 데려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앱을 여러 개 운영하며 1:1로 연결해주며 수수료를 걷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남성이 돈을 주지 않고 폭행을 가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는 등의 일도 많아지고 있다.

성매매 상담 내용은 2020년부터 기준이 바뀌어 일괄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상담건수는 2019년 2,536건, 2020년 3,066건, 2021년 5,543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는 사례는 줄었지만 상담 건수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에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집결지가 폐쇄되면서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이 상담소로 연결되어 상담받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13건과 684건으로 의료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1년에는 1,063건으로 심리·정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 혹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상담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 방식이 업소에서 업주가 선불금을 주는 방식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제3금융이나 사채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문제가 줄어들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V-16> 성매매 상담 내용(2019~2021)

(단위: 건)

| 연도 | 구분 | 계 | 탈 성매매 | 빚 문제 | 폭행 문제 | 경찰 조사 | 법 률 문 제 | 진로 (취업 등) | 건강 의료 문제 | 가족 문제 | 거주 문제 | 사회시설낙인 | | |
|------|-----|-------|----------|-------------------------|------------------|--------------|---------------------|-----------------------------|-------------------|----------|----------|--|----------|----------------------------|
| 2019 | 내국인 | 2,521 | 112 | 129 | 43 | 49 | 267 | 403 | 707 | 188 | 187 | 31 | - | |
| | 외국인 | 15 | 0 | 0 | 0 | 0 | 0 | 2 | 6 | 0 | 4 | 2 | - | |
| 연도 | 구분 | 계 | | 채무 (선불금 불법 채권) | 안전 (폭행 마약) | 법률 (조작소송) | 생 계 등 (취업) | 정 보· 자 원 연 계 | 의료 (질병· 간장) | 가족 관련 | 거주 관련 | 학교 등 (친구 등 대인 관계 학업 생활) | 심리 정서 | 디 지 털 성 범 죄 |
| 2020 | 내국인 | 3,060 | - | 171 | 75 | 256 | 457 | 335 | 684 | 190 | 221 | 4 | 584 | 8 |
| | 외국인 | 6 | - | 1 | 1 | 1 | 1 | 0 | 0 | 0 | 1 | 0 | 0 | 0 |
| 2021 | 내국인 | 5,543 | - | 186 | 84 | 493 | 687 | 573 | 1,063 | 330 | 404 | 69 | 1,630 | 4 |
| | 외국인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표 IV-17> 성매매 알선고리 및 성매매 유형(2020~2021)

(단위: 명, %)

| 연도 | 합계 | 보도방/브로커 | 소개업자/직업소개소등 | 사채업자/일수,대부등 | 업주 | 업소관계자/업주제외 | (남자)친구,지인 | 보호자,가족 | 지역정보지 | 구인구직사이트 | | 채팅앱(DM등) | 기타 | 미파악 |
|------|-----|---------|-------------|-------------|------|------------|-----------|--------|-------|-----------|---------|----------|-----|-----|
| | | | | | | | | | | 성매매알선.사이트 | 일반취업사이트 | | | |
| 2020 | 286 | 10 | 28 | 4 | 29 | 4 | 103 | 6 | 2 | 7 | 4 | 71 | 1 | 17 |
| | 100 | 3.5 | 9.8 | 1.4 | 10.1 | 1.4 | 36.0 | 2.1 | 0.7 | 2.4 | 1.4 | 24.8 | 0.3 | 5.9 |
| 2021 | 242 | 12 | 17 | 3 | 15 | 8 | 103 | 1 | 5 | 5 | 6 | 44 | 5 | 18 |
| | 100 | 5.0 | 7.0 | 1.2 | 6.2 | 3.3 | 42.6 | 0.4 | 2.1 | 2.1 | 2.5 | 18.2 | 2.1 | 7.4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성매매 알선고리는 2020년부터 상담소에서 취합하기 시작했다. 성매매 상담소에 접근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매매로 유입되는지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김홍미리 외, 2021).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것으로 2020년 36.0%, 2021년 42.6%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채팅 앱을 통한 것으로 2020년 24.8%, 2021년 18.2%로 나타난다.

성매매 피해자의 나이는 2020년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연령 분포를 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3년간 피해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의 분포가 넓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0대 미만과 40대 이상의 피해자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피해자 비중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24.5%로 증가하였고, 2021년 5.0%로 다시 감소하였고, 40대 이상의 비중은 2019

년 16.9%, 2020년 22.0%, 2021년 2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년 여성의 성매매 유입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왔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년남성 혹은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중·노년 여성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 성매매는 중·노년 여성의 빈곤 문제와도 연결된다(이호선, 2011; 김주희, 2018 재인용). 하지만 중년 여성의 성매매는 단순히 성구매자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엮여있다. 김주희(2018)는 중·노년 여성의 성매매 시장 진입은 가족의 영역과 성매매 영역이 “여성의 성역할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상호 보충적 연관”을 맺고 있다고 언급한다. 경제위기와 가계부채로 인해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야 하는 중·노년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많지 않고, 가사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이들은 성매매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고와 노동력 축소를 통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만큼 이러한 영향이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비해 피해자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특히 그러한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여성의 몸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接客 과정에서 마약과 약물에 노출되기 쉬워 이로 인한 성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주들을 통해 제3금융이나 사채에 연결되어 선불금을 빌리고 이 채무가 계속 이어지며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 채무로 인한 취약성 때문에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핸드폰 사기 등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다른 유형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 성매매 산업 이면의 사회문제와 그 산업을 작동하게 하는 구조적 형태를 보지 않고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성매매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Sanders, T., Maggie, O., & Pitcher, J., 2017). 따라서 성매매 알선 경로를 확인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성매매 시장이 작동하는 거대한 사회 구조를 확인하고, 이

에 근거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표 IV-18> 성매매 피해자 나이(2019-2021)

(단위: 명, %)

| 연도 | 계 (명) | 13세 이하 | 14세~ 16세 | 17세~ 19세 | 20세~ 29세 | 30세~ 39세 | 40세~ 49세 | 50세~ 59세 | 60세 이상 | 미합 |
|------|--------------|------------|-------------|--------------|--------------|---------------|--------------|-------------|------------|-------------|
| 2019 | 314 100.0 | 0 (0.0) | 19 (6.1) | 33 (10.5) | 96 (30.6) | 107 (34.1) | 41 (13.1) | 8 (2.5) | 4 (1.3) | 6 (1.9) |
| 2020 | 286 100.0 | 0 (0.0) | 27 (9.4) | 43 (15.0) | 83 (29.0) | 66 (23.1) | 54 (18.9) | 8 (2.8) | 1 (0.3) | 4 (1.4) |
| 2021 | 242 100.0 | 2 (0.8) | 1 (0.4) | 9 (3.8) | 71 (29.3) | 70 (28.9) | 45 (18.6) | 23 (9.5) | 4 (1.7) | 17 (7.0)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지원시설 통계 포함

<표 IV-19> 성매매 상담방법 (2019-2021)

(단위: 건, %)

| 구분 | 연도 | 계 | 내방 | 방문 | 전화 | 통신매체 | 기타 |
|-----|------|------|---------------|----------------|-----------------|---------------|------------|
| 성매매 | 2019 | 2536 | 726 (28.6) | 573 (22.6) | 1,231 (48.5) | 6 (0.2) | 0 (0.0) |
| | 2020 | 3066 | 521 (17.0) | 657 (21.4) | 1,495 (48.8) | 393 (12.8) | 0 (0.0) |
| | 2021 | 5543 | 887 (16.0) | 1400 (25.3) | 2750 (49.6) | 506 (9.1) | 0 (0.0)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상담 방법은 크게 변화했는데, 각 상담소별 상담방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화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2021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내방 혹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의 경우, 집결지가 폐쇄되면서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이 상담소로 연계되며 상담한 건

수가 있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표 IV-20> 성매매 상담소 상담경로

(단위: 명, %)

| 연도 | 계 | 성매매 방지 기관 | 유관 기관 | 본인 (정보 취득) | 가족 및 친족 | 동료, 친구, 아웃 자신 등 | 학교 | 검경 찰 별 기관 | 법원 | 아웃 러치 | 기타 |
|------|------|-----------------|----------|------------------|---------------|-----------------------------|-----|--------------------|-----|----------|-----|
| 2020 | 286 | 110 | 27 | 81 | 9 | 26 | 1 | 19 | 3 | 8 | 2 |
| | 1000 | 38.5 | 9.4 | 28.3 | 3.1 | 9.1 | 0.3 | 6.6 | 1.0 | 2.8 | 0.7 |
| 2021 | 242 | 95 | 25 | 72 | 3 | 24 | 1 | 7 | 6 | 3 | 6 |
| | 1000 | 39.3 | 10.3 | 29.8 | 1.2 | 9.9 | 0.4 | 2.9 | 2.5 | 1.2 | 2.5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05)

*2019년의 경우 단위가 상담 건수로 집계되어 비교가 어려움

성매매 상담소의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성매매 방지기관을 통한 비중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38.5%,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결국 성매매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성매매 상담소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인 ‘강강술래’에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공방 등을 운영하며 자활을 돕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이들이 성매매로 겪은 피해에 대한 치유를 넘어 성매매에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여성들이 성매매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늘려주어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자활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마.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1) 경찰 통계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

<표 IV-21> 디지털 성폭력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
(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전국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10,179 (19.7) | 10,741 (20.7) | 9,418 (18.2) | 11,109 (21.4) |
| 인천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772 (26.2) | 710 (24.0) | 590 (20.0) | 665 (22.6) |
| 전국 대비 인천 비중 | 7.6 | 6.6 | 6.3 | 6.0 |

출처: 경찰범죄통계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 등을 합한 값임

**인구대비 발생률은 각 연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공함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772건에서 2019년 59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665건으로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 대비 인천의 비중은 2017년 7.58%에서 2020년 5.99%로 매 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그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음란물 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경향인지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

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에서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IV-22>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2017~2020)

(단위: 건, %)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음란물 유포 | 전국 | 1,986 3.84 | 2,463 4.75 | 1,482 2.86 | 1,409 2.72 |
| | 인천 | 68 (2.3) | 182 (6.2) | 98 (3.3) | 61 (2.1) |
| | 비중 | 3.4 | 7.4 | 6.6 | 4.3 |
| 카메라등이용 촬영, 반포 등 | 전국 | 6,465 (12.5) | 5,925 (11.4) | 5,764 (11.1) | 4,881 (9.4) |
| | 인천 | 599 (20.3) | 358 (12.1) | 353 (12.0) | 299 (10.2) |
| | 비중 | 9.3 | 6.0 | 6.1 | 6.1 |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전국 | 1,249 (2.4) | 1,365 (2.6) | 1,437 (2.8) | 2,047 (4.0) |
| | 인천 | 93 (3.2) | 91 (3.1) | 88 (3.0) | 123 (4.2) |
| | 비중 | 7.4 | 6.7 | 6.1 | 6.0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전국 | 479 (0.9) | 988 (1.9) | 735 (1.4) | 2,621 (5.1) |
| | 인천 | 12 (0.4) | 79 (2.7) | 51 (1.7) | 176 (6.0) |
| | 비중 | 2.5 | 8.0 | 6.9 | 6.7 |
|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 전국 | | | | 31 |
| | 인천 | | | | 1 |
| | 비중 | | | | 3.2 |
| 촬영물등이용 협박, 강요 등 | 전국 | | | | 120 |
| | 인천 | | | | 5 |
| | 비중 | | | | 4.2 |

출처: 경찰범죄통계

*인구대비 발생률은 각 연도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공함

‘허위영상물편집, 반포 등’과 ‘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 등’은 2020년부터 새롭게 분류된 범죄유형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이 세분화되고,

그 방법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2017~2020)

(단위: 건, %)

| 분류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
|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전체 | 기소 | 불기소 |
| 소계 | 777 | 234 30.1 | 488 62.8 | 731 | 330 45.1 | 308 42.1 | 660 | 303 45.9 | 270 40.9 | 706 | 329 46.6 | 250 35.4 |
| 카메라등 이용촬영 | 550 | 157 28.5 | 358 65.1 | 486 | 214 44.0 | 213 43.8 | 448 | 202 45.1 | 182 40.6 | 477 | 209 43.8 | 174 36.5 |
| 통신매체 이용음란 | 146 | 42 28.8 | 87 59.6 | 154 | 64 41.6 | 59 38.3 | 148 | 70 47.3 | 57 38.5 | 179 | 89 49.7 | 62 34.6 |
| 공중밀집 장소추행 | 81 | 35 43.2 | 43 53.1 | 91 | 52 57.1 | 36 39.6 | 64 | 31 48.4 | 31 48.4 | 33 | 20 60.6 | 11 33.3 |
| 허위영상 물권접반 포등 | | | | | | | | | | 1 | 0 0.0 | 1 100 |
| 촬영물등 이용협박 강요 | | | | | | | | | | 16 | 11 68.8 | 2 12.5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인천광역시의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소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2017년 기소율이 각각 28.5%와 28.8%였으나 2020년 기소율이 43.8%와 49.7%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 요건이 구체화 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이다.

<표 IV-24>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1,411 | 1,250 | 1,130 | 1,109 | 1,249 | 1,365 | 1,437 | 2,047 |
| 인천 발생건수 | 142 | 76 | 98 | 95 | 93 | 91 | 88 | 123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2.8 | 2.4 | 2.2 | 2.2 | 2.4 | 2.6 | 2.8 | 4.0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4.9 | 2.6 | 3.4 | 3.2 | 3.2 | 3.1 | 3.0 | 4.2 |
| 전국 검거율 | 90.8 | 94.8 | 94.2 | 93.9 | 91.4 | 89.2 | 85.2 | 83.1 |
| 인천 검거율 | 129.6 | 119.7 | 99.0 | 90.5 | 89.2 | 101.1 | 101.1 | 83.7 |

출처: 경찰범죄통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한 범죄를 의미한다. 전국의 경우 2013년 1411건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047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2013년 142건 발생한 이후 2014년 76건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소폭의 증감을 보였으나 2020년 123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집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 사진, 영상 등을 발송하는 것으로 범죄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한 해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향후 2021년과 2022년의 통계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거율의 경우 대체로 90% 이상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 9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0년 83.1%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인다. 인천의 경우에도 대체

로 90% 이상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83.7%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표 IV-25>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4,841 | 6,635 | 7,615 | 5,170 | 6,465 | 5,925 | 5,764 | 4,881 |
| 인천 발생건수 | 158 | 353 | 562 | 396 | 599 | 358 | 353 | 299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9.5 | 12.9 | 14.8 | 10.00 | 12.5 | 11.4 | 11.1 | 9.4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5.5 | 12.2 | 19.2 | 13.5 | 20.3 | 12.1 | 11.9 | 10.2 |
| 전국 검거율 | 91.0 | 96.1 | 97.6 | 94.6 | 96.2 | 94.7 | 94.4 | 94.6 |
| 인천 검거율 | 132.9 | 111.0 | 110.0 | 108.1 | 103.7 | 114.0 | 104.0 | 104.3 |

출처: 경찰범죄통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영상 및 사진을 촬영·유포·반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강요한 범죄를 의미한다. 전국의 경우 2013년 4841건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인천 또한 2013년 158건 이후 증가하던 발생건수가 2017년 599건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 이전에는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의 신고 등으로 범죄가 증가하다 단속 및 처벌의 강화로 인해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거율의 경우 전국은 90% 이상의 검거율을 보이며 인천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검거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검거율은 당해연도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경찰 검거건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전 년도에 발생한 범죄를 이후에 검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

영하고 유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공유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사람, 이를 다시 공유하여 2차, 3차, n차에 걸쳐 재유포하여 공유하는 사람,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모두를 통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지속된다. 이 범죄 고리가 굴러가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겪음에도 이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이트는 이 영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하고 영상을 재유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영상을 내려받고 시청할수록 경제적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IP를 우회하거나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유포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겪게 된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천의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는 2021년에 개소하여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기관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기관들 간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이 연계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되새기게 되며 지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센터 안에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신고 및 수사 지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치유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V-2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원 건수

| 연도 | 총 지원 건수 | 상담 지원 | 사건 지원 | | | | | 피해회복지원 | | | | 삭제지원 | |
|------|-------------------|----------|----------|----------|----------|----------|----------------------|------------------|------------------|------------------|----------------------|----------|----------|
| | | | 서류 작성 | 동행 지원 | 법률 연계 | 법률 상담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전 문 심 리 | 의 료 지 원 | 다 독 다 독 | 피해 회복 진행 점검 | 삭제 요청 | 모니 터링 |
| 2021 | 308,870 (96명) | 1,148건 | 19 | 37 | 10 | 0 | 439 | 170 | 33 | 78 | 419 | 4,426 | 302,091 |
| | | | 505건 | | | | | 700건 | | | | 306,517건 | |
| 2022 | 210,433 (108명) | 1,488건 | 73 | 46 | 9 | 51 | 668 | 384 | 187 | 70 | 404 | 3,433 | 203,620 |
| | | | 847건 | | | | | 1,045건 | | | | 207,053건 | |

*집계기간: 2021. 6. 14. ~ 2022. 8. 31. 누적명수

<표 IV-26>을 보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지원건수는 2021년 308,870건, 2022년 8월까지 210,433건으로 나타난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사건 지원과 피해회복지원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신고 및 사건 지원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하면 오히려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주저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지원과정에 포함된다. 센터에서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지원한다. 고소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고소장 제출과 진술 과정에 동행하고, 그 과정에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센터의 자문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한 공문을 보내 사건이 실제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사건 지원에 포함된다. 특히 사건이 수사와 사법 과정을 거치

는 과정은 이 과정이 익숙치않은 피해자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총 지원건수 중 삭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될 경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영상이 유포되기 때문에 지원이 한 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삭제 지원은 피해자가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이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삭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센터에서 직접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사이트나 업체에 연락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IV-2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

| 연도 | 총 지원건수 | 구분 | 계 | 성인 사이트 | P2P | 소셜 미디어 | 검색엔 진 | 블로그, 커뮤니티 | 기타* |
|------|-----------|---------------|--------------------|-------------------|------------|------------------|------------------|--------------|----------------|
| 2021 | 306,517 | 삭제 요청 | 4,426 (100.0) | 2,024 (45.7) | 0 (0.0) | 2,359 (53.3) | 2 (0.0) | 41 (1.0) | 0 (0.0) |
| | | 요청 비 완료 | 3,154 (71.3) | 1,288 (63.6) | 0 (0.0) | 1,855 (78.6) | 0 (0.0) | 11 (26.8) | 0 (0.0) |
| | | 모니 터링 | 302,091 (100.0) | 267,148 (88.4) | 0 (0.0) | 33,164 (11.0) | 1,335 (0.4) | 444 (0.2) | 0 (0.0) |
| 2022 | 207,053 | 삭제 요청 | 3,433 (100.0) | 369 (10.7) | 0 (0.0) | 2,851 (83.1) | 65 (1.9) | 54 (1.6) | 94 (2.7) |
| | | 요청 비 완료 | 1,922 (56.0) | 93 (25.2) | 0 (0.0) | 1,743 (61.1) | 13 (20.0) | 51 (94.4) | 22 (23.4) |
| | | 모니 터링 | 203,620 (100.0) | 119,828 (58.8) | 0 (0.0) | 44,310 (21.8) | 36,026 (17.7) | 850 (0.4) | 2,606 (1.3) |

*웹하드, 아카이브,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집계기간: 2021. 6. 14. ~ 2022. 8. 31. 누적명수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삭제 요청을 한 플랫폼 중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성인 사이트의 비중이 높다. 센터에서는 SNS

뿐만 아니라 주요한 성인 사이트를 위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은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높지만, 모니터링에서는 성인 사이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플랫폼을 모니터링 할 때에는 AI나 시스템의 개발로 영상의 DNA를 추출하고 해시 값을 대조하여 이를 통해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여전히 모니터링의 많은 부분은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삭제 지원을 담당하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피해 지원 센터의 삭제 요청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의 업로드와 유포에 책임이 있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가 가해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지원 기관이 삭제를 부탁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치유 지원은 치료비 지원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는 비용 또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맞춰 요가, 명상, 영화, 원예 등 총 1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8>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 연도 | 구분 | 총 건수 | 불법 촬영 | 비동의 유포 | 유포 협박 | 유포 불안 | 사진 합성 | 사이버 괴롭힘 | 온라인 그루밍 | 기타 |
|------|-------|--------------|--------------|--------------|--------------|--------------|------------|-------------|--------------|--------------|
| 2021 | 제1피해* | 96 (100) | 20 (20.8) | 9 (9.4) | 12 (12.5) | 12 (12.5) | 2 (2.1) | 6 (6.3) | 22 (22.9) | 13 (13.5) |
| | 전체중복 | 142 (100) | 23 (16.2) | 12 (8.5) | 20 (14.1) | 35 (24.6) | 2 (1.4) | 7 (4.9) | 22 (15.5) | 21 (14.8) |
| 2022 | 제1피해* | 108 (100) | 32 (29.6) | 14 (13.0) | 15 (13.9) | 10 (9.3) | 2 (1.9) | 10 (9.2) | 14 (12.9) | 11 (10.2) |
| | 전체중복 | 168 (100) | 39 (23.2) | 25 (14.9) | 25 (14.9) | 31 (18.4) | 3 (1.8) | 13 (7.7) | 15 (9.0) | 17 (10.1) |

*제1피해는 피해자의 가장 주된 피해를 의미함

**집계기간: 2021. 6. 14. ~ 2022. 8. 31. 누적명수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를 기준으로 2021년에는 유포

불안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 16.2%, 온라인 그루밍 15.5%로 나타난다. 2022년에는 불법촬영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포 불안 18.4%, 비동의 유포와 유포협박이 14.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난다. 피해자의 가장 주된 피해를 의미하는 제1피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20.8%로 높게 나타난다. 2022년에는 불법촬영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 그루밍 12.9% 순으로 나타난다. 제1피해에서는 유포불안이 낮게 나타나나, 전체 피해에서 유포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은 피해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전반적으로 유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29>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

| 연도 | 구분 | 합계 | 연령별 | | | | | | |
|------|----|----------------|------------|--------------|--------------|--------------|-------------|------------|-------------|
| | |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연령 미상 |
| 2021 | 여 | 78 (81.2) | 1 | 31 | 29 | 6 | 6 | 2 | 3 |
| | 남 | 18 (18.8) | 0 | 5 | 3 | 1 | 2 | 1 | 6 |
| | 합계 | 96 (100.0) | 1 (1.0) | 36 (37.5) | 32 (33.3) | 7 (7.3) | 8 (8.3) | 3 (3.1) | 9 (9.4) |
| 2022 | 여 | 92 (85.2) | 2 | 32 | 32 | 12 | 7 | 3 | 4 |
| | 남 | 16 (14.8) | 0 | 5 | 5 | 1 | 1 | 2 | 2 |
| | 합계 | 108 (100.0) | 2 (1.9) | 37 (34.2) | 37 (34.3) | 13 (12.0) | 8 (7.4) | 5 (4.6) | 6 (5.6) |
| 합계 | 여 | 170 (83.3) | 3 | 63 | 61 | 18 | 13 | 5 | 7 |
| | 남 | 34 (16.7) | 0 | 10 | 8 | 2 | 3 | 3 | 8 |
| | 합계 | 204 (100.0) | 3 (1.5) | 73 (35.8) | 69 (33.8) | 20 (9.8) | 16 (7.8) | 8 (3.9) | 15 (7.4) |

*총 204명 중 78명 종결(여 60명, 남 18명), 126명 지원 중

**집계기간: 2021. 6. 14. ~ 2022. 8. 31. 누적명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0대와 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에도 능숙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현재도 제도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유형과 방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2.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 및 특성

가. 이주여성

<표 IV-30> 이주여성 상담 유형

(단위: 건)

| 연도 | 계 | 가정 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스톡킹 | 데이트 폭력 | 이혼 | 부부 갈등 | 상담 | 가족 문제 | 중독 | 기타 |
|------|-------|----------|-----|-----|-----|-----------|-----|----------|----|----------|----|-------|
| 2019 | 566 | 139 | 68 | 21 | 0 | 6 | 97 | 32 | 1 | 21 | 2 | 179 |
| 2020 | 3,855 | 1,291 | 179 | 0 | 22 | 199 | 550 | 103 | 0 | 125 | 0 | 1,386 |
| 2021 | 4,339 | 1,050 | 240 | 8 | 4 | 55 | 937 | 81 | 1 | 53 | 9 | 1,901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5.)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가족과 관계 있는 유형에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주여성이 대부분이 혼인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시민권 및 관련 비자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남편이 이용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존재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존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자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권을 압수하고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성매매 등을 통해 이주여성을 착취하기도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혼을 하거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한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이주여성들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외국 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에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주여성들 또한 브로커로부터 여권을 뺏기는 데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이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여성이 폭력 행위를 겪고,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그 경로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주여성

한 문제는 일면적인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은 2019년 6월에 개소하였다. 상담과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8월 이후여서 2019년 통계는 5개월 정도의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전체 수치가 증가한 것은 실질적인 폭력 건수가 증가했다기보다 지원기관에서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수치화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 또한 2020년도부터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주여성 피해가 접수되면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소스콜(SOS C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여성 당사자를 교육시켜서 통역 상담이 가능한 상담원으로 교육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의 협조가 늘고 이주여성 내부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과악 능력의 확대되면서 2021년도부터 이주여성 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망이 보다 정교해진 것이 피해자 지원통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피해자 지원통계의 분류 항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주는 부분이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을 포괄하지 못해서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통계가 많은 편이다. 기타항목으로 자녀 양육, 혐오, 경제곤란, 체류, 귀화, 출입국 관련 행정이나 민원서류 등 민원행정관련 도움 등이 포함된다.

나. 장애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2013년 523건, 2014년 541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2020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천의 경우 매해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거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인천 모두 90% 이상의 검거율을 보

1) 관계자 면담을 통해 2020년 단순지원 사례를 지원통계로 산정하지 않다가 다른 지원기관 방문을 통해 실적 산출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어 통일성을 위해 단순지원도 실적으로 포함시켜 숫자가 증가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고 있으며, 검거율이 100%가 넘는 해도 있어 이전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이후에라도 검거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IV-31>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523 | 541 | 466 | 394 | 352 | 422 | 368 | 382 |
| 인천 발생건수 | 23 | 32 | 23 | 19 | 14 | 20 | 15 | 19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1.0 | 1.1 | 0.9 | 0.8 | 0.7 | 0.8 | 0.7 | 0.7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0.8 | 1.1 | 0.8 | 0.7 | 0.5 | 0.7 | 0.5 | 0.7 |
| 전국 검거율 | 96.6 | 96.5 | 97.2 | 97.5 | 97.7 | 96.2 | 96.7 | 97.6 |
| 인천 검거율 | 156.5 | 96.9 | 100.0 | 105.3 | 121.4 | 105.0 | 113.3 | 94.7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간·간음, 준강간등 합계

<표 IV-3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286 | 320 | 347 | 363 | 386 | 378 | 371 | 349 |
| 인천 발생건수 | 12 | 17 | 19 | 12 | 11 | 13 | 12 | 12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0.6 | 0.6 | 0.7 | 0.7 | 0.8 | 0.7 | 0.7 | 0.7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0.4 | 0.6 | 0.7 | 0.4 | 0.4 | 0.4 | 0.4 | 0.4 |
| 전국 검거율 | 94.1 | 94.4 | 98.8 | 97.2 | 97.7 | 95.5 | 97.3 | 99.1 |
| 인천 검거율 | 100.0 | 94.1 | 105.3 | 100.0 | 100.0 | 100.0 | 91.7 | 108.3 |

출처: 경찰범죄통계

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지원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실질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상담소의 운영이 제한되며 나타난 흐름으로 보인다. 비장애를 포함한 전체에서는 성폭력 상담이 전체 상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 비해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상담보다는 기타에 대한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 유무에 따라 기타 상담의 분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상담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으나 성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거나 취업 및 건강 등에 대한 문의도 기타 상담에 집계된다.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관련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데 있어 유형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타 상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상담소가 제공하는 멘토링이 기타 상담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지원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33> 성폭력상담소 지원 건수 및 상담 인원(2019~2021)

(단위: 건, 명, %)

| 연도 | 구분 | 계 | | 성폭력 상담 | | 기타 상담 | |
|------|----|-------|-----|----------------|----------------|----------------|----------------|
| | | 건 | 명 | 건(명) | % | 건(명) | % |
| 2019 | 전체 | 2,981 | 935 | 1,733 (397) | 58.5 (42.5) | 1,248 (538) | 42.1 (57.5) |
| | 장애 | 1,046 | 237 | 431 (64) | 41.2 (27.0) | 615 (173) | 58.8 (73.0) |
| 2020 | 전체 | 2,412 | 752 | 1,863 (439) | 77.2 (58.4) | 543 (313) | 22.5 (41.6) |
| | 장애 | 485 | 111 | 379 (62) | 78.1 (55.9) | 106 (49) | 21.9 (44.1) |
| 2021 | 전체 | 2,680 | 816 | 2,016 (491) | 75.2 (60.2) | 664 (325) | 24.8 (39.8) |
| | 장애 | 769 | 204 | 411 (93) | 53.4 (45.6) | 358 (111) | 46.6 (54.4)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5.)

*성폭력 상담소 상담 집계

한편, <표 IV-34>의 성폭력 피해유형별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비장애를 포함한 전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비중보다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는 전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오고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는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애 여부에 따라 피해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4> 성폭력 피해유형별 지원 인원(2019~2021)

(단위: 명, %)

| 연도 | 계 | 강간 및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희롱 | 기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
|------|---------------|--------------|--------------|------------|--------------|------------|------------------------|
| 2019 | 64 (100.0) | 32 (50.0) | 23 (35.9) | 0 (0.0) | 6 (9.4) | 0 (0.0) | 3 (4.7) |
| 2020 | 62 (100.0) | 16 (25.8) | 27 (43.5) | 0 (0.0) | 11 (17.7) | 1 (1.6) | 7 (11.3) |
| 2021 | 93 (100.0) | 59 (63.4) | 25 (26.9) | 2 (2.2) | 4 (4.3) | 0 (0.0) | 3 (3.2)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5.)

*성폭력 상담소 상담 집계

<표 IV-35>의 장애여성 가정폭력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0년의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변화와 통계집계방식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 상담과 달리 기타 상담의 비중이 낮고 가정폭력 상담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6> 가정폭력 피해 유형은 2019년과 2020년에 집계된 건수가 많지 않아 연도별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202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를 포함한 전체에 비해 경제적 폭력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경제적 폭력의 경우 경제권에 대한 통제로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장애가 있는 경우 이 유형의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IV-35> 가정폭력 상담 건수: 전체 및 장애여성(2019~2021)

(단위: 건, 명, %)

| 연도 | 구분 | 계 | | 가정폭력 상담 | | 기타 상담 | |
|------|----|--------|-------|---------|-------|-------|------|
| | | 건 | % | 건 | % | 건 | % |
| 2019 | 전체 | 13,338 | 100.0 | 9,694 | 72.7 | 3,644 | 27.3 |
| | 장애 | 15 | 100.0 | 15 | 100.0 | 0 | 0.0 |
| 2020 | 전체 | 11,572 | 100.0 | 9,133 | 78.9 | 2,439 | 26.7 |
| | 장애 | 26 | 100.0 | 7 | 26.9 | 19 | 73.1 |
| 2021 | 전체 | 15,456 | 100.0 | 13,427 | 86.9 | 2,029 | 13.1 |
| | 장애 | 120 | 100.0 | 114 | 95.0 | 6 | 5.0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5.)

<표 IV-36> 장애여성 가정폭력 피해 유형(2019~2021)

(단위: 건, %)

| 연도 | 계 | | 신체적폭력 | | 성적폭력 | | 정신적, 정서적 폭력 | | 경제적 폭력 | | 기타 | |
|------|----|-----|-------|------|------|-----|-------------|------|--------|-----|----|-----|
|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 2019 | 여성 | 2 | 1 | 50.0 | 0 | 0.0 | 1 | 50.0 | 0 | 0.0 | 0 | 0.0 |
| | 남성 | 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2020 | 여성 | 3 | 1 | 33.3 | 0 | 0.0 | 2 | 66.7 | 0 | 0.0 | 0 | 0.0 |
| | 남성 | 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2021 | 여성 | 148 | 67 | 45.3 | 0 | 0.0 | 68 | 45.9 | 13 | 8.8 | 0 | 0.0 |
| | 남성 | 28 | 17 | 0.0 | 0 | 0.0 | 11 | 0.0 | 0 | 0.0 | 0 | 0.0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022. 5.)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반적인 여성폭력 사건에 비해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장애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이 폭력을 겪고 있거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지관 등 관계기관이나 주변인이 폭력을 인지하여 신고하더라도 후에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며 재피해를 입는다. 특히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노출된 장애여성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장애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한 듯한 행위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동반되어 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인지하거나, 가해자를 자신의 인적 자원으로 인지하고 다른 사람

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인 성관계나 성매매를 거절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 가해자가 이를 여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연애 혹은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여성일 경우 피해-가해 관계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여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표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에 있어서 장애여성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장애여성이 출산 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 특히, 자녀는 장애가 없지만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해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대해 성폭력과 성매매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에 대한 인지 및 성인권 교육 등이 필요하며 장애여성이 양육자가 될 경우 양육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장애여성에게 대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3세 이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13년 221건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은 2013년이 9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많고, 2019년이 2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적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667건으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인천은 2013년 이후 소폭의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20년 37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221 | 124 | 130 | 106 | 109 | 109 | 111 | 84 |
| 인천 발생건수 | 9 | 7 | 3 | 5 | 6 | 6 | 2 | 4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0.43 | 0.24 | 0.25 | 0.21 | 0.21 | 0.21 | 0.21 | 0.16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0.31 | 0.24 | 0.10 | 0.17 | 0.20 | 0.20 | 0.07 | 0.14 |
| 전국 검거율 | 96.8 | 103.2 | 97.7 | 100.0 | 96.3 | 96.3 | 99.1 | 96.4 |
| 인천 검거율 | 66.7 | 114.3 | 100.0 | 100.0 | 116.7 | 133.3 | 150.0 | 75.0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간·간음, 강간등 합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전국 검거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발생한 범죄 대부분이 검거되고 있으며, 예년에 검거하지 못한 범죄는 다음 해에 검거하는 등 대부분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의 경우 2013년 66.7%, 2020년 75.0%로 전국에 비해 낮은 검거율을 보이는 해도 있으나 2018년 133.3%, 2019년 150.0%로 초과하여 검거한 해도 있어 전반적인 검거율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전국 검거율은 모두 90% 이상이지만 앞서 살펴본 강간의 경우보다는 검거율이 낮게 나타나며, 인천의 경우 2014년 82%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검거율을 보인다.

<표 IV-38>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708 | 797 | 826 | 792 | 846 | 801 | 846 | 667 |
| 인천 발생건수 | 52 | 50 | 56 | 56 | 61 | 51 | 42 | 37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1.38 | 1.55 | 1.60 | 1.53 | 1.63 | 1.55 | 1.63 | 1.29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1.81 | 1.72 | 1.91 | 1.90 | 2.07 | 1.73 | 1.42 | 1.26 |
| 전국 검거율 | 90.5 | 92.1 | 93.2 | 93.1 | 92.2 | 93.0 | 95.5 | 96.6 |
| 인천 검거율 | 96.2 | 82.0 | 98.2 | 92.9 | 95.1 | 98.0 | 95.2 | 100.0 |

출처: 경찰범죄통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20년에 192건으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는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2020년 5월에 형법 305조가 개정되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높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후 통계수치의 변화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전국 검거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발생한 범죄 대부분이 검거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해에는 모두 100%의 검거율을 보인다.

<표 IV-39>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32 | 42 | 54 | 42 | 47 | 71 | 77 | 192 |
| 인천 발생건수 | 1 | — | 2 | — | 2 | 5 | 2 | 13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0.06 | 0.08 | 0.10 | 0.08 | 0.09 | 0.14 | 0.15 | 0.37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0.03 | 0 | 0.07 | 0 | 0.07 | 0.17 | 0.07 | 0.44 |
| 전국 검거율 | 100.0 | 90.5 | 100.0 | 100.0 | 100.0 | 94.4 | 93.5 | 98.4 |
| 인천 검거율 | 100.0 | — | 100.0 | — | 100.0 | 100.0 | 200.0 | 100.0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간, 강간등, 유사강간 합계

<표 IV-40>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 년 |
|---------------------|-------|-------|-------|-------|-------|-------|-------|-----------|
| 전국 발생건수 | 14 | 8 | 13 | 9 | 18 | 25 | 28 | 24 |
| 인천 발생건수 | 1 | — | 1 | 1 | 4 | 2 | 1 | —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0.03 | 0.02 | 0.03 | 0.02 | 0.03 | 0.05 | 0.05 | 0.05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0.03 | 0 | 0.03 | 0.03 | 0.14 | 0.07 | 0.03 | 0 |
| 전국 검거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2.0 | 96.4 | 108.3 |
| 인천 검거율 | 100 |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출처: 경찰범죄통계

인천광역시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발생건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난다.

<표 IV-41>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677 | 325 | 198 | 156 | 121 | 131 | 111 | 89 |
| 인천 발생건수 | 81 | 62 | 54 | 47 | 55 | 50 | 49 | 47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1.32 | 0.63 | 0.38 | 0.30 | 0.23 | 0.25 | 0.21 | 0.17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2.81 | 2.14 | 1.85 | 1.60 | 1.87 | 1.69 | 1.66 | 1.60 |
| 전국 검거율 | 97.6 | 101.7 | 99.4 | 99.0 | 99.0 | 99.3 | 98.6 | 98.5 |
| 인천 검거율 | 100.0 | 98.4 | 107.4 | 110.6 | 96.4 | 104.0 | 108.2 | 97.9 |

출처: 경찰범죄통계

*강간·간음, 강간등합계

<표 IV-4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추행 발생건수 및 검거율

(단위: 건,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국 발생건수 | 1645 | 1676 | 1529 | 1549 | 1597 | 1317 | 1164 | 800 |
| 인천 발생건수 | 97 | 84 | 115 | 121 | 120 | 92 | 95 | 52 |
| 전국 10만명당 발생건수 | 3.22 | 3.27 | 2.97 | 3.00 | 3.08 | 2.54 | 2.24 | 1.54 |
| 인천 10만명당 발생건수 | 3.37 | 2.89 | 3.93 | 4.11 | 4.07 | 3.11 | 3.21 | 1.77 |
| 전국 검거율 | 89.3 | 96.9 | 95.0 | 97.8 | 97.2 | 96.1 | 97.1 | 97.6 |
| 인천 검거율 | 87.6 | 98.8 | 94.8 | 99.2 | 92.5 | 98.9 | 98.9 | 101.9 |

출처: 경찰범죄통계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성폭력이나 다른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이 피해가 또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일상처럼 사용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척하며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촬영물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퍼지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제3금융 등 사금융에서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겪게 되거나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의 특성상 자신의 친구를 이러한 범죄에 끌어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는 경우 이를 피해 기출한 아동·청소년은 범죄에 노

출되기 쉽다. 하루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채팅 앱을 통해 성인 남성과 조건 만남을 가진다거나, 숙식 제공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쉼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가출팸’을 만드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 가출팸 안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앱을 통한 성매매에 노출되게 된다. 가출팸 안에서 나이가 많거나 먼저 들어온 청소년이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을 성매매에 연결하는 일종의 포주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러 유형의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범죄 피해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폭력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노출에 취약해지는 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피해를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자신의 의지로 한 행위로 인지하여 피해 사실이 축소되거나 수사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쉼터나 시설에서는 다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받지 않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이 아동·청소년이기에 성인과 함께 둘 수 없어 시설 입소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시설을 나눌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희희낙낙상담소’에서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를 함께 지원하다가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잇다’ 사업을 진행하며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잇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드롭인 센터로, 성매매 피해를 겪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이들이 겪은 범죄 피해에 대해 연계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소결

경찰청 및 검찰청의 범죄 통계와 상담소의 통계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폭력 유형별로 각각의 특징이 나타난다. 성폭력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에서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범죄유형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인구대비 신고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검거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상담소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였다.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고 외부와의 접촉은 줄어들게 되면서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되었다. 따라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정폭력의 특징을 고려한 접근성 향상과 지원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분포가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여전히 20, 3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미성년자의 비중과 중·노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의 발생 건수가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성매매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에서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의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난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의지가 범죄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소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에 따라 상담소 통계가 영향을 받는 만큼 통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크게 구분하지만 폭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발생하며, 한 가지 폭력을 경험한 후 그로 인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일 경우 중첩적이고 연쇄적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주여성, 장애여성,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처음 경험한 폭력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이들을 지지해 줄 주변의 관계망이 부재하고, 사회적 안전망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이 겪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최초의 폭력으로 인해 이후의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 고리를 중간에 끊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V. 정책 제언

1. 시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2. 경찰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3.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1. 시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가. 여성폭력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1)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여성폭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 검찰청, 지원 기관 등에 각각 나누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기관별로 중점을 두거나 필요한 사항이 다르다 보니 집계 기준이 다르고 중복으로 집계가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의 목적은 이를 통해 여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상황과 사례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기관별로 생산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통계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므로, 이를 관리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접수한 사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여성폭력 통합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폭력 피해 양상의 변화와 사례관리, 피해자 지원기관 지원 현황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성범죄 및 그루밍 피해 실태조사 실시

디지털성범죄는 기술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피해유형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청소년과 20~30

대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피해의 경우 그루밍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성적 착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청소년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천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이 38%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23-2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과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을 위해 청소년과 20~30대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력 확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디지털성범죄 발생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개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월 개소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올해 개소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모두 15인 이상의 인력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명의 인력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경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문이나 심의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여성정책과와 여성권익시설, 경찰기관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24).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에서부터 위기개입(법률, 의료, 상담, 수사, 교육)의 방법, 회복지원까지 피해자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과 검찰, 지원 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라.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적극적 피해자 발굴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은 피해 여성을 지지해줄 사회적 기반이 없어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폭력적인 상황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다시 피해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으로 피해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경우 여성 스스로가 폭력을 겪고 있거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 반복해서 재피해를 겪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사랑으로 인지하거나 자신에 관한 관심으로 인지하여 폭력을 용인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도 장애인일 경우 가해자 또한 자신의 행위를 여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해 관계와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원 기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전담하는 지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일상 속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많아 이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단순히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부터 경제 범죄에 연루되면서 친구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모여 ‘가출팸’을 형성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결국 가정폭력이 아동과 청소년을 또 다른 범죄로 이끄는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처음 폭력을 경험하는 시점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한 피해 위험 청소년 발굴 등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개입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2022년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를 성매매 피해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하여 그루밍과 피해와 성폭력으로 확대하여 전문상담사를 확대하고 피해상담과 함께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와 심리·정서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였다(경향신문, 2022년 9월 15일자 신문).

인천광역시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꾸준히 전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여성폭력 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 기관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성매매 피해와 성 착취 및 성폭력 피해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 성 착취 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중첩적이고 연쇄적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을 지지해줄 주변의 관계망 또한 취약하므로, 쉽게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폭력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어렵다. 또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공황, 수면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매매 지원 시설 퇴소 청소년 경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인천 직장 내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있어 피해자 상담은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어 신속한 대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심리안정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역새일센터와 서구새일센터 등에서는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아 상담 실태 등과 관련한 정보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상담을 지원받기 위해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인천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전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상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을 직장으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인천지역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평등 제도 정착을 위한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폭력 예방 대응 체계 마련

40여 개 유인도서로 이뤄진 인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도서 지역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무료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변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비한 편이다. 또한 기존의 강화상담소도 이용자 수 감소로 문을 닫았다.

도서 지역은 지역주민 간 집단·폐쇄적인 문화가 강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 사실

■ ■

노출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섬 지역은 상담소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복지센터가 주민센터 내에 젠더 전문 지식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여성폭력 대응을 포함하여 성평등한 문화 확산 사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 지역 자체 마을 단위 추진단(지역관찰자 또는 활동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적 기반이 고려된 폭력 예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25).

2. 경찰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가. 여성폭력 범죄 통계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 작성

경찰의 범죄 통계는 발생 건수, 검거 현황 구속·불구속 현황, 조치 상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를 나누어 성폭력 내 각 분류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범죄장소 특성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위 분류에 대해서만 통계를 제공하고 폭력 유형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으로 처리된 범죄 통계만 확인할 수 있어 성폭력에 비해 세부 분류별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여성폭력 통계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분류별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 중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 범죄만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때문에 현재 통계로는 여성폭력의 정확한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첩된 범죄의 유형이더라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과 연계된 경우 여성폭력으로 집계하는 통계 작성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인지된 범죄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징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접수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건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신고 건수에 대한 집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폭력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사건 일지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폭력피해 유형 등에 대한 집계를 통해 각 관할서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처리 세부 통계 작성이 필요하며, 경찰 일선에서도 여성폭력 피해 데이터구축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폭력 유형을 반영한 여성폭력 범죄 통계 작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조사과정조정관 확대

여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고를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피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한 비율이 5.8%에 불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율 13.1%보다 현저하게 낮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성 착취 피해의 경우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고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 직무교육 과정에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갖춘 조사과정조정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하반기 조사과정조정관의 직렬을 없애고 일반 경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실질적으로 경찰기관 내에 여성폭력 관련해서 젠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공백인 발생한 상태가 되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계 조사과정조정관이 단 한 명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져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심각한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화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과정조정관을 확대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여성 폭력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수사 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3.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 과제

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은 인터넷 기기에 친화적이어서 온라인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쉽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놀이문화와 범죄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25).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성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실태 및 잘못된 성문화는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 착취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폭력성이 짙은 온라인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온라인 사용을 지도하고,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 성인지교육 의무 교육 실시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 시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유학생 대상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성 폭력 상담 기구 확대 필요

인천은 다문화 자녀 및 이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및 성 착취 문제를 지원하는 기관은 있지만, 학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구가 없다. 외국인 학생과 이주 배경 청소년,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성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동식·장미혜·이미정·전혜상·동제연·김숙이. (2019). 성남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 계획 연구, 성남시.
- 김미선·신현주. (2019).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정혜·윤덕경·정수연·이인선·이주영. (2018).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혜·주재선·정수연·동제연·김홍미리·심선화·최현정·허민숙·성세희.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김주희. (2018). “이런 생활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중년여성 성매매 유입의 정치경제, 한국여성학, 34(1), 33~66.
- 김홍미리·이현주. (2021).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박민정·김성희. (2020). 울산지역 여성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복순. (2018).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 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여성연구, 99(4), 181~218.
- 박영주. (2018).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박영주·김민지·정희경. (2021). 대구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대구여성가족재단.
- 양수진·김빛여울·심혜선. (2021). 인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 (2020).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5.
- 이미정·문미경·장미혜·전혜상·권민정. (2019). 2019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여성가족부.
- 이미정·장미혜·전혜상·정다은·이인선. (2019).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안·한연주·이근혁. (2019). 수원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이화진·강지영·정여진. (2020).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디지털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중심으로

■ ■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여성가족재단. (2022). 2022 인천 성평등 아젠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장미혜·이미정·김동식·주재선·동제연·고현승·노성훈·이시림. (2019).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장미혜·이미정·주재선·고현승·이인선·이시림. (2019). 여성폭력 통계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장미혜·이미정·김효정·동제연·홍연주·노성훈·정지연·조운명. (2020).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여성가족부.

장미혜·김효정·정연주·박상민·정다운·정지연·유경화·이다은.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정다운·이은지. (2020).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조선미·주재선·박인혜·임연규. (202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입력 가이드 개발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미영·박지영. (2018). 부산지역 데이트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황정임·박선영·주재선·김원정·동제연·최미진. (2022).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경찰청 「범죄백서」, 각 년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 록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인천광역시에서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시행 주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연구 수행 기관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032. 517. 0156

조사 기관 : 효산경영연구소(주) 박효미 연구원 02.564.9970.

SQ 1

귀하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

SQ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조사종단

SQ 1-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구)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옹진군

SQ 2

귀하의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 : 년 월

→ 만19세 이상 응답 (만19세 미만 조사 중단)

용어 설명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함. 성희롱, 성추행, 강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이 모두 포함됨.

I 지역사회 안전 및 성범죄

☞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구/군 단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군/구 단위)을 기준으로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 (3)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 (4)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1-1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군/구 단위)을 기준으로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가 사는 동네(군/구)는 야간에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내가 사는 동네(군/구)는 빈집이나 공터가 잘 관리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내가 사는 동네(군/구)에서는 공원이나 (야외)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내가 사는 동네(군/구)는 경찰순찰을 자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내가 사는 동네(군/구)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내가 사는 동네(군/구)는 여성과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 ① | ② | ③ | ④ |

II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피해 경험

용어 설명

- 성희롱(성적 괴롭힘)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2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 **2-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오 → **6** 항목으로 이동

2-1

귀하가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직장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인천

② 서울

③ 경기도

④ 그 외 지역(적어주세요 : _____)

3

귀하의 직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나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4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내에** 직장에서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예방**이나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내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는 있는 직장 내에서 상사, 동료, 거래처,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최근 3년 | |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습니까?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요. | | | | |
|---|-------|----|--|----------|--------|--------|-------|
| | 있다 | 없다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 (1) 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성적으로 긍정적/부정적 품평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동영상, 글, 음성, SNS 등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했던 적이 있다(예: 안마나 스킨십, 술자리 등에서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옆에 앉기 요구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내 앞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스스로 만져서 불쾌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의 성적인 생활에 대해 질문 받거나 나와 관련한 성적 추문이 퍼져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쳐다보거나 고의 혹은 강제로 내 몸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은밀한 장소(집, 모텔, 음란한 장소에서의 회식 등)로 데려가려 하거나, 권유하여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계속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항 중 '① 있다'에 1개 이상 응답한 경우 → 5-1 항부터 응답

□ 문 5 항 중 '② 없다'에 모두 응답한 경우 → 6 항부터 응답

5-1

위와 같은 경험이 발생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업무시간 중에
- ② 업무시간은 아니지만 근무와 관련된 자리(회식, 접대, 야유회 등)에서
- ③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자리에서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2

귀하에게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용주
- ② 직장 상사(고용주 제외)
- ③ 직장 동료
- ④ 부하 직원
- ⑤ 고객
- ⑥ 거래처 직원(기업주 또는 나보다 상급자)
- ⑦ 거래처 직원(사실상 나와 동료급)
- ⑧ 거래처 직원(사실상 나의 부하직원급)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3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남성
- ② 여성
- ③ 남녀 모두

5-4 귀하는 위와 같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담당부서 등)에 조치를 요청하였다

→ **5-4-1** **항으로 이동**

- ②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 ③ 노동조합, 직원협의회 등의 조직에 상담하였다
- ④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하였다
- ⑤ 고용평등상담실(평등의 전화 등)에 상담하였다
- ⑥ 고용노동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였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⑧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⑨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 의논하였다
- ⑩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5-4-2** **항으로 이동**

5-4-1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담당부서 등)의 사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4-2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담당부서 등)에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 ③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
- ④ 소문과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5

귀하는 대처 과정이나 대처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피해 사실의 공론화 이후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글 혹은 이야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 ① | ② |
| (3)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를 두둔하며 나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다 | ① | ②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사건의 비밀유지가 어려운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하거나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 ① | ② |

5-6

귀하의 대처 또는 직장에서의 조치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②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사과하였다
- ③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 ④ 상대방이 성희롱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다
- ⑤ 상대방이 부서 또는 근무지를 이동하였다
- ⑥ 상대방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 ⑦ 상대방이 해고되었다
- ⑧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서나 근무지 이동 또는 퇴사하였다
- ⑨ 상대방이 과태료 납부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였다
- ⑩ 조치 결과를 알지 못한다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II

대학(원)에서의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경험

6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학생으로서 대학(원)에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 **6-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9** **항으로 이동**

6-1

귀하가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인천 ② 서울 ③ 경기도 ④ 그 외 지역(적어주세요 : _____)

7

귀하는 학교에서 성희롱(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이나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7-1** **항으로 이동**

② 없다 → **8** **항으로 이동**

7-1

그 교육은 귀하가 성희롱(성적괴롭힘)이 무엇이고, 피해 시 대처 방법(신고 등)을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 **8** **항으로 이동**

③ 별로 도움이 안됨 ④ 전혀 도움이 안됨

→ **7-1-1** **항으로 이동**

7-1-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교육 내용 또는 교육 자체가 형식적이어서
- ②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어서
- ③ 온라인 교육이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 ④ 교육자(강사)의 전문성이 없어서
- ⑤ 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는 시간대에 해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다닌 적이 있거나 현재 다니는 있는 대학(원) 내에서 교수, 교직원, 선후배, 친구 등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수나 교직원 간의 성희롱(성적괴롭힘) 피해 경험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에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최근 3년 | |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습니까?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요. | | | | |
|---|-------|----|---|----------|--------|--------|-------|
| | 있다 | 없다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 (1) 나의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동영상, 글, 음성, SNS 등을 보여주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하여 불쾌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불쾌했던 적이 있다(예: 안마나 스킨십, 술자리 등에서 블루스, 술 따르기, 이성 옆에 앉기 요구 등)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내 앞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스스로 만져서 불쾌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의 성적인 생활에 대해 질문받거나 나와 관련한 성적 추문이 퍼져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쳐다보거나 고의 혹은 강제로 내 몸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신의 위치(교수, 교직원, 선배 등)나 권력을 이용해 성적, 장학금이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교제나 신체접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계속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 8 항 중 '① 있다'에 1개 이상 응답한 경우 → 8페이지 8-1 항부터 응답

□ 문 8 항 중 '② 없다'에 모두 응답한 경우 → 10페이지 9 항부터 응답

8-1

귀하에게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교수 | ② 시간강사 | ③ 교직원 |
| ④ 선배 | ⑤ 동기 | ⑥ 후배 |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

8-2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③ 남녀 모두 |
|------|------|---------|

8-3

위와 같은 피해를 경험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강의실 | ② 교수 연구실 | ③ 실험실 |
| ④ 동아리실 | ⑤ 도서관 | ⑥ 화장실 |
| ⑦ 주변 술집 | ⑧ 주변 숙박시설(모텔 등) | ⑨ 자취방(집) |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

8-4 귀하는 위와 같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8-4-1** **항으로 이동**

- ②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 ③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하였다
- ④ 친한 친구나 선후배에게 상담하였다
- ⑤ 교수에게 상담하였다
- ⑥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 ⑦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2번 ~ 9번 응답자 **8-4-2** **항으로 이동**

8-4-1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8-4-2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있는지 몰라서
- ②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 ③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
- ④ 소문과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8-5 귀하는 대처 과정이나 대처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피해 사실의 공론화 이후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글 혹은 이야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 ① | ② |
| (3)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를 두둔하며 나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다 | ① | ②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사건의 비밀유지가 어려운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하거나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 ① | ② |

IV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용어 설명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으로 (전)연인, (전)배우자, (전)동거인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을 의미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및 스토킹 등이 포함됨.

9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파트너(연인 또는 배우자 등)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최근 3년 | |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습니까?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시오. | | | | |
|---|-------|----|---|----------|--------|--------|-------|
| | 있다 | 없다 | 년 1회 이하 | 6개월 1-2회 | 월 1-2회 | 주 1-2회 | 거의 매일 |
| (1) 파트너로부터 일상생활(옷차림, 일정 및 약속, 통화 및 연락 등)을 통제받은 경험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파트너의 통제로 인해 원활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파트너가 나를 의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설, 모욕적인 말 등을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파트너가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파트너가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 등을 가져간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파트너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파트너가 흥기 등을 이용해 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파트너가 나의 자녀, 지인, 기타 가족 구성원, 반려동물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파트너가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파트너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적 접촉이나 성 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계속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 9 항 중 '① 있다'에 1개 이상 응답한 경우 → 9-1 항부터 응답

□ 문 9 항 중 '② 없다'에 모두 응답한 경우 → 11 항부터 응답

9-1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현재 배우자(사실혼 포함) | ② 과거 배우자(사실혼 포함) |
| ③ 현재 연인 | ④ 이전 연인 |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9-2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③ 남녀 모두 |
|------|------|---------|

10 위와 같은 피해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신고하였다 | |
| ②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하였다 | |
| ③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의논하였다 | |
| ④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 → 11 항으로 이동 |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10-1 귀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예 → 10-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0-1-2 항으로 이동

10-1-1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의 사건처리가 폭력 관계 및 폭력 피해를 벗어나는 데
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약간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10-1-2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신고할 수 있는지 몰라서 ②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③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④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⑤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⑥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⑦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⑧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2

귀하는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0-2-1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10-2-3 항목으로 이동

10-2-1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중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여성긴급전화1366 ②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 ③ 해바라기센터 ④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여성의 전화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2-2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사건처리가 폭력 관계 및 폭력 피해를 벗어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 ③ 약간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10-2-3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 ②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③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④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⑤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⑥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 질까봐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3

귀하는 대처 과정이나 대처 이후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피해 사실의 공론화 이후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글 혹은 이야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나를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 | ① | ② |
| (3)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를 두둔하며 나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다 | ① | ② |
| (4) 나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 사건의 비밀유지가 어려운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사건 담당자 또는 상담사가 가해자를 두둔, 옹호하거나 일방적인 화해나 합의를 유도하였다 | ① | ② |

10-4

귀하가 피해 경험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취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 **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누구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② 가해자가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 ③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④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⑥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⑦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 ⑧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⑨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 ⑩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성폭력 피해 경험

11 귀하를 지금까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강제추행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① 예

② 아니요 → **12** 항목으로 이동

11-1 피해를 입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 |
|--|--|---|
| | | 회 |
|--|--|---|

11-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하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친구·학교 선후배 | ② 학교 선생, 교수, 학원강사 | ③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 ④ 가족 (부모, 형제자매) | ⑤ 친인척 | ⑥ 가족외 동거인 |
| ⑦ 배우자 | ⑧ 전배우자 | ⑨ 현재 연인 |
| ⑩ 이전 연인 ⑪ 이웃, 단순 대면인 ⑫ 데이트 상대 (소개팅, 맞선 등으로 만난 사람) | | |
| ⑬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 ⑭ 모르는 사람 |
| ⑮ 가해자가 누군지 모름 | | ⑯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1-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하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발생 장소 유형 | 구체적 발생 장소 |
|-----------------------|--|
| (1) 집 |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
| (2) 주택가 및 학교 | ③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④ 학교 및 학교 주변 |
| (3) 인구 밀집 상업지 | ⑤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⑥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⑦ 극장, 공연장 |
| (4) 사무실, 공장 등 | ⑧ 기업, 회사 사무실 ⑨ 종교기관 ⑩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
| (5) 야외, 거리, 대중교통 시설 등 | ⑪ 유원지, 공원, 등산로, 공터 ⑫ 공공장소 화장실 ⑬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⑭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
| (6) 그 외의 장소 | ⑮ 그 외의 장소(적어주세요 : _____) |

11-4

강제추행이 지난 1년(2021년 5월 ~ 2022년 4월) 내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강간** :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① 예

② 아니요 → **13** **항으로 이동**

12-1 피해를 입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 |
|--|--|---|
| | | 회 |
|--|--|---|

12-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하에게 강간피해를 입힌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친구·학교 선후배 | ② 학교 선생, 교수, 학원강사 | ③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 ④ 가족 (부모, 형제자매) | ⑤ 친인척 | ⑥ 가족외 동거인 |
| ⑦ 배우자 | ⑧ 전배우자 | ⑨ 현재 연인 |
| ⑩ 이전 연인 | ⑪ 이웃, 단순 대면인 | ⑫ 데이트 상대 (소개팅, 맞선 등으로 만난 사람) |
| ⑬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⑭ 모르는 사람 | |
| ⑮ 가해자가 누군지 모름 | ⑯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

12-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하가 강간 피해를 입은 장소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발생 장소 유형 | 구체적 발생 장소 |
|-----------------------|--|
| (1) 집 | ① 우리 집 ② 가해자의 집 |
| (2) 주택가 및 학교 | ③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④ 학교 및 학교 주변 |
| (3) 인구 밀집 상업지 | ⑤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⑥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⑦ 극장, 공연장 |
| (4) 사무실, 공장 등 | ⑧ 기업, 회사 사무실 ⑨ 종교기관 ⑩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
| (5) 야외, 거리, 대중교통 시설 등 | ⑪ 유원지, 공원, 등산로, 공터 ⑫ 공공장소 화장실 ⑬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⑭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
| (6) 그 외의 장소 | ⑮ 그 외의 장소(적어주세요 : _____) |

12-4 강간피해가 지난 **1년(2021년 5월 ~ 2022년 4월)** 내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VI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험

13

귀하는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최근 3년 | |
|---|-------|----|
| | 있다 | 없다 |
| (1) 나의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3)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진 또는 영상이 나의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된 적이 있다 | ① | ② |
| (4) 나의 얼굴 또는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과 합성 및 조작되어 유포된 적이 있다 | ① | ② |
| (5)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나와 관련된 성적 메시지 혹은 성적 비하, 공격하는 댓글, 문자 등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 | ① | ② |
| (6) PC, 핸드폰, 전화 등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사진, 영상, 소리, 글 등을 전해받은 경험이 있다 | ① | ② |

☞ 다음 사항을 확인 후 계속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문 13 항 중 '① 있다'에 1개 이상 응답한 경우 → 13-1 항부터 응답

□ 문 13 항 중 '② 없다'에 모두 응답한 경우 → 18페이지 15 항부터 응답

13-1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친구·학교 선후배 | ② 학교 선생, 교수, 학원강사 |
| ③ 직장 동료, 일터 관계자 | ④ 가족관계 (부모, 형제자매) |
| ⑤ 친인척 | ⑥ 가족외 동거인 |
| ⑦ 배우자 | ⑧ 전배우자 |
| ⑨ 현재 연인 | ⑩ 이전 연인 |
| ⑪ 이웃, 단순 대면인 | ⑫ 데이트 상대 (소개팅, 맞선 등으로 만난 사람) |
| ⑬ 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사람 | ⑭ 모르는 사람 |
| ⑮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⑯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3-2

귀하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③ 남녀 모두 | ④ 모름 |
|------|------|---------|------|

14

위와 같은 피해 경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수사기관(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찰 등)에 신고하였다
- ②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에 상담하였다
- ③ 주변 지인(친구, 가족 등)과 의논하였다
- ④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 15 항목으로 이동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1

귀하는 수사기관(경찰, 사이버 수사대, 검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예 → 14-1-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4-1-2 항목으로 이동

14-1-1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의 사건처리가 폭력 관계 및 폭력 피해를 벗어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 ② 별로 도움이 안됨
- ③ 약간 도움이 됨
- ④ 매우 도움이 됨

14-1-2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신고할 수 있는지 몰라서
- ②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 ③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신고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⑥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 ⑦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⑧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4

귀하가 피해 경험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취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누구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 ② 가해자가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 ③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④ 나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⑥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 ⑦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 ⑧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생각해서
- ⑨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 ⑩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

2021년 개소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수사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전혀 몰랐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 ③ 센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
-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15-1

귀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더 강화해야 할 우선 순위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대응방안·지지상담 등) 상담 지원
- ② (피해촬영물 등) 삭제 지원
- ③ (사건 서류작성 및 수사 동행 지원 등) 사건 지원
- ④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 ⑤ (전문심리상담 등) 치료비 지원
- ⑥ 치유 프로그램 지원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II 성희롱(성적 괴롭힘) 성폭력 피해 인식

16 ~ 18 문항은 5, 8, 9, 11, 12, 13 항의 항목 중 '직접 피해 경험이 1가지'라도 있을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5 직장 내 성희롱(성적괴롭힘), 8 대학(원)에서의 성희롱(성적괴롭힘)·성폭력, 9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11 강제추행, 12 강간, 13 디지털성범죄)

16 귀하가 **최근 3년(2019년 5월~2022년 4월)** 경험한 성희롱(성적괴롭힘) 혹은 성폭력 피해(사건)와 관련하여 **최근 한 달 동안 (2022년 4월)** 해당 항목이 본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피해(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밀려온다 | ① | ② | ③ | ④ |
| (2) 피해(사건)에 대해 꿈을 꾸거나, 오래동안 잠들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3) 피해(사건) 이후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놀란다 | ① | ② | ③ | ④ |
| (4) 피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기억(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피해(사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접하면 맘을 흘리거나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반응이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 (6) 피해(사건)를 기억하게 하는 것(사건 장소, 상황 등)은 일부러 피한다 | ① | ② | ③ | ④ |
| (7) 의도하지 않아도 피해(사건)가 생각난다 | ① | ② | ③ | ④ |
| (8) 피해(사건)가 생각나면 집중하기 어렵거나 화가 난다 | ① | ② | ③ | ④ |
| (9) 피해(사건)이 생각날 때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0)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17

귀하는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사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 ②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 ③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편견이 생겼다
- ④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다
- 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 ⑥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빠졌다
- ⑦ 활동하던 모임(동아리, 동호회, 종교활동 등)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어려워졌다
- ⑧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었다(휴직, 휴학 포함)
- ⑨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축소되었다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7-1

귀하는 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수사기관, 지원기관, 회사 등의 대응이 일상으로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 17-1-1 **항으로 이동**

③ 별로 도움이 안됨

④ 전혀 도움이 안됨

→ 18 **항으로 이동**

17-1-1

귀하의 피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어디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요.

- ① 가족이나 파트너의 지지
- ② 지인이나 친구의 지지나 조언
- ③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 ④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디지털성범죄 전문 피해지원기관
- ⑤ 직장이나 학교의 사건 처리기관
- ⑥ 의료기관
- ⑦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 ⑧ 법원판결(가해자 처벌)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8

귀하는 경험한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 상담을 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 → **18-1** 항목으로 이동
 ②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았다. → **18-2** 항목으로 이동

18-1

귀하의 치료나 상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 상담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18-2

귀하는 향후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정신의학적 치료나 전문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받을 의향이 있다 ② 받고 싶지 않다

19

귀하는 향후 성희롱(성적 괴롭힘)·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참여하고 싶지 않다

20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가정폭력·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보호시설 운영, 발생 시 긴급보호, 디지털성범죄 삭제 및 수사 동행지원, 치유 프로그램운영 등)
- ②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 학생 대상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육)
- ③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여성폭력예방포스터 공모전 및 시민참여 여성폭력예방홍보물 제작 사업)
- ④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관내 편의점·여성권익시설 등 지정, 위기 발생시 대피 및 경찰 긴급출동과 안전 귀가 지원)
- 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행정복지센터 등에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 ⑥ 자율방범대 및 안심귀가 동행지원
(자율방범대 순찰 및 생활거점별 위험지역 순찰 및 동행서비스)
- ⑦ 범죄예방환경 설계 및 CCTV 보안 강화
(CCTV 추가 설치 및 화질 개선, 가로등 설치 등)
- ⑧ 자기방어훈련교육 운영
(자기방어훈련에 관심 있는 시민 및 학생 대상, 타인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대처 방법 훈련 등)
- ⑨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한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공공시설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 화장실 내 비상벨·IOT응급비상벨 설치)
- ⑩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공공시설물 여성친화 모니터링
(전시행사장, 전통시장, 공원,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여성친화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점검)
- ⑪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사업
(폭력예방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 장애인 및 섬지역 주민 대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이동상담 사업)

21

귀하는 인천광역시의 성적 괴롭힘·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 목 | 전혀 필요 없음 | 별로 필요 없음 | 약간 필요 있음 | 매우 필요 있음 |
|--|-------------|-------------|-------------|-------------|
| (1) TV 공익광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 ① | ② | ③ | ④ |
|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강화(CCTV 및 안전 벨 설치, 방범활동 등) | ① | ② | ③ | ④ |
| (3)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 ① | ② | ③ | ④ |
| (4) 성범죄자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통한 가해자 검거 | ① | ② | ③ | ④ |
| (5) 수사기관(경찰 등)에서 성폭력 전담인력(전문가) 확충 | ① | ② | ③ | ④ |
| (6) 가해자 처벌 강화 | ① | ② | ③ | ④ |
| (7)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 (8)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 ① | ② | ③ | ④ |
| (9) 시민 대상 성 인권 및 폭력 감수성(성폭력예방) 교육 확대 | ① | ② | ③ | ④ |

IX

응답자 특성

DQ 1

귀하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 취득) ② 귀화 이주민(출생국가 기록)
③ 국적 미취득 이주민(출신국가 기록) ④ 외국인(출신국가 기록)

DQ 2

귀하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DQ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졸업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DQ 4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 **DQ 4-1**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요 → **DQ 5** 항목으로 이동

DQ 4-1

귀하의 장애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등록장애인

② 미등록장애인

DQ 5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비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동거(사실혼 포함)

④ 이혼

⑤ 사별

⑥ 별거

DQ 6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가구

② 부부(사실혼 포함)

③ 한부모 가족

④ 부모+미혼자녀

⑤ 부모+기혼자녀

⑥ 3세대 이상

⑦ 기타

DQ 7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증 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무직/퇴직

⑭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1번 주부부터 14번 기타 **DQ 11** 항목으로 이동**DQ 8**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설명]**

- 상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일단위인 자

- 무급근로자: 가족이나 친인척 중 무급으로 정규근로시간의 1/3 이상 근무하는 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직원이 있는 자영업

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DQ 9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DQ 10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중구

② 동구

③ 미추홀구

④ 연수구

⑤ 남동구

⑥ 부평구

⑦ 계양구

⑧ 서구

⑨ 강화군

⑩ 용진군

⑪ 서울

⑫ 경기

⑬ 기타 지역

DQ 11

귀하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세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 원 이상

⑨ 잘 모름

응답해 주신 내용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2022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발 행 인 : 인천광역시장

발 행 일 : 2022년 10월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TEL. 032-440-2758

<http://www.incheon.go.kr>

연구기관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511-3141

<http://www.ifwf.or.kr>

인 쇄 처 : 희성디자인 (032-581-8250)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